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및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effects of public school environments: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연구책임자 | 신나민

2009년 12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및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effects of public school environments: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연구책임자 | 신나민(동국대)

공동연구원 | 박현주(동국대)

본 보고서는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주관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 사업에 대한 후속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머리말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이것이 몸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눈치 채게 되었고, 이어 몸이 놓이는 공간의 영역으로 관심이 확대될 즈음 학교공간과 환경 디자인에 ‘필’이 꽃히게 되었다. 하여 주로 외국의 학교건축 및 건물 디자인에 대한 사례와 동향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이런 주제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국내에서도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문화관광부의 디자인공간문화 분과에서 주관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이었고 나는 당장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자료를 받아 보고 연구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연구가 마무리되고 이 보고서의 머리말을 쓰고 있는 2009년 12월 가장 많이 들었던 국제뉴스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다. EPA온실가스규제안, EIG 조율, 개도국 감축행동 등 국가 간의 협력과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패다 성공이다 이론이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및 녹색산업 등의 단어는 사회 각 분야를 막론하고 거의 ‘신종교’에 가깝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학교 공간과 환경 영역에서도 ‘그린 스쿨’, ‘에코 스쿨’, ‘고성과 스쿨’ 등의 개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돌이켜 봐도 학교 다니는 것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학교 화장실과 신발 벗고 쉴 공간이 없는 차가운 교실과 건물이 그리 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단 몸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인지하기 마련이고 이는 곧 불쾌라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좋은 친구, 선생님들과의 만남과 지적인 자양분 섭취로 즐거움과 환희로 물들어야 할 청소년기 학교에 대한 기억이 대개의 경우 별로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본 보고서는 학교공간의 디자인 변화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각도로 드러내 준다. 이 가운데 어떤 변화가 두드러진다면 정책결정자나 사업에 참여한 ‘어른’들이 만족하며 이 사업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시키고자 할까? 연구결과는 물론 이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3개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가운데 시범 사업의 전후를 모두 경험한 학생 794명과 비교집단 학생 515명이 참여하여 모두 1309명의 학생과 교사 134명이 참여한 설문 자료와 28명의 학생 그리고 교사 20명과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

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보기 전에 위에서 제기한 물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학교 공간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본 사업의 효과는 통계 수치와 인터뷰 자료로만 논하기에는 무리이다. 오히려 이 사업은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축학자와 철학자들의 언명을 국내의 학교에서 구현해 낸 전례 없는 사례라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미래의 주인이 될 우리의 청소년들이 품위 있고 환경에 민감한 멋진 사람들이 되려면 그들이 장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 역시 이런 사람을 담을 만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학교 건축, 건물, 공간, 환경 디자인 및 개선에 관심 있는 건축가, 정책결정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및 일반인에게 학교 공간의 사용자, 즉 학생과 교사의 관점을 알려주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점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성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부서가 연구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연구에 협조하며 결과를 후속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담당자인 한현경 선생님이 생면부지의 연구자로부터의 제안을 고려해 주신 덕분이다. 또한 연구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민호 과장님이 안계셨다면 이 연구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의 과정에서 사단법인 행복한 학교만들기의 이사장인 김경인 박사님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다. 연구에 협조해 주신 서울 대왕중, 화성 장명초, 전주 양지중, 영주 남산초, 밀양 무안중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배후를 든든히 지키며 자료 분석을 꼼꼼히 해주신 박현주 교수님과 사업 학교를 찾아 전국을 함께 여행하며 발로 뛰는 연구를 함께 해 낸 우리 팀, 이정훈, 박종향 선생과 이도용 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9년 12월

신 나 민

동국대 교육학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선행 연구	4
II. 연구의 개요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1
3. 연구과정	13
(1) 국내외 선행리뷰 및 연구계획 정교화	14
(2) 조사도구 개발	14
(3) 파일럿 테스트	15
(4) 현지 학교 설문조사 및 인터뷰	19
1) 서울 대왕중학교	19
2) 화성 장명초등학교	20
3) 밀양 무안중학교	20
4) 영주 남산초등학교	21
5) 전주 양지중학교	21
6) 비교 학교 설문	22
(5) 설문 자료 코딩 및 인터뷰 자료 전사	22
(6)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3
III. 연구결과	24
1. 설문 분석	24
(1) 설문 참여자의 인구학적 변인	24
1) 연구집단 학생	24
2) 연구집단 교사	26
3) 비교집단 학생	28
(2)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9
1) 연구 집단 학생 응답 분석	29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29

나.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행동 변화	29
다.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2
라.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32
마.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33
바. 북카페에 대한 느낌과 인식	33
사.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34
아.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34
자.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34
차. 설문 문항 변인 간의 관련성	35
2) 연구집단 중 3개 중학교 간의 차이 분석	35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36
나.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행동 변화	37
다.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8
라.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39
마.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40
바.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41
사.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42
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43
3) 연구 집단 교사 응답 분석	44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44
나.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교사 행동 변화	44
다.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학생 행동 변화	45
라.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5
마. 학교 교사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46
바.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46
사.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47
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47
자. 설문 문항 변인 간의 관련성	47
4)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차이 분석	48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49
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1
다.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52
라.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53
마.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54
5) 비교 집단 학생 응답 분석	54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54
나. 학교 시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55

다.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55
라.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56
6)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차이 분석	56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57
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58
다.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59
2. 인터뷰 분석	59
(1)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	60
(2)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가 가져온 파급효과들	63
1) 학생의 변화	63
가. 정서적 안정감	63
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	65
다. 공중의식	66
라. 학습태도	68
마. 문화적 감수성	69
바. 소통성	71
2) 교사의 변화	72
가.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72
나. 업무에 대한 동기화	73
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	74
3) 학교의 변화	75
4) 지역사회의 변화	76
(3)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77
(4) 기타 의견 및 향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공간	78
1) 서울 대왕중학교	79
2) 밀양 무안중학교	80
3) 전주 양지중학교	80
4) 영주 남산초등학교	80
5) 화성 장명초등학교	81
3. 연구 결과 요약	81
IV. 지속가능한 학교건물에 관한 국제적 동향	83
1. 학회 참관	83
(1) 서론	83
(2) 지속가능성 정의하기	84
(3) 녹색 성장	85
(4) 공공 공간으로써의 학교	86

(5) 건축가의 역할	86
1) 교육의 기본적 가치 지원하기	86
2) 자연과 학교 구조 통합하기	87
(6) 모범사례들	88
1) 일본, 저탄소 사회에서의 학교 계획	89
2) 영국, 탄소 제로의 지속가능한 학교	89
3) 포르투갈, 중등학교의 현대화	89
4) 이탈리아, 질 높은 교육시설 프로젝트	90
(7) 다양한 관련자들	91
(8) 이용가능성	91
(9) 비용	92
(10) 결론	92
2. 발표	93
3. 학교방문	94
(1) 루블라나 간호 중등학교(Ljubljana Secondary School of Nursing)	94
(2) 힌코 스므레카 초등학교(Hinko Smrekar Elementary School)	96
(3) 므라블린첵 유치원(Mravljincek Nursery)	98
4. 포스터 전시	100
V.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104
1. 연구의 시사점	104
2. 연구의 제한점	106
VI. 결론	107
참고문헌	110
부록1 (설문지 학생A)	
부록2 (설문지 학생B)	
부록3 (설문지 교사용)	
부록4 (인터뷰)	

표 목차

<표 II-1> 시범학교 설문 인원 현황	11
<표 II-2> 비교학교 설문 인원 현황	12
<표 II-3> 월별 연구 수행 세부 일정	13
<표 II-4> 1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15
<표 II-5> 2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16
<표 II-6> 3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17
<표 II-7> 4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17
<표 II-8> 5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18
<표 II-9> 현지 학교 설문조사학교 인터뷰 세부 일정 교 인원	19
<표 III-1> 설문지 연구 참여자의 빈도	24
<표 III-2> 연구집단 학생의 성별, 학년, 평균 연령	25
<표 III-3> 연구집단 교사의 성별, 교직경력, 본교 근무년수	26
<표 III-4> 비교집단 학생의 성별 교 학년	28
<표 III-5>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29
<표 III-6>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행동변화	30
<표 III-7> 연구집단 전체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학생 변화의 요인	30
<표 III-8>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안정감 변화	31
<표 III-9>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청결 변화	31
<표 III-10>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대인관계 변화	31
<표 III-11>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애교심 변화	31
<표 III-12>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편리함 변화	32
<표 III-13>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학업 변화	32
<표 III-14>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2
<표 III-15>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33
<표 III-16>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33
<표 III-17>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34
<표 III-18>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34
<표 III-19>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35
<표 III-20> 연구집단 학생의 설문 문항 변인 간의 상관 계수	35
<표 III-21>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36
<표 III-22>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후 행동변화	37
<표 III-23>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8
<표 III-24>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39
<표 III-25>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40
<표 III-26>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41
<표 III-27>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42
<표 III-28>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43

<표 III-29>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44
<표 III-30>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후 교사 행동변화	45
<표 III-31>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후 학생 행동변화	45
<표 III-32>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46
<표 III-33>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46
<표 III-34>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46
<표 III-35>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47
<표 III-36>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47
<표 III-37> 연구집단 교사의 설문 문항 변인 간의 상관 계수	48
<표 III-38>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48
<표 III-39>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0
<표 III-40>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51
<표 III-41>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52
<표 III-42>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53
<표 III-43>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54
<표 III-44> 학교시설이 비교집단 학생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55
<표 III-45>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55
<표 III-46>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56
<표 III-47>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56
<표 III-48>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58
<표 III-49>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59

그림 목차

<그림 II-1> 연구방법 개요	13
<그림 II-2> 대왕중학교 학생 인터뷰	20
<그림 II-3>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20
<그림 II-4> 장명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20
<그림 II-5> 장명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20
<그림 II-6> 무안중학교 학생 인터뷰	21
<그림 II-7>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21
<그림 II-8> 남산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21
<그림 II-9> 남산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21
<그림 II-10>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22
<그림 II-11>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22
<그림 III-1>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36
<그림 III-2>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후 행동변화	37
<그림 III-3>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8
<그림 III-4>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39

<그림 III-5>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40
<그림 III-6>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41
<그림 III-7>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42
<그림 III-8>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43
<그림 III-9>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49
<그림 III-10>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0
<그림 III-11>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51
<그림 III-12>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52
<그림 III-13>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53
<그림 III-14>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57
<그림 III-15>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58
<그림 III-16>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59
<그림 IV-1> 교장선생님 환영 및 학교 소개	94
<그림 IV-2> 중앙 계단	94
<그림 IV-3> 복도	95
<그림 IV-4> 교실문	95
<그림 IV-5> 교실 1	95
<그림 IV-6> 교실 2	95
<그림 IV-7> 여학생 화장실 1	95
<그림 IV-8> 여학생 화장실 2	95
<그림 IV-9> 남학생 화장실 1	95
<그림 IV-10> 남학생 화장실 2	95
<그림 IV-11> 도서관	96
<그림 IV-12> 실험 실습실	96
<그림 IV-13> 건물 바깥에서의 전경	96
<그림 IV-14> 교문 및 복도전경	96
<그림 IV-15> 입구에서: 환영의 노래	96
<그림 IV-16> 중앙 통로	96
<그림 IV-17> 중앙 통로에 걸려있는 학생 작품들	97
<그림 IV-18> 교실모습	97
<그림 IV-19> 화장실 1	97
<그림 IV-20> 화장실 2	97
<그림 IV-21> 급식실	97
<그림 IV-22> 학생 개인용 사물함	97
<그림 IV-23> 쓰레기 분리수거함	97
<그림 IV-24> 공중전화	97
<그림 IV-25> 체육관	98
<그림 IV-26> 우리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	98
<그림 IV-27> 입구: 교장 선생님의 인사	98
<그림 IV-28> 슬로베니아어 ECO CORNER	98

<그림 IV-29> 점심 식사 중인 아이들	98
<그림 IV-30> 공간은 실제 집처럼 디자인	98
<그림 IV-31> 긴 복도	99
<그림 IV-32> 복도에 걸린 어린이 작품들	99
<그림 IV-33> 창 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	99
<그림 IV-34> 주변 풍경	99
<그림 IV-35> 세면대	99
<그림 IV-36> 어린이용 변기	99
<그림 IV-37> 놀이 공간	99
<그림 IV-38> 출입구	99
<그림 IV-39> 포스터 전시 1	100
<그림 IV-40> 포스터 전시 2	100
<그림 IV-41> 포스터 전시 3	100
<그림 IV-42> 포스터 전시 4	100
<그림 IV-43> 포스터 전시 5	101
<그림 IV-44> 포스터 전시 6	101
<그림 IV-45> 포스터 전시 7	101
<그림 IV-46> 포스터 전시 8	101
<그림 IV-47> 포스터 전시 9	101
<그림 IV-48> 포스터 전시 10	101
<그림 IV-49> 포스터 전시 11	101
<그림 IV-50> 포스터 전시 12	101
<그림 IV-51> 포스터 전시 13	102
<그림 IV-52> 포스터 전시 14	102
<그림 IV-53> 포스터 전시 15	102
<그림 IV-54> 포스터 전시 16	102
<그림 IV-55> 포스터 전시 17	102
<그림 IV-56> 포스터 전시 18	10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사람과 공간이 만나면 학습 장소가 된다(People+Spaces=Learning Places). 이는 OECD의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위한 센터'(Centre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CELE)가 학교 건물과 환경 개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펼치고 있는 사업의 비전을 집약하여 표현한 문구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자 가장 널리 산재하는 공공기관이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간의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질적인 고려나 공공 투자는 산업이나 상업 혹은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미흡했던 것이 국내외의 공통된 실정이었다. 이런 현실을 초래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학교 건물이나 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행과 물리적 공간 환경의 질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행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과 건축, 혹은 자연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고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의 질이 그 공간에 정주하게 되는 사람, 즉 학생과 교사의 수행(performance) 및 안녕감(well-being)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건물 환경이 성취, 참여, 정서, 출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어 왔고, 교사에 대해서는 동기, 사기진작, 분위기, 교수방법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Higgins et al., 2005). 특히 교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학교 환경의 물리적 변화는 교사가 학교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과 교사의 동기 및 업무 의욕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을 변화시킴을 보여준다(Ahrentzen & Evans, 1984). 즉, 환경의 변화가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학교환경에 대해 주목할 만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의 공공투자가 눈에 띄일 정도로 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2년부터 빅토리아 시대 이후 경제적인 규모에 있어 최대라고 평가할 만큼 학교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부분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BCSE, 2009). 미국 역시 건축 분야에서의 고성능 디자인(High Performance Design)과 지속가능한 학교환경(Sustainable School Environment)에 대한 논의가 결합되면서 학교 공간 디자인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주목받고 있다(SECO, 2009). 특히 미국건축협회(American Architectural Foundation)는 혁신적인 학교디자인이 학교환경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Great School by Design"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AAF, 2007).

일본의 경우, 과거 대부분의 학교는 표준설계도 안에 있는 도면을 짜맞춤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지자체의 비용을 줄이려는 관행과 '수고들이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낮은 비용의 건축 시대를 가져왔다(구도 가즈미, 2004). 그러나 1997년부터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축되거나 개보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친숙한 학교를 만들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4개의 정부 부처(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echnology: MEXT,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the Environment)가 협의하여 지자체 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Mori, 2007). 또한 최근에는 건축가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인 구도 가즈미가 전개한 '새로운 학교 만들기'라는 페러다임도 널리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학교란 아이, 부모, 지역, 모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학교가 지역사회의 하나의 소중한 주거 공간임을 인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실의 벽을 줄이고, 색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화장실과 세면장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과 하나 되는 학교, 지역과 함께 지키는 안심 학교로 탈바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구도 가즈미, 2004).

국내의 학교건축의 경우는 산업 사회적 대량 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회 전반의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20세기 후반까지는 일체적,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고도 정보화 시대의 진입과 더불어 교수 학습의 방법이 학습자 중심의 다양화, 개별화, 특성화 등의 다기능화 되고 교육과정의 변화,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 여유로움이 있는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적 요구 등의 시대적 과제가 등장하여 학교건축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모승준, 2003). 최근에 신축되는 학교의 경우 학교 건물들이 기존의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도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도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실천 가운데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 분과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주목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기능 중심적 학교 공간을 문화적인 공간으로 변모시켜 학생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즐거운 학교로 탈바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행복한 학교, 2009). 학교는 학생들이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나 기존 학교는 군대 막사와 유사한 획일적인 구조와 회색빛의 페인트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학교 공간이 지역 예술가 및 교사, 학생, 지역 주민의 참여와 전문 디자이너의 노력으로 디자인이 고려된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시행 첫해인 2008년도에는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지역 기업인, 문화·예술인 및 관계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여, 학교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서울 대왕중학교와 화성 장명초등학교 및 밀양 무안중학교에서는 시설이 낙후된 화장실을 개선하였다. 또한 영주 남산초등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인 북 카페를 조성하는 등 5개 학교 내에 새롭게 문화공간을 조성하였다. 이 사업시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에는 작년 학교 만들기 추진실적에 따른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총 93개 학교가 이 사업에 신청하여('08년 43개교 신청) 이 가운데 서울 용곡중학교 등 10개 학교가 확대 선정('08년 5개교)되었다(서울신문,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의 의의를 검증하고 후속 사업에 의미 있는 시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08년 시행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에 있어 사용자, 즉 학생과 교사의 관점을 분석하여 후속 사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체계적으로 검증함이라 함은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가 추구했던 효과가 실제 사용자로부터도 확인되는지를 검토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에서 효과는 실제 사업이 실시된 학교의 학생과 교사의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거주 공간의 변화가 사람의 인식과 수행에 변화를 수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지각과 수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People-Environment Studies)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다(IAPS, 2009). 즉,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그 환경에 놓인(situated) 인간의 행위에 어떤 변화를 어

는 정도 가져오는가에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기한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다.

- ☑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은 어떻게 지각하는가?
- ☑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가 학생과 교사의 수행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가져 왔는가?
- ☑ 학교 급 (초, 중학교)과 지역에 따라 학생, 교사들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 변화된 학교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3. 선행 연구

학교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선행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학교 환경이 학생과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학교환경의 효과에 관한 문헌 고찰에 따르면 학교 환경의 효과는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Higgins et al, 2005:11).

- ☑ 성취(Attainment)
표준화 검사나 시험, 교사 관찰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측정된 학생 학습성취
- ☑ 참여(Engagement)
학습활동에의 참여 및 집중, 산만한 행동의 감소 등
- ☑ 정서(Affect)
교사나 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 학문적 자아개념 증대, 분위기와 동기에 영향
- ☑ 출석(Attendance)
지각이나 무단 결석 등의 횟수가 줄어듦
- ☑ 안녕감(Well-being)
크고 작은 질병과 불편함의 감소 등 개인의 육체적 자아에 대한 영향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와 실천의 명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루어진 연구 가운데 지속가능한 고성능 디자인(Sustainable high performance design) 개념을 적용한 학교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성취도가 높고 건강과 안녕감(well-being)의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이라는 보고가 있다(SECO, 2009). Cash(1993)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 성취 변인은 학교 건물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교실내의 장식적 요인에 더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xwell(1999)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11~12년간의 학교 환경 개선 사업 기간 동안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 수학 성적을 비교해 본 결과 더 새로운 시설과 더 높은 수학 성적 간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적 연구를 통하여 학교환경과 교육적 산출물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학생 학습에 미치는 학교 환경의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질적연구가 유용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Clark, 2002:11).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지역에서 이루어진 학교 디자인 변화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학교 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의 자아 인식(self-perceptions)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dgerton & McKechnie, 2004). 이 연구는 기존 건물을 개조한 학교(A)와 개조와 확장을 시도한 학교(B), 그리고 신축한 건물 환경(C)에 있는 학생 및 교직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비교하여 학생의 자아인식의 경우 C학교가 가장 높고 A학교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C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브라질의 사용 파울로에서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교 시설에 대한 후주거 평가(Post Occupancy Evaluation: POE)에서도 건축물의 질과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nstein & Moreira, 2008).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수행된 학교환경 연구의 결과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Annesley, Horne & Cottam, 2002).

- 1)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 2) 학교 환경의 영향은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3) 좋은 학습 환경이란 하나의 요인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 및 수업의 목표 등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효과성에 관한 주제 이외에 학교 환경 관련 문헌에서 다루는 내용은 실태 파악 혹은 만족도 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환경은 주로 교실환경을 포함한 실내 환경과 건물의 외양 디자인과 색채 그리고 옥외 공간의 활용과 관련된 실내 환경으로 나뉘어진다. 실내 환경 가운데도 교실의 학습 환경은 빛환경, 음환경, 열환경 및 공간환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영욱, 이성욱, 김정태, 1988).

첫째, 음환경, 즉 소리와 관련된 학교 환경은 교실 소음에 대한 심각성 및 교사의 목소리 건강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교실 소음의 학생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는 Shield와 Carey(200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영국 런던의 초등학교 교실의 소음 정도와 학생 학업 성취와의 관련을 조사한 결과, 교실 내부와 외부의 소음 정도는 모두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업 성취는 읽기, 수학, 과학 성적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7~11세 학생들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소음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응응응응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교실환경개선을 위한 School Noise Action Group(SNAG)에 의해 수행된 연구(SNAG, 2005) 역시 교실 소음이 심각하여 교사의 목소리에 대한 배경 소음의 비율(Signal to Noise Ratio:SNR)이 적절히 확보하지 않을 때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학생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학생들의 이해력이 낮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읽기 능력이 저하되며, 학습동기가 줄어들고, 언어 습득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80년대 초부터 학교의 교실내 소음도 및 창의 차음효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주변의 도로교통소음과 방음벽 및 그 효율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박양욱, 2001). 예를 들어 가종길, 이준대(1999)의 연구는 도로와 인접한 학교의 소음실태를 분석한 결과 창문 개방 시 1층보다는 2, 3층 교실의 소음도가 더 많이 올라감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소음공해 실태를 조사한 최도성, 김영옥(1994)의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90% 이상이 소음공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소음에 의한 두통이나 짜증, 집중력 저하, 소리의 불확실한 전달, 소음에 의한 수업 흐름중단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조사 대상이 된 초등학교 교실 가운데 소음 측정치가 미국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가 권장하는 배경소음의 허용기준치 40dB 이하인 곳은 없었고 대부분의 교실이 ANSI 권장 소음 정도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빛환경, 즉 조명과 관련된 환경은 실내 공기의 질과 함께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Higgins et al., 2005:16). 교실 학습환경에 대한 고등학생의 주관적 반응을 조사한 이영욱, 이성욱, 김정태(1988: 423)의 연구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으로 조성되는 빛환경이 교실 학습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채광에 있어서 야간보다 주간 학생의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자연채광으로 조성되는 교실환경에 비하여 인공조명으로 조성되는 야간의 교실환경의 경우 교실전체가 거의 동일한 환경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러시아의 교실들은 대부분 풍부한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의 어떤 교실들은 아주 부적절하게 창문이 나 있어 하루 종일 인공조명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국제비교 연구도 있다(Alexander, 2000). 자연 채광의 중요성은 지속가능한 학교 건물 디자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 효과는 수학 성적의 향상 등 학생 학업 성취로 검증되는 경향이 있다(SECO, 2009)

셋째, 열환경이란 문헌에서 주로 HVAC(Heating, Ventilating & Air-conditioning: HVAC)로 표기되므로 냉난방을 포함하여 환기 등 교실 내 공기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실에 냉난방기 뿐만 아니라 공기 청정기, 컴퓨터와 프로젝터, 대형 모니터 TV 등의 IT 매체까지 유입되어 HVAC 환경에 대한 평가가 더욱 다면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Likendey & Siebein, 2004). 또한 학교의 열환경은 학교가 위치한 지리 환경적 요인 및 재정적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공간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교실이나 학교 건축의 구조(layout)가 교사의 수업 진행 방식이나 특정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창환, 김익환(2002)의 연구는 열린교육(Open Education)의 구현에 있어 교사들이 어떤 교실 구조를 선호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교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이미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융통성, 연속성, 다양성, 편리성, 쾌적성의 5개 요인으로 교사들의 교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했을 때, 정숙성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고,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모든 요인에서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린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수업 방식에 따라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높은 공간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사들이 더 넓은 공간, 더 좋은 위치, 조용한 환경 등 열린 공간을 일반적으로 선호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기도 한다(Ahrentzen & Evans, 1984).

학교의 실외환경에 관한 연구는 학교 건물의 외양 디자인과 색채 그리고 옥외 공간의 활용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 이화룡(2007)은 최근 한국 학교건축의 디자인 경향을 ‘대중주의적 경향’, ‘전통성과 지역성의 강조’, ‘고전주의의 부활’, ‘예술적 자율성의 추구’ 등으로 요약하면서 학교건축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역동성을

논의한다. 또한 Rittelmeyer(2005)는 학교건물이 단조롭고, 딱딱하며, 지루하게 지각되지 않고 “다채롭고 다양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해방감을 주고”, “따스하고 부드럽게“ 지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독일 초, 중학생들의 학교건축에 있어 색채와 형태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국내 학교 건물의 외부색채에 대해서는 윤희철(2006), 부운선, 윤희철(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색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윤희철(2006)의 연구는 현상설계에 의해 당선된 색채계획이라 하더라도 설계자의 의도와 이용자 간의 관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는 실제 디자인 과정(design process)에 이용자의 시의적절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운선, 윤희철(2006)의 연구는 학생의 연령과 성에 따라 선호하는 색이 다름을 보여준다. 6세부터 17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색계에서 한색계를 선호하고 대체로 여학생은 난색을, 남학생은 한색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 중등학교 옥외시설의 공간 배분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고성룡(198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현재 초, 중등학교에서는 옥외시설 및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에 따른 교육환경 또한 질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여가활동의 대부분을 교실 및 복도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 외의 공간 가운데는 교사와 경계담 주위, 교사 뒤편의 후미진 곳 등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에 관한 학생 의견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 보면 학생들은 교육시설 중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종혁, 2006; 이용택, 2003; 좌경욱, 2008), 그리고 서울의 경우, 학교 시설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강북의 학교시설이 강남보다 좋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강북 학생들이 강남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강성만, 2005).

국내의 문헌에서 ‘학교환경’은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서 교실내의 환경을 비롯하여 학교정원, 학교녹지 공간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교육자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조현주, 2005:5), ‘학교시설’은 “학생의 심신의 성숙과 개발을 전제로 한 학습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학습 공간 및 교구, 부속공간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고성룡, 1987:26). 학교시설

과 학교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교의 기능이 학교 시설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곤란하고, 학교 시설이 학교의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능 결정론적 입장(김영철, 1995:5)과 “바람직한 물리적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시스템을 유도” 할 수 있다는 상관적 입장(고성룡, 1987:26)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국내 초·중학교 시설의 대부분은 초기공업사회의 효율적 단순 노동인력 양성을 위한 획일적인 건축 즉, 성냥갑교실 형태로 일컫는 소위 표준설계도에 의한 남측교실 북측복도 형태의 편복도형 교사이다. 이는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팽창의 시대적 산물의 결과였다. 하지만 고도 정보화 시대의 진입으로 인하여 현재는 학교건축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즉, 학습자 중심의 다양화, 개별화, 특성화 등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 여유로움이 있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등 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모승준, 2003). 1980년대 중반 중학교 교실의 시설 환경에 대한 신영봉의 연구는 틀에 박힌 사각형 구조 및 컴퓨터와 VTR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 교육 기자재의 운영에 대한 교실 환경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신영봉, 1985). 또한 1990년대 교육시설에 대한 교사의 의견에서는 교육시설이 현대 교육에 대응하는 융통성이 부족하여 교육의 효과성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김정수, 1993).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 공간 디자인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5월 21일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의 교과목의 자율적 선택과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향후 학교 구조와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원, 2009). 또한 2005년 2월 중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학교 시설이 포함되어 환경 보전, 에너지 절감, 자원 재활용 및 환경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강은주, 2007). 또한 미래의 학교는 국민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하여 지역 사회의 학습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이연수, 2009), IT 기술의 접목과 자연친화적 환경 구현, 지역 사회의 연계 및 휴식 공간으로써의 역할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화룡, 2009).

II. 연구의 개요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추진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5개 학교(진주 양지중학교, 서울 대왕중학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밀양 무안중학교, 영주 남산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재직 중인 교사 가운데 표집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각 학교마다 2008년에 실행 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연구내용과 방법이 구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 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기본 틀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5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연구문제와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내용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은 어떻게 지각하는가?
 - 감성적 반응은 어떠한가?
 - 인지적 반응은 어떠한가?
 - 어떤 편리함과 불편함을 느끼는가?
- 2)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가 학생과 교사의 수행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가져 왔는가?
 -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 사업 후 보고되었던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가?
- 3) 학교 급 (초, 중학교), 지역에 따라 학생/교사들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감성적 반응은 어떠한가?
 - 인지적 반응은 어떠한가?
 - 어떤 편리함과 불편함을 느끼는가?
 -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 4) 변화된 학교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활용되었다. 설문조사에 사용될 측정도구는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독일의 Rittelmeyer(2005) 교수가 학교건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평가에 사용했던 형용사 양측검증 방법이다. 이 도구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 교사들의 심미적, 인지적 반응 조사에 사용되었다. 둘째, 학교환경의 일반적 평가에 대해서는 영국의 Edgerton(2008)교수가 개발한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구가 사용되었다. 셋째, 기타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 표집의 크기는 평가학교의 사전 조사 후 학교 규모와 학생, 교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학교명	학생	교사
화성 장명초등학교	29명 (3개 학급)	11명
영주 남산초등학교	190명 (6개 학급)	42명
강남 대왕중학교	272명 (8개 학급)	37명
전주 양지중학교	220명 (6개 학급)	37명
밀양 무안중학교	87명 (4개 학급)	7명
합계	798명	134명

<표 II-1> 시범학교 설문 인원 현황

또한 시범학교 학생들이 보이는 효과가 학교건물 개선 사업에서 기인한 효과인지를 좀 더 타당성 있게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비교집단은 5개의 평가학교가 소재한 지역(전주, 서울, 화성, 밀양, 영주)에서 문화카페 사업을 진행한 영주 남산초등학교를 제외하고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진행한 나머지 4개 학교 중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 구성원이 유사한 동일 지역 내 학교 가운데 1개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교학교의 교사 집단의 설문은 제외되었다. 선정된 비교집단의 그 표집의 크기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학교명	학생
화성 N초등학교	34명 (3개 학급)
서울 W중학교	222명 (6개 학급)
전주 Y중학교	171명 (6개 학급)
밀양 S중학교	88명 (4개 학급)
합계	515명

<표 II-2> 비교학교 설문 인원 현황

설문지는 각각 학생A(시범학교용), 학생B(비교학교용), 교사용으로 분류하였고, 학생의 경우 중학교는 학급 크기에 따라 변화 전후를 경험한 2, 3학년 다수 학급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단, 초등학교는 학급 크기에 따른 단일, 다수 학급 선정은 동일하나, 설문의 의도나 어휘를 고려하여, 고학년(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포커스 그룹은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사 가운데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 전후를 모두 경험한 구성원 중에서 추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은 고학년인 4, 5, 6학년 2명씩 총 6명, 교사는 4명으로 구성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2, 3학년 3명씩 6명, 교사는 4명을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이 구성에는 성, 연령 등의 변인을 고려하여 되도록 다양한 구성원의 관점을 수렴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지 못한 반응과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II-1>과 같다.

(1) 국내외 선행리뷰 및 연구계획 정교화

먼저 7월에는 국내 외 선행연구 리뷰 및 연구 계획의 정교화 및 확정 과정이 있었다. 인간의 행위와 주거 환경의 상호작용,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실내 환경 디자인 등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을 수집하고,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그에 대한 참여 여부를 통한 학습자 및 교수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각 연구진 별 역할 분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문지 작성과 검토 작업을 시작으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09년 7월 24일 1차 연구 회의를 시작으로 각 주차별 프로젝트 회의 진행 및 학교별 설문조사와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연구원은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역할 분담에 관한 세부적인 일정과 내용을 각 회의 별로 조정, 진행하였다.

(2) 조사도구 개발

2009년 7월 23일 1차 프로젝트 회의부터 8월 14일 4차 프로젝트 회의까지 설문지 개발 및 인터뷰 문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었다. 우선 설문지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독일의 Rittelmeyer(2005) 교수의 학교건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평가에 사용했던 형용사 양측검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도구를 토대로 설문지 문항 중 학교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 교사들의 심미적, 인지적 반응 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 학교환경의 일반적 평가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영국의 Edgerton(2008)교수의 개발한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셋째, 기타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사업 후 보고되었던 학생들의 변화의 다양한 측면 중 안정화, 청결화, 소통성, 절약성, 적응성, 성적면에서의 유의미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또한 문항의 준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디자인 변화 사업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한 시범학교 간 공통 사업과 추가 사업을 조사하였다. 각 학교의 디자인 개선 현황 및 과정을 조사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범학교, 비교 학교의 표집 선정을 위하여 각 시범학교의 학생, 교사 인원 현황 역시 조사되었다. 더불어 비슷한 규모의 동일 지역내 학교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후 시범학교와 해당 부처의 협조를 통해 최종 비교학교를 선정하였다.

(3) 파일럿 테스트

1차 프로젝트 회의와 4차 프로젝트 회의 기간 중 서울 양정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8월 21일 서울 대왕중학교를 사전 방문하여 학교의 디자인 변화과정과 변화내용을 수집하였다. 4차 회의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표 II-4>, <표 II-5>, <표 II-6>, <표 II-7>에, 파일럿 테스트와 사전조사 이후 가진 5차 회의의 세부 내용은 <표 II-8>에 제시되어 있다.

일시 (회)	09.07.23 (1회)			
참석자	신나민(A), 박현주(B), 이정훈(갑), 박종향(을), 정민선(병)			
번호	내용	실행시기	담당	비고
1	연구계획서를 통한, 역할분담 확인 및 추진계획			
2	2주에 1번씩 회의 진행 예정	8/6(목): PM12:30	전원	
3	2차 회의 안건: ①설문지 확정/ ②현황보고 및 sampling 확정			
	= 설문지 확정을 위한 방법 A 7/30 : (갑,을,병) 설문지 초안작성 B 8/4 : (갑,을,병,A) 설문지 검토	7/30(목) : 13시 8/4(화): 13시	갑,을,병 갑,을,병, A	
	= 현황보고 및 sampling 확정을 위한 방법 A 5개교 시범학교 및 비교학교 sampling 조사 (갑,병) -시범학교, 비교학교 시설현황 및 history 파악 -학생조사		갑,병	
4	인터뷰 실시 방법 -집단 인터뷰 : 학생(6명)/ 교사(4명) -약 40분씩, one shot			
5	설문지(교사용/ 학생용) - 학급 크기에 따라 학년별로 실시(중학교) 단, 초등학교는 고학년(4,5,6학년)만 실시			
6	선행연구 search 및 정리(ring binder)		갑, 병	
7	2008년 문광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 파악		A	
8	현지조사 공문(A, 갑) -문광부의 협조를 통해 시범학교의 교사와 사전연결		A, 갑	
9	9월까지 현지 설문조사 실시 10월 초~ 15일까지 자료 분석			

<표 II-4> 1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일시 (회)	09.08.06 (2회)			
참석자	신나민(A), 박현주(B), 이정훈(갑), 박종향(을), 정민선(병)			
번호	내용	실행시기	담당	비고
1	문관부에서 진행된 학교환경변화에서 참여자 행동효과를 이끌어낼 것			
2	sampling 학교는 5개교에서 진행된 시기와 비슷하게 리모델링이 일어난 학교에서 선택해야 함			
3	5개교 학교 현황조사(문관부 사업을 통해 변화된 부분)		갑,을, 병	
4	설문지 초안 작성		갑,을, 병	
5	5개교 학교별로 학교변화프로젝트에 누가 얼마나 참여했는가?(표 작성)	8/11까지 e-mail 전송	갑,을, 병	
	학교에 필요한 의문사항(표 작성)		갑,을, 병	
	설문지 2차안 재작성 (5개교 공통+ special: 남산초, 양지중) ①학교시설변화에 대한 계획의 awareness,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②감정(7가지), ③인지(open question), ④변화(진술형, 5점척도), ⑤만족도(10점), ⑥화장실, ⑦기타		갑,을, 병	
	* 교사용설문지; 교사 자신의 만족도, 교사가 바라본 학생들의 이용도			
	* 양지중; '변화된 시설중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는가? 그 이유는?' 질문 포함			
	* 남산초(문화공간); 사용자들의 이용도에 관한 질문 포함			
6	설문대상 (중: 2-3학년/ 초: 4-6학년)			
7	행복한학교 만들기 3차 회의	8/12(수)	전원	

<표 II-5> 2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일시 (회)	09.08.12 (3회) 12:30-14:00			
참석자	신나민(A), 이정훈(갑), 박종향(을), 정민선(병)			
번호	내 용	실행시기	담당	비 고
1	질문지(학생용,교사용,비교집단용) 3개 수정 및 보완		갑,을, 병	
2	학교별 특성 정리 (각 학교의 정보가 나오고, 학교에 전달되었을 경우, 학교에서 정보를 편리하게 줄 수 있을 정도의 형식)		갑,을, 병	
3	질문지 검토 & 5개교 학교 정리(질문사항)	8/14(금) 16:00	A, 갑,을, 병	

<표 II-6> 3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일시 (회)	09.08.14 (4회) 16:00-18:00			
참석자	신나민(A), 이정훈(갑), 박종향(을), 정민선(병)			
번호	내 용	실행시기	담당	비 고
1	질문지(학생용,교사용,비교집단용) 3개 수정 및 보완	8/19(수)	갑,을, 병 A,B	
2	문관부 한현경 선생님을 통해 5개교 해당학교의 담당교사 연결		A	
	20일 3시 서울 대왕중학교 사전 조사 방문 요청 26일 3시 서울 대왕중학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실시 방문 요청			
3	질문지 검토 & 5개교 학교 정리(질문사항)	8/14(금) 16:00	A, 갑,을, 병	
	비교집단(sampling 학교) 선정하여 제시		갑,을, 병	
	21-22일 : 최종 설문지안 확정 및 인쇄 비교집단 선정하여 최종 설문지 수 파악	8/21(금) 12:00	A,B 갑,을, 병	

<표 II-7> 4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일시 (회)	09. 8.21(5회) 12:30-14:00			
참석자	신나민(A), 박현주(B), 이정훈(갑), 박종향(을), 정민선(병)			
번호	내 용	실행시기	담당	비고
1	<p><대왕중학교 방문 후 - 파일럿조사></p> <p>-24일 개학 예정</p> <p>-환경을 개선을 중요시 하고 있다.</p> <p>-환경의 유지를 위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망가졌다해도 다시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한다.</p> <p>-낙서는 하나가 생기면 연속적으로 생기므로, 생기자마자 지우도록 노력한다.</p> <p>-1학년 입학 후 학생들은 학교 시설에 매우 만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p> <p>-방학기간 학교 대청소 및 색칠을 다시한다. 이는 2가지 목적으로 환경의 청결함이 성품의 긍정적 효과를 주며, 폭력을 줄어줄게 한다.</p> <p>- 학생 휴게공간의 우려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선생님의 관리가 지속됨으로써,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p> <p>-방과 후 학교를 강화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 <p>-방과 후 학교 구성은 특목고반과 성적 향상반 등 다양한 반이 준비 되어 있다.</p> <p>-학교 시설은 동네 주민 이용도가 매우 높다.</p> <p>-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좋지 않지만 졸업 후 학생들은 매우 좋은 학교라는 인식을 갖는다. 학생들이 설문자세가 고자세이다.</p> <p>-학교 설문조사 시 이러한 점을 고려되었으면 한다.</p> <p>'인터뷰를 통한 접근 방법이 좋은 듯하다.</p> <p>'학교 환경이 매우 좋다. 산이 있으며, 퇴폐적 시설이 전무하다. 안전하다.</p> <p>-교감 선생님은 교육단체 강남구 총연합회 회장</p> <p>-프로젝터 파트너 선생님께서 연구부장님이신 김종미 선생님을 추천한다.(011-665-3479)</p>	2009.8.21 11:00 - 12:00	교장, 교감, A,B,갑	
2	<p>- 설문지(비교집단용, 학생용, 교사용) 최종 완성</p> <p>- 인쇄물 맡기기</p>			
3	<p>- 대왕중학교 방문 및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p> <p>- 설문조사대상: 2,3학년 (2,4,6,8반)/ 교사 40명(전원) 인터뷰대상: 학생6명(성비 및 학년고려)/ 교사 4명(성비 고려)</p> <p>- 순서: 학생조사 이후 교사 조사</p> <p>- 담당자를 통해, 인터뷰 장소 및 대상 선택</p> <p>- 준비물 : 인터뷰 시 비스킷류의 간식 준비, mp3 2개, 설문지</p>	8/26 (일시 재확인)	갑, 병	

<표 II-8> 5차 프로젝트 회의 세부 내용

(4) 현지 학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도구 개발 및 파일럿 테스트 종료 후 디자인 개선 사업에 참여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일정과 인원은 다음 <표 II-9> 과 같다.

차레	일시	장소	내용	인원	
				학생	교사
1	8/26 (수) 14:00 ~ 17:00	서울 대왕중학교	설문조사	272명	37명
			인터뷰	6명	4명
2	9/2 (수) 13:00 ~ 16:00	화성 장명초등학교	설문조사	29명	11명
			인터뷰	6명	4명
3	9/16 (수) 13:00 ~ 16:00	밀양 무안중학교	설문조사	87명	7명
			인터뷰	6명	4명
4	9/28 (월) 13:00 ~ 16:00	영주 남산초등학교	설문조사	190명	42명
			인터뷰	4명	4명
5	9/29 (화) 13:00 ~ 16:00	전주 양지중학교	설문조사	220명	37명
			인터뷰	6명	4명

<표 II-9> 현지 학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세부 일정 및 인원

1) 서울 대왕중학교

2009년 8월 26일 서울 대왕중학교에서 표집 학생과 교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생 2, 3학년 각각 4개 학급(남녀 혼성학급)을 선정하여 8개 학급 총 272명, 교사 37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학생들 중 학교 건물 변화 전후를 경험한 학년인 2, 3학년에서 각각 3명(남녀 혼성)을 선정하여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교사 4명에게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II-2> 대왕중학교 학생 인터뷰



<그림 II-3>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2) 화성 장명초등학교

2009년 9월 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성 장명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설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학교 교사 견학을 통하여 전체적인 학교시설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그룹 인터뷰에 대비한 개별 질문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표집 학생과 교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생 4, 5, 6학년 각 1개 학급(남녀 혼성학급)씩 3학급으로 총 29명에게 실시하였고, 교사는 총 11명에게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생은 4, 5, 6학년 각각 남녀 1명씩 총 6명, 교사는 4명을 선정하여 각각 40분간 진행하였다.



<그림 II-4> 장명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그림 II-5> 장명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3) 밀양 무안중학교

2009년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남 밀양 무안중학교에서 설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교장선생님 면담과 학교 교사 견학을 통하여 전체적인 학교시설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그룹 인터뷰에 대비한 개별 질문을 분류하였다. 이어서 표집 학생과 교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생 2, 3학년 각 2개 학급(남녀 혼성학급)씩 4학급으로 총 87명에게

실시하였고, 교사는 총 7명에게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생은 2, 3학년 각각 3명씩 (남녀 혼성) 총 6명, 교사 4명을 선정하여 각각 40분간 진행하였다.



<그림 II-6> 무안중학교 학생 인터뷰



<그림 II-7>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4) 영주 남산초등학교

2009년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경남 밀양 무안중학교에서 설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교장선생님 및 교무부장 면담과 학교 교사 견학을 통하여 전체적인 학교시설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그룹 인터뷰에 대비한 개별 질문을 분류하였다. 이어서 표집 학생과 교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교 일정상의 문제로 학생 5, 6학년 각 3개 학급(남녀 혼성학급)씩 6학급으로 총 190명에게 실시하였고, 교사는 총 42명에게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생 역시 일정상의 문제로 5, 6학년 각각 2명씩 총 4명, 교사 4명을 선정하여 각각 40분간 진행하였다.



<그림 II-8> 남산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그림 II-9> 남산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5) 전주 양지중학교

2009년 9월 22일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표집 학생과 교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교장선생님 및 교무부장 면담과 학교 교사 견학을 통하여 전체적인 학교시설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그룹 인터뷰에 대비한 개별 질문을 분류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생 2, 3학년 각각 3개 학급(남녀 혼성학급)을 선정하여 6개 학급 총 220명, 교사 37명에게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학생들 중 학교 건물 변화 전후를 경험한 학년인 2, 3학년에서 각각 3명(남녀 혼성)을 선정하여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교사 4명에게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II-10>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그림 II-11>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6) 비교 학교 설문

비교 학교의 설문은 기본적으로 시범학교의 규모와 유사한 학교 중에서 후보군을 두어 시범학교의 추천과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통해 선정하였다. 비교집단은 학생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설문조사만 실시하였고, 교사는 제외되었다. 또한 문화카페 사업을 진행한 영주 남산초등학교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학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제외한 4개 시범학교(서울 대왕중학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전주 양지중학교, 밀양 무안중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비교 학교와 세부 표집 인원은 본문 12페이지 <표 II-2>를 참고할 수 있다.

(5) 설문 자료 코딩 및 인터뷰 자료 전사

자료가 최초로 수집되었던 2009년 8월 26일 서울 대왕중학교 설문부터 마지막 비교 학교인 전주 Y중학교 설문을 2009년 11월 13일까지 진행하면서 각 시범학교와 비교학교에서 수집한 설문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해 SPSS 17.0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문 내용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해 MS-EXCEL을 이용한 전사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시에 지속가능한 학교건물에 관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 참여 역시 이루어졌다.

(6)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수집 완료된 코딩 데이터와 인터뷰 전사 작업을 통한 주제 분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주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역시 양적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SPSS 17.0을 사용하였고, 인터뷰 전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Ⅲ. 연구결과

1. 설문 분석

(1) 설문 참여자의 인구학적 변인

설문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 및 비교집단 학생의 성별과 학교에 따른 빈도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집단						비교집단		
	학생			교사			학생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초등학교	118	100	218	20	33	53	19	15	34
중학교	263	313	576	21	60	81	266	215	481
계	381	413	794	41	93	134	285	230	515

<표 Ⅲ-1> 설문지 연구 참여자의 빈도

1) 연구집단 학생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학교(연구 집단) 학생의 성별과 학년 분포 및 평균 연령이 <표 Ⅲ-2>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변인	항목	빈도	퍼센트
화성 장명초등학교	성별	남	15	51.7%
		여	14	48.3%
	학년	4	13	44.8%
		5	7	24.1%
		6	9	31.0%
	계		29	100.0%
	연령	평균 = 11.83 (표준편차 = .85)		
영주 남산초등학교	성별	남	103	54.2%
		여	86	45.3%
		무응답	1	0.5%
	학년	5	94	49.5%
		6	96	50.5%
	계		190	100.0%
	연령	평균 = 12.47 (표준편차 = .51)		
서울 대왕중학교	성별	남	103	37.9%
		여	169	62.1%
	학년	2	137	50.4%
		3	135	49.6%
	계		272	100.0%
연령	평균 = 15.42 (표준편차 = .58)			
전주 양지중학교	성별	남	113	51.4%
		여	105	47.7%
		무응답	2	0.9%
	학년	2	107	48.6%
		3	111	50.5%
		무응답	2	0.9%
	계		220	100.0%
연령	평균 = 15.47 (표준편차 = .54)			
밀양 무안중학교	성별	남	47	54.7%
		여	39	45.3%
	학년	2	41	47.7%
		3	45	52.3%
	계		86	100.0%
연령	평균 = 15.51 (표준편차 = .50)			

<표 III-2> 연구집단 학생의 성별, 학년, 평균 연령

2) 연구집단 교사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학교(연구 집단) 교사의 성별, 전체 교직경력, 본교 근무 연수 및 평균 연령이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변인	항목	빈도	퍼센트
화성 장명초등학교	성별	남	5	45.5%
		여	6	54.5%
	교직경력	6년-10년	4	36.4%
		11년-20년	3	27.3%
		21년-30년	2	18.2%
		무응답	1	9.1%
		평균 = 14.90 (표준편차 = 8.58)		
	본교 근무연수	1년	2	18.2%
		2년	4	36.4%
		3년	2	18.2%
		4년	1	9.1%
		5년	2	18.2%
	계		11	100.0%
연령		평균 = 38.64 (표준편차 = 8.32)		
영주 남산초등학교	성별	남	15	35.7%
		여	27	64.3%
	교직경력	1년-5년	5	12.0%
		6년-10년	4	9.6%
		11년-20년	6	14.2%
		21년-30년	10	23.8%
		31년-40년	11	26.2%
		무응답	6	14.2%
	평균 = 21.17 (표준편차 = 12.38)			
	본교 근무연수	1년	16	38.1%
		2년	9	21.4%
		3년	7	16.7%
		4년	6	14.3%
5년		3	7.1%	
무응답		1	2.4%	
계		42	100.0%	
연령		평균 = 44.62 (표준편차 = 10.75)		

학교	변인	항목	빈도	퍼센트	
서울 대왕중학교	성별	남	9	24.3%	
		여	28	75.7%	
	교직경력	1년-5년	3	8.2%	
		6년-10년	2	5.4%	
		11년-20년	7	18.9%	
		21년-30년	11	29.7%	
		무응답	14	37.8%	
		평균 = 18.07 (표준편차 = 7.91)			
		본교 근무년수	1년	4	10.8%
	2년		8	21.6%	
	3년		6	16.2%	
	4년		4	10.8%	
	5년		6	16.2%	
	6년-27년		5	13.6%	
	무응답		4	10.8%	
	계		37	100.0%	
연령	평균 = 43.21 (표준편차 = 7.84)				
전주 양지중학교	성별	남	12	32.4%	
		여	25	67.6%	
	교직경력	1년-10년	4	10.8%	
		11년-20년	12	32.4%	
		21년-30년	14	37.8%	
		31년-32년	3	8.2%	
		무응답	4	10.8%	
		평균 = 21.04 (표준편차 = 7.63)			
	본교 근무년수	0년	4	10.8%	
		1년	9	24.3%	
		2년	7	18.9%	
		3년	8	21.6%	
		4년	4	10.8%	
		5년	4	10.8%	
		6년	1	2.8%	
	계		37	100.0%	
연령	평균 = 46.91 (표준편차 = 6.54)				

학교	변인	항목	빈도	퍼센트	
밀양 무안중학교	성별	여	7	100.0%	
		교직경력	1년-10년	4	57.1%
			21년-30년	2	28.6%
			32년	1	14.3%
			평균 = 14.29 (표준편차 = 12.78)		
	본교 근무년수	1년	2	28.6%	
		2년	1	14.3%	
		3년	2	28.6%	
		4년	1	14.3%	
		무응답	1	14.2%	
계		7	100.0%		
연령	평균 = 39.14 (표준편차 = 12.05)				

<표 III-3> 연구집단 교사의 성별, 교직경력, 본교 근무년수

3) 비교집단 학생

비교집단 4개 학교 학생의 성별 및 학년 분포가 <표 III-4>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변인	항목	빈도	퍼센트
화성 N초등학교	성별	남	19	55.9%
		여	15	44.1%
	학년	4	14	41.2%
		5	12	35.3%
		6	8	23.5%
	계		34	100.0%
연령	평균 = 11.82 (표준편차 = .80)			
서울 W중학교	성별	남	106	47.7%
		여	116	52.3%
	학년	2	113	50.9%
		3	109	49.1%
	계		222	100.0%
연령	평균 = 15.48 (표준편차 = .51)			
전주 Y중학교	성별	남	108	63.2%
		여	63	36.8%
	학년	2	81	47.4%
		3	90	52.6%
	계		171	100.0%
연령	평균 = 15.51 (표준편차 = .50)			

학교	변인	항목	빈도	퍼센트
밀양 S중학교	성별	남	52	59.1%
		여	36	40.9%
	학년	2	40	45.5%
		3	48	54.5%
	계		88	100.0%
	연령	평균 = 15.52 (표준편차 = .53)		

<표 III-4> 비교집단 학생의 성별 및 학년

(2) 설문 문항 분석 결과

1) 연구 집단 학생 응답 분석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혼란스러운 - 질서정연한’의 형용사 쌍에 대해 ‘혼란스러운’이면 1점, ‘질서정연한’이면 5점으로 표시하게 된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5>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60.97	9.40	4.06	34	7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45.42	10.70	3.03	15	75
서울 대왕중학교	272	41.65	11.30	2.78	15	71
전주 양지중학교	220	41.02	11.86	2.73	15	75
밀양 무안중학교	85	54.93	9.59	3.66	30	75

<표 III-5>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나.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행동 변화

‘학교시설 변화 후 나는 학교에서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8개의 행동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문항의 예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쓰레기를 덜 버리게 되었다,’

‘학교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등이 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6>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65.83	12.54	3.66	34	90
영주 남산초등학교	190	52.47	13.72	2.92	22	90
서울 대왕중학교	272	46.71	13.63	2.60	18	90
전주 양지중학교	218	46.42	15.21	2.58	18	90
밀양 무안중학교	86	58.14	10.87	3.23	30	84

<표 III-6>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행동변화

학교시설 변화에 따른 학생의 행동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행동 변화 문항 18개를 개발 의도에 따라서 ‘안정감’, ‘청결’, ‘대인관계’, ‘애교심’, ‘편리함’, ‘학업’의 6개 요인으로 나누고 응답 반응을 분석했다. 먼저 6개 하위요인에 대해서 연구집단 전체 학생의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7>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응답범위	표준편차	반응평균
안정감	796	8.15	3~15	2.69	2.72
청결	794	8.99	3~15	2.93	3.00
대인관계	791	5.69	2~10	2.09	2.85
애교심	790	8.46	3~15	2.99	2.82
편리함	795	8.41	3~15	2.92	2.80
학업	789	10.26	4~20	3.77	2.57

<표 III-7> 연구집단 전체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학생 변화의 요인

<표 III-7>을 보면 청결이 5점 척도에서 반응평균 3.00(‘그렇다’)으로 연구집단 전체 학생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반응평균 = 2.85), 애교심(반응평균 = 2.82), 편리함(반응평균 = 2.80), 안정감(반응평균 = 2.72)의 순서로 나타났다. 6개 하위요인 중에서 학업이 반응평균 2.57로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개 하위요인에 대해서 연구집단 5개 학교별 학생의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8>부터 <표 III-13>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10.45	2.23	3.48
영주 남산초등학교	189	8.45	2.57	2.82
서울 대왕중학교	272	7.59	2.57	2.53
전주 양지중학교	220	7.70	2.85	2.56
밀양 무안중학교	86	9.66	1.91	3.22

<표 III-8>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안정감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11.10	2.30	3.70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9.28	2.69	3.09
서울 대왕중학교	272	8.50	2.88	2.83
전주 양지중학교	220	8.57	3.10	2.86
밀양 무안중학교	86	10.26	2.55	3.42

<표 III-9>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청결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화성 장명초등학교	28	7.89	1.97	3.9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9	6.29	2.09	3.14
서울 대왕중학교	271	5.14	1.95	2.57
전주 양지중학교	217	5.24	2.00	2.62
밀양 무안중학교	86	6.57	1.60	3.28

<표 III-10>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대인관계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화성 장명초등학교	28	11.79	2.25	3.93
영주 남산초등학교	190	9.02	2.78	3.01
서울 대왕중학교	271	7.87	2.89	2.62
전주 양지중학교	215	7.69	3.05	2.56
밀양 무안중학교	86	9.92	2.23	3.31

<표 III-11>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애교심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11.24	2.84	3.75
영주 남산초등학교	190	8.72	2.89	2.90
서울 대왕중학교	272	8.07	2.75	2.69
전주 양지중학교	218	7.59	2.90	2.53
밀양 무안중학교	86	9.92	2.32	3.31

<표 III-12>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편리함 변화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13.79	3.49	3.4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10.86	3.82	2.72
서울 대왕중학교	270	9.57	3.56	2.39
전주 양지중학교	217	9.53	3.80	2.38
밀양 무안중학교	86	11.81	2.98	2.95

<표 III-13>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후 학업 변화

다.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0(매우 불만족)부터 10(매우 만족)의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14>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24	8.46	1.93	3	10	0-10
영주 남산초등학교	179	5.74	2.37	0	10	0-10
서울 대왕중학교	265	5.38	2.53	0	10	0-10
전주 양지중학교	204	4.58	2.61	0	10	0-10
밀양 무안중학교	78	7.18	1.81	1	10	0-10

<표 III-14>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라.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우리 학교 화장실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

면 ‘밝은 - 어두운’의 형용사 쌍에 대해 ‘밝은’이면 1점, ‘어두운’이면 5점으로 표시하게 된다(이 문항의 경우 역채점을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느낌을 의미한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15>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58.48	8.61	3.90	40	75
서울 대왕중학교	271	50.81	11.93	3.39	15	75
전주 양지중학교	218	47.51	12.79	3.17	23	75
밀양 무안중학교	85	57.72	10.16	3.85	15	75

<표 III-15>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마.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우리 학교 화장실은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1개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문항의 예로는 ‘깨끗하다’, ‘이용하기 편리하다’, ‘휴지통이 깨끗하다’ 등이 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16>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43.59	9.54	3.96	16	55
서울 대왕중학교	272	35.01	8.90	3.18	11	55
전주 양지중학교	218	32.73	9.69	2.98	11	55
밀양 무안중학교	85	40.76	7.67	3.71	21	55

<표 III-16>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바. 북카페에 대한 느낌과 인식

연구집단 5개 학교 중 영주 남산초등학교는 화장실이 아니라 북카페가 개조되었다. 따라서 4)와 5)에 제시된 문항을 화장실이 아닌 북카페에 대해서 질문을 제시하였다. 북카페에 대한 느낌은 평균이 54.33(표준편차 = 11.96, N = 187)이었고 북카페 시설에 대한 인식은 평균이 25.48(표준편차 = 6.93, N = 189)로 보고되었다.

사.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17>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2.79	1.15	1	5	1-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2.67	1.21	1	5	1-5
서울 대왕중학교	272	2.44	1.13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220	2.61	1.21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83	3.02	0.94	1	5	1-5

<표 III-17>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아.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18>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2.69	1.14	1	5	1-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2.20	1.00	1	5	1-5
서울 대왕중학교	272	1.85	0.89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220	2.24	1.15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83	2.76	0.95	1	5	1-5

<표 III-18>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자.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나는 앞으로 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19>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3.55	1.09	1	5	1-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6	3.94	1.17	1	5	1-5
서울 대왕중학교	271	3.86	1.22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220	3.70	1.24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84	3.77	1.03	1	5	1-5

<표 III-19> 연구집단 학생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차. 설문 문항 변인 간의 관련성

설문 문항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집단 학생 전체에 대해서 변인 간의 상관 분석(correlational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III-20>에 제시되어 있다. 1종 오류의 확대를 막기 위해 p값을 .00625 (= .05/8)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변인	1	2	3	4	5	6	7
1.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						
2. 시설 변화 후 행동 변화	.69	---					
3. 시설 변화에 대한 만족도	.68	.67	---				
4. 화장실에 대한 느낌	.53	.52	.55	---			
5.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46	.47	.47	.47	---		
6. 시설 변화 계획의 인지도	.26	.28	.25	.22	.17	---	
7. 시설 변화 계획의 참여도	.31	.39	.24	.18	.23	.47	---
8. 시설 개선의 필요성	-.08 ^a	-.03 ^a	.01 ^a	.11	-.06 ^a	.14	.02 ^a

<표 III-20> 연구집단 학생의 설문 문항 변인 간의 상관 계수

주) 상관 계수는 $p < .00625$ 수준에서 유의.

^a = $p < .0062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 연구집단 중 3개 중학교 간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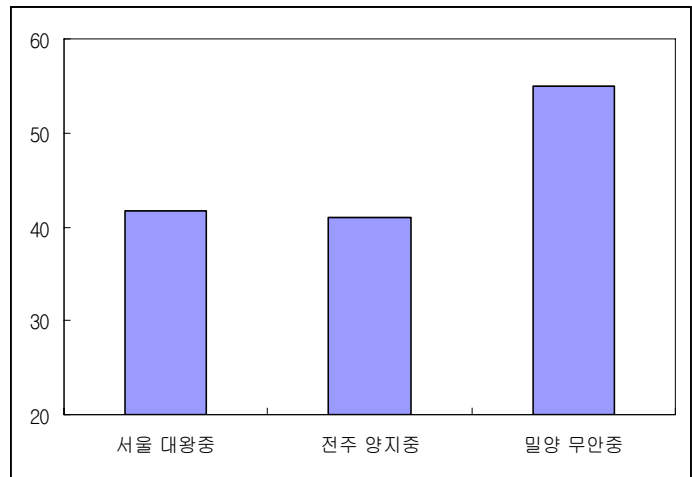
학교시설 변화를 경험한 연구집단 중에서 3개 중학교 간의 응답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사한 학교시설 변화를 경험한 학교들이 지역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혼란스러운 - 질서정연한’의 형용사 쌍에 대해 ‘혼란스러운’이면 1점, ‘질서정연한’이면 5점으로 표시하게 된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1>과 <그림 III-1>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서울 대왕중학교	272	41.65	11.30	2.78	15	71
전주 양지중학교	220	41.02	11.86	2.73	15	75
밀양 무안중학교	85	54.93	9.59	3.66	30	75

<표 III-21>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그림 III-1>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연구집단 3개 중학교(서울 대왕중, 전주 양지중, 밀양 무안중)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70) = 52.32, p < .001$. 3개 중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밀양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서울 대왕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건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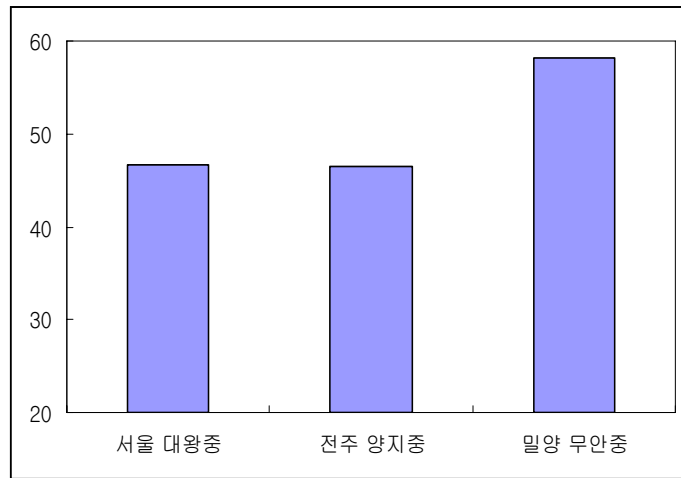
나타났다.

나.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행동 변화

‘학교시설 변화 후 나는 학교에서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8개의 행동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문항의 예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쓰레기를 덜 버리게 되었다’, ‘학교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등이 있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2>와 <그림 III-2>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서울 대왕중학교	272	46.71	13.63	2.60	18	90
전주 양지중학교	218	46.42	15.21	2.58	18	90
밀양 무안중학교	86	58.14	10.87	3.23	30	84

<표 III-22>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후 행동변화



<그림 III-2>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후 행동변화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후 행동변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인에서 세 집단의 변량 동등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Welch의 평균 동등성 검증(Welch's test of equality of mean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73) = 25.33, p < .001$. 3개 중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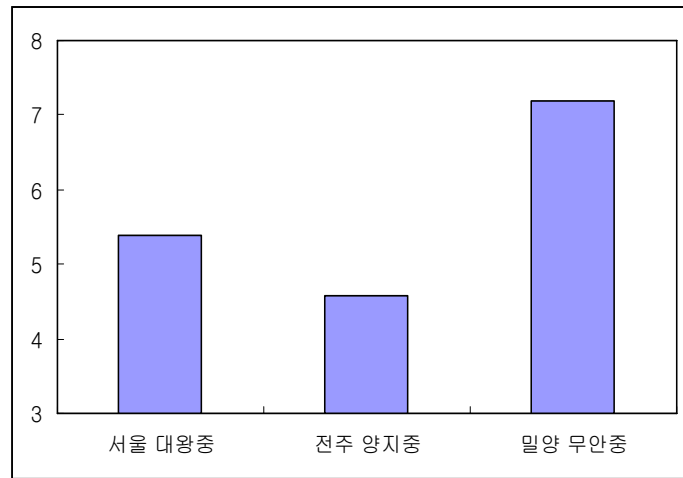
실시한 결과, 밀양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서울 대왕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시설 변화 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했다.

다.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0(매우 불만족)부터 10(매우 만족)의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3>과 <그림 III-3>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서울 대왕중학교	265	5.38	2.53	0	10	0-10
전주 양지중학교	204	4.58	2.61	0	10	0-10
밀양 무안중학교	78	7.18	1.81	1	10	0-10

<표 III-23>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 III-3>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인에서 세 집단의 변량 동등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Welch의 평균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44) = 31.15, p < .001$. 3개 중학교 중 어느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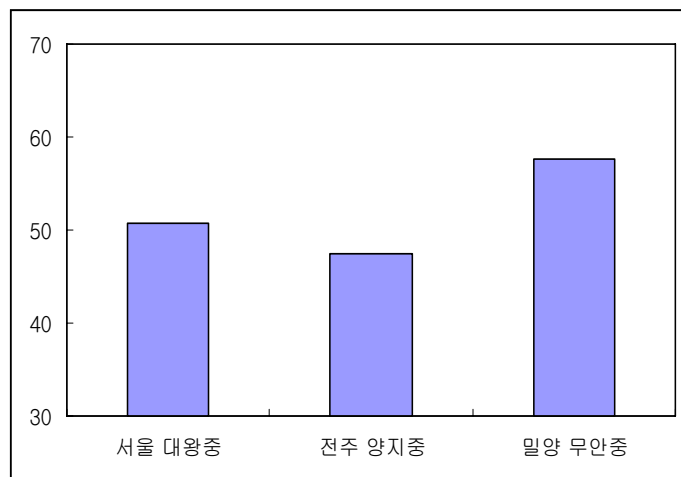
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학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5, $p < .$ 학생들이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보다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 더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밀양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5, $p < .$ 와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시설 변화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라.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우리 학교 화장실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4>와 <그림 III-4>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서울 대왕중학교	271	50.81	11.93	3.39	15	75
전주 양지중학교	218	47.51	12.79	3.17	15	75
밀양 무안중학교	85	57.72	10.16	3.85	23	75

<표 III-24>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그림 III-4>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71) = 22.10$,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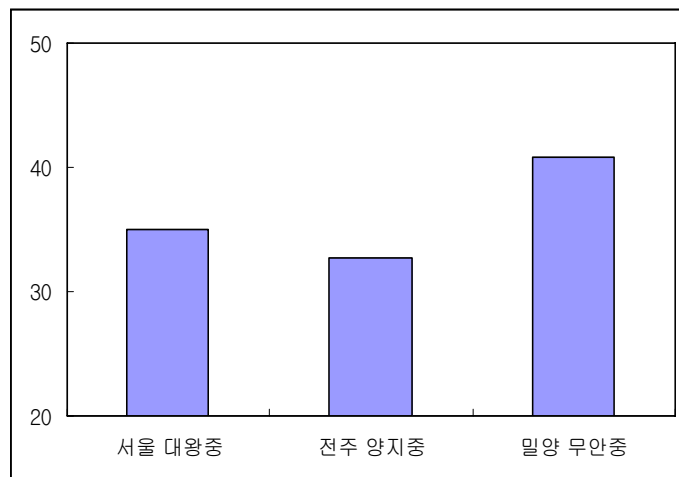
< .001. 3개 중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학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서울 대왕중학교 학생들이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보다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밀양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서울 대왕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우리 학교 화장실은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1개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5>와 <그림 III-5>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서울 대왕중학교	272	35.01	8.90	3.18	11	55
전주 양지중학교	218	32.73	9.69	2.98	11	55
밀양 무안중학교	85	40.76	7.67	3.71	21	55

<표 III-25>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그림 III-5>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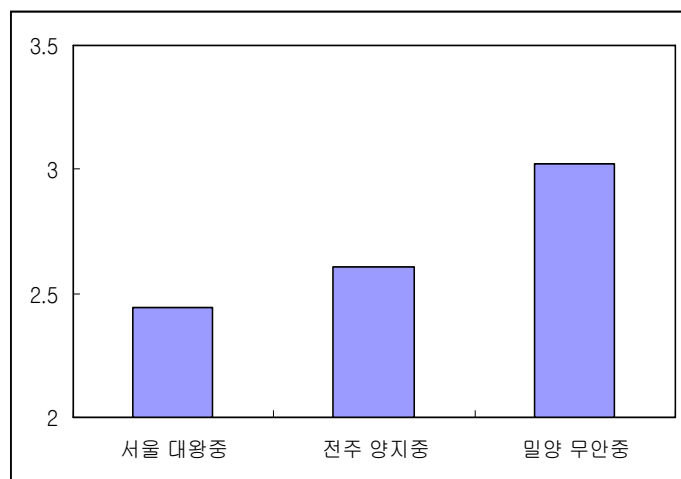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72) = 24.01, p < .001$. 3개 중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학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서울 대왕중학교 학생들이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보다 학교 화장실 시설이 더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보고했으며, 밀양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서울 대왕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화장실 시설이 더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보고했다.

바.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6>과 <그림 III-6>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서울 대왕중학교	272	2.44	1.13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220	2.61	1.21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83	3.02	0.94	1	5	1-5

<표 III-26>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그림 III-6>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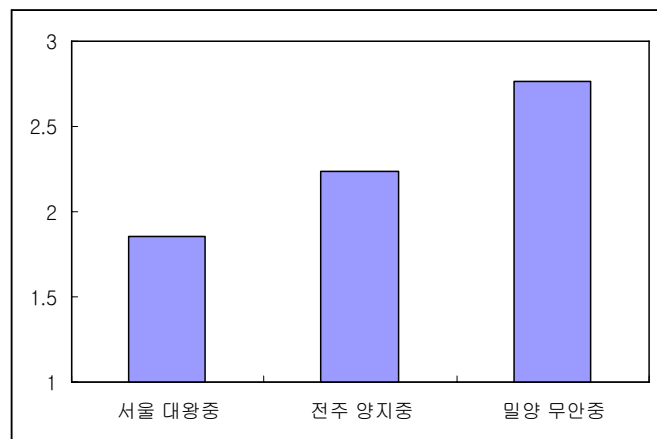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계획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인에서 세 집단의 변량 동등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Welch의 평균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72) = 8.53, p < .001$. 3개 중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밀양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서울 대왕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시설 변화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7>과 <그림 III-7>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서울 대왕중학교	272	1.85	0.89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220	2.24	1.15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83	2.76	0.95	1	5	1-5

<표 III-27>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그림 III-7>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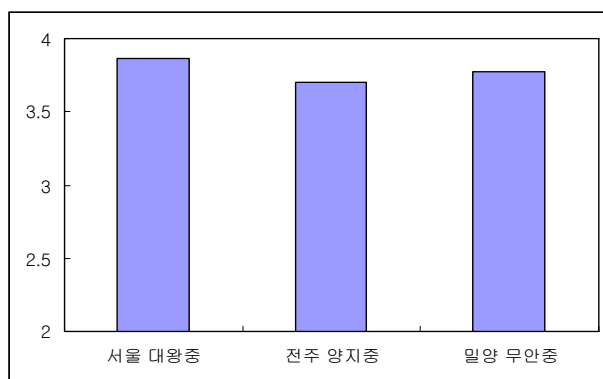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인에서 세 집단의 변량 동등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Welch의 평균 동등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572) = 27.94, p < .001$. 3개 중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학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이 서울 대왕중학교 학생들보다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보고했으며, 밀양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서울 대왕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나는 앞으로 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8>과 <그림 III-8>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서울 대왕중학교	271	3.86	1.22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220	3.70	1.24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84	3.77	1.03	1	5	1-5

<표 III-28>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그림 III-8>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연구집단 3개 중학교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572) = 1.08, p > .05$. 전반적으로 3개 중학교 학생 모두 학교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즉 4점(그렇다)에 가깝게 응답했다.

3) 연구 집단 교사 응답 분석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29>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11	62.36	8.50	4.16	48	75
영주 남산초등학교	42	47.74	8.41	3.18	34	71
서울 대왕중학교	37	55.95	11.40	3.73	36	75
전주 양지중학교	37	55.86	9.64	3.72	40	75
밀양 무안중학교	7	67.43	10.53	4.50	47	75

<표 III-29>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나.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교사 행동 변화

‘학교시설 변화 후 나는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9개의 행동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문항의 예로는 ‘학급 운영이 더 수월해졌다’, ‘수업 진행이 더 편해졌다’, ‘다른 교사들과 대화가 늘어났다’ 등이 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0>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11	35.00	3.72	3.89	28	40
영주 남산초등학교	42	29.33	6.82	3.26	9	38
서울 대왕중학교	37	31.03	5.08	3.45	17	40
전주 양지중학교	36	28.81	5.43	3.20	14	39
밀양 무안중학교	7	37.29	5.91	4.14	30	45

<표 III-30>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후 교사 행동변화

다. 학교시설 변화 후 학교에서 학생 행동 변화

‘학교시설 변화 후 학생들이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7개의 행동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문항의 예로는 ‘싸움이 줄어들었다’, ‘학교 시설을 더 아끼게 되었다’, ‘수업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등이 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1>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11	65.73	7.63	3.87	56	79
영주 남산초등학교	42	56.59	10.70	3.33	28	74
서울 대왕중학교	37	58.97	11.54	3.47	23	76
전주 양지중학교	36	56.63	9.79	3.33	34	79
밀양 무안중학교	7	69.86	11.87	4.11	51	85

<표 III-31>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후 학생 행동변화

라.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매우 불만족)부터 10(매우 만족)의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2>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10	8.60	.84	7	10	0-10
영주 남산초등학교	41	6.68	1.62	2	9	0-10
서울 대왕중학교	33	7.45	1.84	4	10	0-10
전주 양지중학교	34	7.15	1.46	4	10	0-10
밀양 무안중학교	7	9.43	.79	8	10	0-10

<표 III-32>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마. 학교 교사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우리 학교 화장실은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1개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문항의 예로는 ‘깨끗하다’, ‘이용하기 편리하다’, ‘휴지통이 깨끗하다’ 등이 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3>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장명초등학교	10	49.60	5.08	4.51	41	55
영주 남산초등학교	38	32.42	7.14	2.95	22	50
서울 대왕중학교	35	47.51	5.80	4.32	38	55
전주 양지중학교	35	43.20	8.46	3.93	16	55
밀양 무안중학교	7	51.43	4.20	4.68	43	55

<표 III-33>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바.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4>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11	4.27	0.65	3	5	1-5
영주 남산초등학교	40	3.20	1.18	1	5	1-5
서울 대왕중학교	34	3.29	1.06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35	3.40	1.19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7	3.86	1.07	2	5	1-5

<표 III-34>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사.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5>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11	3.64	0.92	2	5	1-5
영주 남산초등학교	40	2.42	1.17	1	5	1-5
서울 대왕중학교	34	2.32	1.09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35	3.03	1.42	1	5	1-5
밀양 무안중학교	6	3.50	1.05	2	5	1-5

<표 III-35>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나는 앞으로 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6>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응답 범위
화성 장명초등학교	11	4.18	0.75	3	5	1-5
영주 남산초등학교	40	4.25	0.84	2	5	1-5
서울 대왕중학교	35	4.09	1.04	1	5	1-5
전주 양지중학교	35	4.23	0.65	3	5	1-5
밀양 무안중학교	7	4.71	0.49	4	5	1-5

<표 III-36> 연구집단 교사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자. 설문 문항 변인 간의 관련성

설문 문항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 간의 상관 분석(correlational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III-3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변인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1	2	3	4	5	6	7
1.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						
2. 시설 변화 후 교사 행동 변화	.48	---					
3. 시설 변화 후 학생 행동 변화	.47	.88	---				
4. 시설 변화에 대한 만족도	.60	.70	.71	---			
5. 교사 화장실에 대한 인식	.55	.44	.43	.56	---		
6. 시설 변화 계획의 인지도	.33	.43	.36	.39	.24	---	
7. 시설 변화 계획의 참여도	.38	.40	.37	.36	.23	.71	---
8. 시설 개선의 필요성	.04 ^a	.20	.25	.17 ^a	-.03 ^a	.20	.10 ^a

주. 상관 계수는 $p < .05$ 에서 유의.

^a =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II-37> 연구집단 교사의 설문 문항 변인 간의 상관 계수

4)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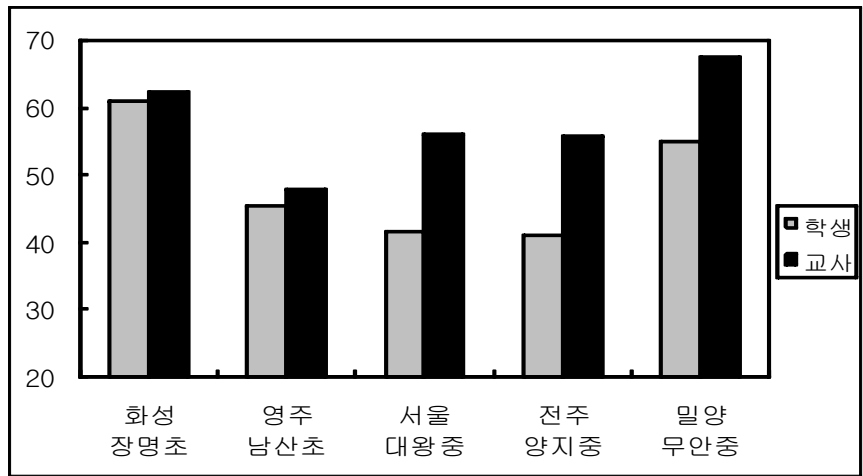
학교시설 변화를 경험한 연구집단 학교의 학생과 교사의 응답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의 반응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2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의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8>과 <그림 III-9>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60.97	9.40	11	62.36	8.50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45.42	10.70	42	47.74	8.41
서울 대왕중학교	272	41.65	11.30	37	55.95	11.40
전주 양지중학교	220	41.02	11.86	37	55.86	9.64
밀양 무안중학교	85	54.93	9.59	7	67.43	10.53

<표 III-38>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그림 III-9>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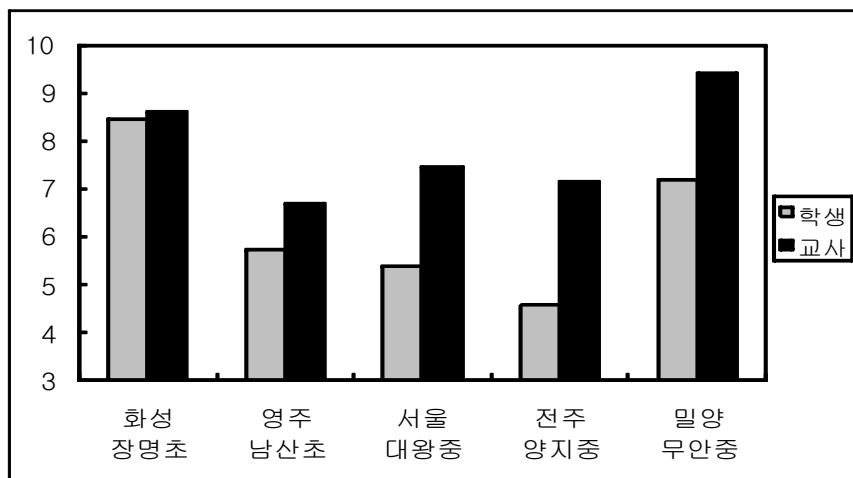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개 학교에 대해서 독립 집단 t 검증(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성 장명초등학교와 영주 남산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에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대왕중학교, 전주 양지중학교, 밀양 무안중학교의 경우 세 학교 모두 교사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대왕중학교: $t(307) = -7.21, p < .001$, 전주 양지중학교: $t(255) = -7.22, p < .001$, 밀양 무안중학교: $t(90) = -3.29, p < .01$]. 즉, 교사가 학생보다 학교 건물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으로 보고했다.

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매우 불만족)부터 10(매우 만족)의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학생과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39>와 <그림 III-10>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등학교	24	8.46	1.93	10	8.60	.84
영주 남산초등학교	179	5.74	2.37	41	6.68	1.62
서울 대왕중학교	265	5.38	2.53	33	7.45	1.84
전주 양지중학교	204	4.58	2.61	34	7.15	1.46
밀양 무안중학교	78	7.18	1.81	7	9.43	.79

<표 III-39>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 III-10>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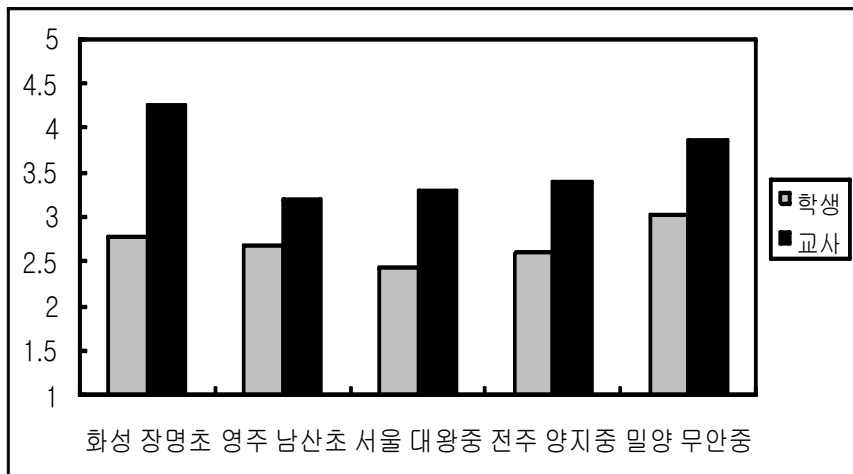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개 학교에 대해서 독립 집단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성 장명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주 남산초등학교: $t(84.27) = -3.06, p < .01$, 서울 대왕중학교: $t(296) = -4.57, p < .001$, 전주 양지중학교: $t(74.30) = -8.27, p < .001$, 밀양 무안중학교: $t(83) = -3.24, p < .01$]. 즉, 영주 남산초등학교, 서울 대왕중학교, 전주 양지중학교, 밀양 무안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학생과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0>과 <그림 III-11>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2.79	1.15	11	4.27	0.6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2.67	1.21	40	3.20	1.18
서울 대왕중학교	272	2.44	1.13	34	3.29	1.06
전주 양지중학교	220	2.61	1.21	35	3.40	1.19
밀양 무안중학교	83	3.02	0.94	7	3.86	1.07

<표 III-40>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그림 III-11>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시설 변화 계획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개 학교에 대해서 독립 집단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집단 5개 학교 모두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성 장명초등학교: $t(38) = -4.03, p < .001$, 영주 남산초등학교: $t(225) = -2.51, p < .05$, 서울 대왕중학교: $t(304) = -4.19, p < .001$, 전주 양지중학교: $t(253) = -3.57,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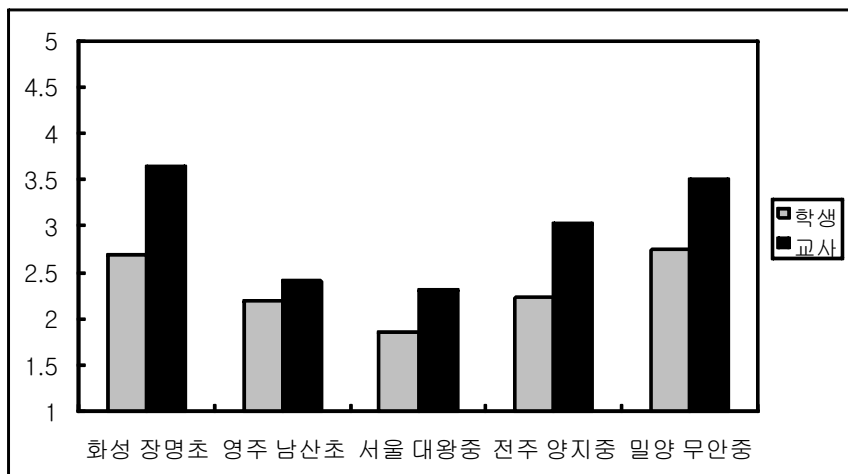
.001, 밀양 무안중학교: $t(88) = -2.24, p < .05$]. 즉, 연구집단 5개 학교 모두 교사가 학생보다 학교시설 변화계획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나는 이번 학교 시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학생과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1>과 <그림 III-12>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2.69	1.14	11	3.64	0.92
영주 남산초등학교	187	2.20	1.00	40	2.42	1.17
서울 대왕중학교	272	1.85	0.89	34	2.32	1.09
전주 양지중학교	220	2.24	1.15	35	3.03	1.42
밀양 무안중학교	83	2.76	0.95	6	3.50	1.05

<표 III-41>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그림 III-12>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시설 변화 과정에 대한 참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개 학교에 대해서 독립 집단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주 남산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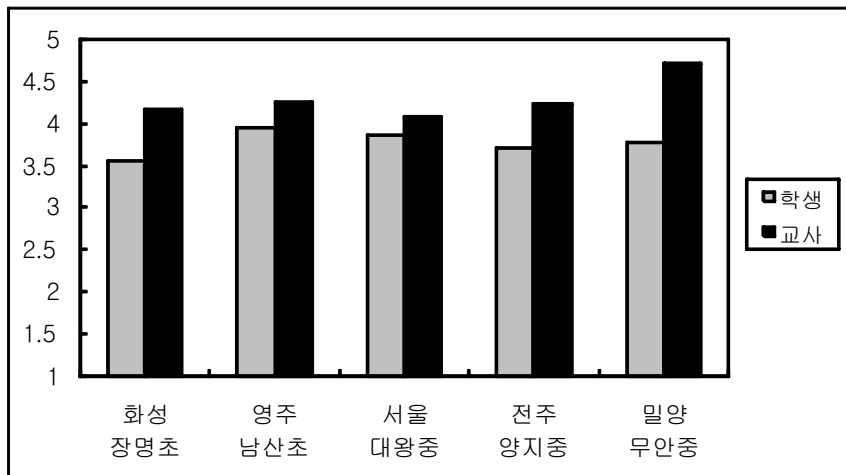
교와 밀양 무안중학교를 제외한 3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성 장명초등학교: $t(38) = -2.46, p < .05$, 서울 대왕중학교: $t(38.7) = -2.41, p < .05$, 전주 양지중학교: $t(253) = -3.64, p < .001$]. 즉, 화성 양명초등학교, 서울 대왕중학교,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학교시설 변화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나는 앞으로 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5개 연구집단 학교의 학생과 교사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2>와 <그림 III-13>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			교사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등학교	29	3.55	1.09	11	4.18	0.75
영주 남산초등학교	186	3.94	1.17	40	4.25	0.84
서울 대왕중학교	271	3.86	1.22	35	4.09	1.04
전주 양지중학교	220	3.70	1.24	35	4.23	0.65
밀양 무안중학교	84	3.77	1.03	7	4.71	0.49

<표 III-42>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인식



<그림 III-13>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

연구집단 학생과 교사들의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5개 학교에 대해서 독립 집단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주 양지중학교와 밀양 무안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양지중학교: $t(81.56) = -3.87, p < .001$, 밀양 무안중학교: $t(11.22) = -4.35, p < .01$]. 즉, 전주 양지중학교와 밀양 무안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보다 학교시설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한 것을 고려할 때(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보고), 3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높은 점수에서 기인하는 천장 효과(ceiling effect)를 고려할 수 있다.

5) 비교 집단 학생 응답 분석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4개 비교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3>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N초등학교	34	56.41	9.01	3.76	33	72
서울 W중학교	222	37.54	10.85	2.50	15	75
전주 Y중학교	169	46.45	11.33	3.10	15	75
밀양 S중학교	88	44.88	11.52	2.99	15	75

<표 III-43>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나. 학교 시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학교시설은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학교 생활 스트레스, 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등 7개 영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비교집단 학생들의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4>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반응이 유사했는데, 학교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을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로 꼽았으며,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학교생활의 스트레스	34	2.18	1.27	474	2.61	1.20
학교생활의 즐거움	34	3.5	1.21	474	3.07	1.17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	34	3.5	1.14	473	3.03	1.12
학교 물건을 아끼는 정도	33	3.36	1.19	473	2.88	1.14
나의 성적	34	3.18	1.36	474	2.93	1.17
친구들과 관계	33	3.15	1.40	473	3.00	1.24
선생님과 관계	33	2.82	1.21	473	2.75	1.15

<표 III-44> 학교시설이 비교집단 학생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다.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우리 학교 화장실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4개 비교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5>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N초등학교	34	47.85	10.81	3.19	32	75
서울 W중학교	221	35.12	12.90	2.34	15	75
전주 Y중학교	168	37.35	12.33	2.49	15	75
밀양 S중학교	87	48.64	12.81	3.24	15	75

<표 III-45>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라.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우리 학교 화장실은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1개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문항의 예로는 ‘깨끗하다,’ ‘이용하기 편리하다,’ ‘휴지통이 깨끗하다’ 등이 있다. 5개 비교집단 학교에 대해서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6>에 제시되어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반응평균	최소값	최대값
화성 N초등학교	34	36.47	7.78	3.32	38	55
서울 W중학교	221	24.72	7.89	2.25	11	51
전주 Y중학교	171	28.70	8.08	2.61	11	55
밀양 S중학교	88	33.86	9.36	3.08	11	55

<표 III-46>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6)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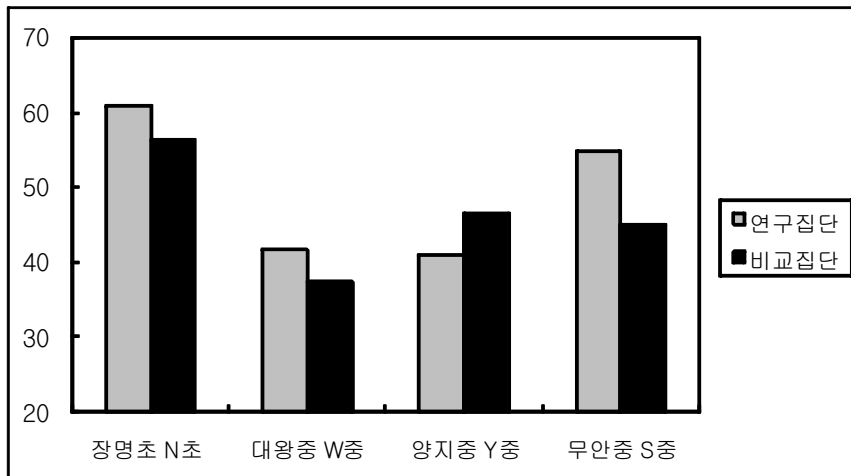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의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느낌 및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집단 중에서 영주 남산초등학교는 화장실을 개조하지 않아서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집단 네 학교와 비교집단 네 학교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 학교 건물에 대한 전반적 느낌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7>과 <그림 III-14>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집단			비교집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	29	60.97	9.40	화성 N초	34	56.41	9.01
서울 대왕중	272	41.65	11.30	서울 W중	222	37.54	10.85
전주 양지중	220	41.02	11.86	전주 Y중	169	46.45	11.33
밀양 무안중	85	54.93	9.59	밀양 S중	88	44.88	11.52

<표 III-47>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그림 III-14>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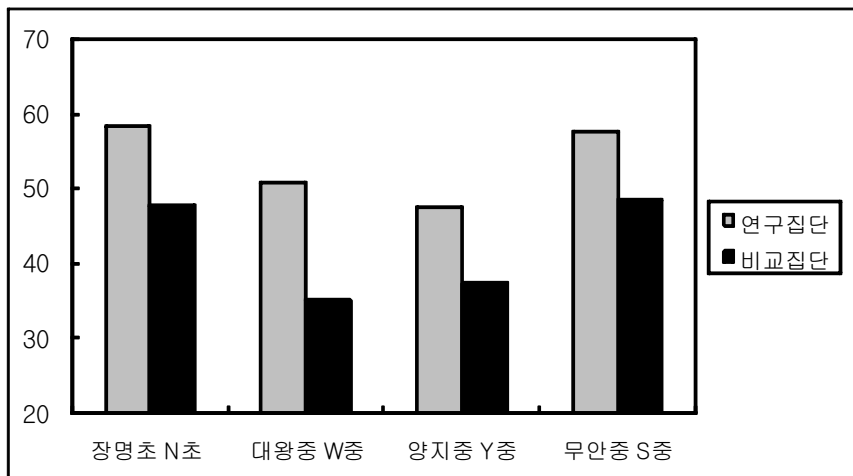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집단 t 검증(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화성의 경우, 연구 집단인 장명초등학교 학생들과 비교집단인 N초등학교 학생들 간에는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과 밀양의 경우 연구집단인 대왕중학교와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비교집단인 W중학교와 S중학교 학생들보다 학교 건물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으로 보고했다[서울: $t(492) = 4.09, p < .001$, 밀양: $t(171) = 6.23, p < .001$]. 그러나 전주의 경우 비교집단인 Y중학교 학생들이 연구집단인 양지중학교 학생들보다 학교 건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387) = -4.56, p < .001$].

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우리 학교 화장실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라는 질문에 대해 15개의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형용사 쌍을 제시하고 5점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8>과 <그림 III-15>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집단				비교집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	29	58.48	8.61	화성 N초	34	47.85	10.81
서울 대왕중	271	50.81	11.93	서울 W중	221	35.12	12.90
전주 양지중	218	47.51	12.79	전주 Y중	168	37.35	12.33
밀양 무안중	85	57.72	10.16	밀양 S중	87	48.64	12.81

<표 III-48>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그림 III-15>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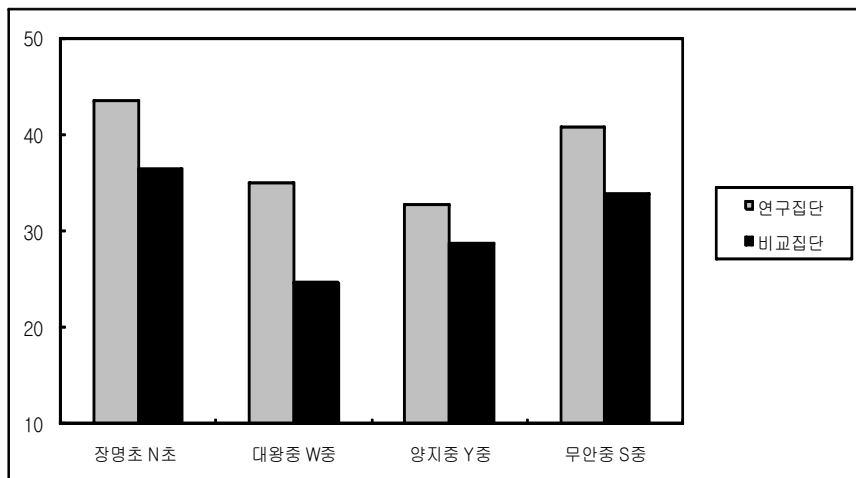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집단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화성, 서울, 전주, 밀양 모두에서 연구집단 학교 학생들이 비교집단 학교 학생들보다 학교 화장실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화성: $t(61) = 4.26, p < .001$, 서울: $t(454.02) = 13.88, p < .001$, 전주: $t(384) = 7.86, p < .001$, 밀양: $t(170) = 5.14, p < .001$].

다.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우리 학교 화장실은 _____’라는 질문에 대해 11개 문항을 제시하고 1점(아주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에서 대답하도록 했다.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응답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III-49>와 <그림 III-16>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집단				비교집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화성 장명초	29	43.59	9.54	화성 N초	34	36.47	7.78
서울 대왕중	272	35.01	8.90	서울 W중	221	24.72	7.89
전주 양지중	218	32.73	9.69	전주 Y중	171	28.70	8.08
밀양 무안중	85	40.76	7.67	밀양 S중	88	33.86	9.36

<표 III-49>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



<그림 III-16>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의 학교 화장실에 대한 느낌

연구집단 학생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집단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화성, 서울, 전주, 밀양 모두에서 연구집단 학교 학생들이 비교집단 학교 학생들보다 학교 화장실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화성: $t(61) = 3.26, p < .001$, 서울: $t(491) = 13.42, p < .001$, 전주: $t(387) = 4.04, p < .001$, 밀양: $t(171) = 5.30, p < .001$].

2. 인터뷰 분석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인터뷰는 5개 학교 학생, 교사 그룹별로 따로 실시되었고 내용은 모두 녹음 후 녹취되었다. 인터뷰 자료는 내용분석(Holsti, 1968) 방법에 의해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중심이 되는 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으

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학생 인터뷰 질문

- 학교 공간 가운데 화장실이 바뀌니까(혹은 북카페가 생기니까-남산초의 경우) 어때요? 전반적인 인상 같은 걸 이야기 해 주세요.
- 학교 공간의 변화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 학교 공간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지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그 이유는?
- 앞으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공간은 어떤 곳이에요?

교사 인터뷰 질문

- 학교 공간 가운데 화장실이 바뀌니까(혹은 북카페가 생기니까-남산초의 경우) 어때요? 전반적인 인상 같은 걸 이야기 해 주세요.
- 학교 공간의 변화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 위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학교 공간의 변화가 학교나 학부모,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 앞으로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공간은 어떤 곳이에요?

(1)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

서울 대왕중학교, 밀양 무안중학교, 화성 장명초등학교는 문화로 만드는 화장실 사업을 실시하였고, 전주 양지중학교는 학교 외관과 내관을 바꾸는 대규모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다. 또한 영주 남산초등학교는 빈 교실을 북카페(book cafe)로 만드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5개의 학교에서 영주 남산초등학교를 제외한 4개교(서울 대왕중학교, 밀양 무안중학교, 전주 양지중학교, 화성 장명초등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화장실을 변경하였다. 다음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타낸 변화된 화장실에 대한 반응이다.

변화된 화장실 공간에 대한 인상:

- 미(美): 깔끔하다, 세련되었다, 아름답다, 자연적인 느낌, 호텔같다
- 공간(空間): 밝다, 넓다

- 청결(清潔): 깨끗하다, 청결하다, 악취가 나지 않다
- 편리(便利): 편안하다, 편리하다

☑ 변화된 화장실 공간에 대한 인식 : 문화공간으로써의 화장실

- 이야기 할 수 있는(수다 떠는) 공간
-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
- 누워있는 공간(휴식)
-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
-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

첫째,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은 아름다움, 깨끗함, 공간이용의 편리성 등의 이유를 들며 변화된 화장실 공간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이전의 학교 화장실이 더럽고 어두워서 불쾌했던 반면, 변화된 화장실은 밝고 깨끗하여 편안하다고 진술했다. 변화된 화장실은 세련되고 호텔 같고, 백화점 화장실과 같은 공간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학생들이 화장실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화장실 공간의 디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실 개선이 이루어진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변화된 화장실의 디자인 모양과 색, 질감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화장실 이용의 쾌적함과 편리함이다. 변화 전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이 불편했던 반면 변화된 화장실은 이용이 편리해 짐은 물론 편안하다는 것이다. 화장실 내 설치된 양변기, 자동 감지 센서 변기, 핸드 드라이어 등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편리함을 느꼈다. 화장실 이용에 대한 편리함은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교에 막 입학한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의 적응은 물론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겪어 변비가 생기기도 했고, 화장실을 미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특히 장명초등학교의 경우, 화장실에 모기가 많아 용변을 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모기가 너무 많아 저학년 학생들은 교사를 동행하여 살충제를 뿌린 후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감수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화장실 개·보수는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바꾸었고 화장실의 쾌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는 청소 용역을 주 2-3회 가량 이용하고 있다.

- 진짜 마음에 들어요. 호텔 같아요. 위에 언니, 오빠 있는 애들 얘기 들어 보니까

화장실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 안했는데 와서 보니까 좋았어요. (무안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개수대를 없애고 좀 더 넓어졌고요. 바뀌면서 많이 깨끗해 진 것도 있고 옛날 화장실은 좌변기가 아니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전기도 들어오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있으면 안 켜지고, 문이 닫히면 켜지고 그게 신기했어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저는 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이를 닦아야 하는데, 더럽고 어두워서 칫솔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바뀌고 나니 매일 이 닦고 있어요. (대왕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저도 화장실 잘 못 갔어요. 특히 요맘때쯤 되면 모기가 이렇게 화장실 문을 열면 열 마리도 더 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가려다 말고 나온 적도 있고요. (장명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중)

- 화사해요. 더 편리해진 것 같고요. 또 새로 만들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장명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중)

셋째, 변화된 화장실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화장실에 있는 의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간식을 먹으며 쉬는 시간을 보낸다. 그 밖에도 밀양 무안중학교 경우,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 자동음악 센서가 설치되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음악을 듣다가 교실로 온다고 한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왕중학교 학생들은 화장실이 더 이상 용변을 보는 곳 또는 걸레를 빼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변화된 화장실은 용변을 보는 공간이 아닌 벤치에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다.

과거의 화장실에서는 학생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몰래 담배를 피우는 행동이 벌어지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반면, 변화된 화장실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롭게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개방된 열린 공간이다.

- 엄마들이 인근 학교에 방문해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페인트칠을 너무 안하고 바닥도 청소도 안 해서 발자국에, 무슨 소굴에 들어간 느낌이라고요.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이만큼 날려있고, 칩칙하고 컴컴하고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이렇게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게 불만이 많았죠.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청결도 문제인데, 파우더 룸처럼 여자화장실에 조그만 한 게 생겨서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대왕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학교에 오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음악실, 화장실이며... (생략) 아침시간에도 8시 20분까지 교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도 화장실에 와서 놀거든요. 왜 거기서 노느냐면 공간이 놀기 좋은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라... 의자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2)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가 가져온 파급효과들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는 단지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 효과를 넘어 학생, 교사, 학교, 지역사회에 또 다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 학생의 변화

학생은 이 사업의 주 수혜자이며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집단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변화는 정서적 안정감, 학교에 대한 자부심, 청결·공중의식, 학습태도,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소통성의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가. 정서적 안정감

학생들은 변화된 공간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관찰한 학생들의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학생들간의 싸움 감소,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 감소, 흡연 감소, 교내 사고 감소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간다고 느꼈다. 특히 교사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교사의 질문에 반감을 표현하는 행동이 줄었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줄었다고 느꼈다.

- 제가 지금 4년째예요. 오던 해에 좀 심했고, 그 이듬해에도 좀 많이 학생부 시안이 언제나 장난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확 줄었죠. 이제는 없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 전 후 그게 없어서 환경의 개선 탓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근무하면서 해마다 해마다.. 너무 좋아져서 최적의 상태예요.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지금은 굉장히 애들이 유리창을 안 깨죠. 작년에 비해서 찢려온다든지 베어온다든지 넘어서는 거 외에는 그렇게 애들이 부산하게 날뛰어서 오는 사고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결국은 학교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 애들의 정서라든지 감성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일단 학교에 대한 불평들이 줄어들잖아요. 요새 애들은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잖아요. ‘아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더러 어찌라구요.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불평이 줄어든 거예요.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은 교사의 관찰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변화된 학교 시설이 깨끗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된다고 한다. 학생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양지중학교의 회오갤러리는 교내 1층에 설치된 공간으로 일반적인 갤러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시설을 갖추었고, 한지 공예방은 4층에 설치된 문화공간으로 교실을 개조한 곳이다. 한지 공예방은 사방이 한지로 만들어진 디자인 시트지가 사용되어 한국적인 미가 풍기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다도체험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양지중학교의 학생들은 회오갤러리에서 그림을 보며 마음의 여유로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도서관을 좋아하였는데 열람실이 있는 전형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아닌 자유롭게 둘러앉아서 독서를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형태였다.

-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다 보면 애들이 호기심으로 와 볼 수도 있고, 학생으로서 억압되었던 것들이 여기서는 좀 풀면서 마음이 좀 풍부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남산초등학교의 북카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지만 학생들에게 북카페는 책이 마련된 휴식공간이다. 북카페에서는 굳이 책을 보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편안한 의자와 책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와서 자유롭게 독서를 하고 편안하게 쉬다가 간다. 학생들은 공간이 구분되어진 규정된 공간이 아닌 밝은 분위기의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

북카페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에게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방과 후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책을 보는 공간, 음악을 듣는 공간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북카페는 학생뿐이 아니라 학생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쉬는 공간으로도 이용되며, 학급임원 회의, 학부모와 교사와의 회의, 학부모의 자조모임 등으로도 사용된다.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 또는 교사에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공간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화장실과 북카페, 갤러리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한다.

- 편안해요. 일단 딱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느낄 수 있어요. 위에 하얀 천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들어오면 편안한 느낌을 주어요. (남산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중)

- 학교 교실 앞는 딱딱하고 그런데, 이쪽(북카페)에는 편안한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남산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중)

- 도서관은 그냥 책 읽는 공간이니까, 따로 쉬는 시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휴식공간으로 여기 나온 것 같아요. (남산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중)

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학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양지중학교의 보드게임실과 영주 남산초등학교의 북카페는 여타의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공간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변화에 대한 홍보 역시 학생들의 자부심 고양에 영향을 미쳤다. 양지중학교는 학교 내관·외관을 바꾸는 대규모 사업을 방송, 신문,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홍보하였다. 학생들은 타인에 의한 평가, 홍보를 통해서 학교에 대해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 이제 TV에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하니까 애들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자부심이 있고, 그런 면에서 자랑거리잖아요. 다른 학교 애들 만나면 얘기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전주에 A학교나 B 학교가 공부로 유명해서 양지중학교는 솔직히 공부를 조금 못해요. 거기보다는 교육열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지중학교 하면 애들 말로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그러는데, 이제는 너희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시설이 더 좋다 그런 걸로 자랑을 하죠.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다른 학교도 편리하지만 우리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장명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중)

- 뉴스에 나간적도 있어서 주위학교 애들이 ‘어머, 너희 학교 되게 좋다’ 그러면서 부럽다고 할 때는 부듯함을 느끼죠.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다. 공중의식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인식은 학교 시설물을 좀 더 아껴 쓰고 청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학생들은 학교 환경의 청결, 쾌적함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학교시설을 아껴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문이 부서진 화장실,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문을 발로 차거나, 휴지를 물에 적시어 던지는 행동이 심했던 반면에 학교 공간이 바뀌면서 학교 물품을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행동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변화 이전의 화장실 청소는 학생들에게 체벌의 의미의 상징으로 거부하고 싶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변화된 화장실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밀양 무안중학교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던 2, 3학년과는 달리 1학년 학생들은 불일을 본 후 화장실내 슬리퍼 정리를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장실 변화가 학생들의 질서의식에 영향을 미쳤지만 기존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2, 3학년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화장실 사용하던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 반면 신입생인 1학년의 경우는 달랐다. 처음부터 변화된 화장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매너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 무안중학교의 회오갤러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갤러리 에티켓을 지켰다. 교사의 지침 없이도 학생들은 갤러리에

서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작품을 만지는 일도 없다. 교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떠들고 장난치더라도 갤러리에만 오면 학생들이 조용히 변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공간에 따른 행동을 알고 행동하고 있었다.

즉,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학교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5개교 모두 주 2-3회 정도의 청소 용역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나누어 청소하고 있지만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다.

- 더 심했죠. 휴지 물에 적서 던지고, 그런데 요즘은 바꾸고 나니까 애들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안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만약에 학교 시설이 안 좋잖아요, 뭐든 막 대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막 부시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아지면서.. 아무튼 깨끗하니까 더 깨끗하게 써야 할 것 같아요... (무안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더 아껴 써야겠다. 예전에는 항상 물을 안 내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조금씩 안 좋아 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껴 써야 겠다. (장명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지금 2,3학년들은 사실 그 전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알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중략) 그러다 보니 그전에 습성은 아직 다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슬리퍼 정리라든지 아직까지 널부러져 있고, 1학년들의 경우는 처음 올라오자마자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니까, 1학년들은 본관 건물 하나만 쓰거든요. 화장실 갔다 나오면 자기 슬리퍼 한부 정리 하고 나오고, 청소를 할 때 보면 앞에 문을 딱 막아 놓고 자기들 청소공간에서 딱 청소를 하고...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보고 앉아서 그러면. 너무 떠들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보고 나가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교양인을 길러낸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서서히... 나는 (작품을) 만지고 싶는데 주변에서 하는거 보니까 다른 애들이 안하고, 자연스럽게 애들이 시민의식이랄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라. 학습태도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또한 학생들의 학습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편안함을 주며 학습 능력을 높이고 수업시간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는 교내 한 공간의 변화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공간의 변화가 가져다준 학교의 이미지와 연관하여 작용한다. 영주 남산초등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교는 본 사업을 통해 화장실을 개·보수 하였다. 하지만 5개의 학교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외관·내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문화관광부의 사업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 전체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했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학생들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 공간 변화 이후 눈빛이 달라지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한다고 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교의 개방적인 도서관과 영어 체험실, 과학실 등의 변화된 공간이 학생들에게 독서 습관이나 공부하는 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교내 설치된 영어 체험실, 과학실, 또는 개·보수된 도서관은 학생들의 선호하는 장소가 되고, 학생들의 공간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습 하는 공간의 변화가 학습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5개 학교에서 실시된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 사업에는 교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 시설이 좋으면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좀 시설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부스고 더럽게 쓰잖아요. (대왕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도서관이) 이제 1층으로 옮기고 바뀌어지니까 확실히 책임기도 좋고 시험기간에는 공부하게 해주기도 하니까 괜찮고 좋았어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공부하는 분위기가 초등학교 때는 그리 시설이 좋지 않아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웬지 엄격하고 딱딱하고 그냥 공부를 할 때도 반감 같은 거. 왜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학교가 분위기가 편하다 보니까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공부에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보드게임실 같은데 가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만나기 쉽잖아요. 그러다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어학실이나 도서실의 경우 일단 어학실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아이들이 일단 오고 싶어 하고 책 읽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장명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시설적인 어떤 투자가 교육적 여건이 좋아지는게 학업수준하고는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이 좋으면 학교에 오고 싶어하고 도서실이나 어학실 같은 경우도 구축되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학습의욕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 학력적인 면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중)

- 교실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이 정서가 안정되면 자연히 집중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아이들 시험치는거 데이터를 내보내지는 않지만 그러리라 믿어요.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마. 문화적 감수성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아름답다’, ‘세련됐다’, ‘깔끔하다’와 같이 느꼈다. 변화된 공간 및 시설에 대한 편리성만이 아니라 모양을 통해 미(美)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여 공간 디자인 변화에 관심을 가진 교사 또는 학생들의 미적 감각에도 영향을 주었다. 화장실 공간 변화를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넷 또는 도서 검색을 하거나 직접 학교나 백화점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오기도 했다. 자료조사를 통해서도 학생들은 공간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미적 감각이 높아졌다. 특히 밀양 무안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는 학생들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예측된다.

밀양 무안중학교와 전주 양지중학교는 부산 동의대학교 예술대학 학생들과 함께 학교 내·외벽 페인트 작업을 했다. 본 사업 이전에 밀양 무안중학교의 건물 벽에는 갈라진 틈이 많았다.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주민들과 동의대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페인트 작업을 통해 벽면을 보수 하였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벽화작업도 했다.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벽화작업은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더 큰 보람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무안중학교의 변화된 화장실에는 작은 액자에 유명 화가의 그림을 끼워 보도록 하였다. 담당 교사는 일정 기간을 두고 액자 속 그림을 바꾸어 학생들이 다양한 그림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 솥대를 이용한 조형미술을 설치해 학교 전체를 갤러리로 추진하고 있다. 솥대에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걸어 완성된 조형물은 학교 외부에 설치한다. 학교 내 시설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 반영되어 학생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영주 남산초등학교의 북카페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 뿐 아니라, 하교시에도 종종 이용되어 진다. 북카페에는 컴퓨터, 책,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학교에서 방과 후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 PC방이나 펜시점 등 교외의 여가시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학원가기 전에 틈을 이용하여 북카페를 사용했다. 남산초등학교 이외의 나머지 4개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더 자주 활용하도록 했다.

- 우리 아이들 문화는 밖에 나가면 문방구 하고 PC방이에요.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화 공간을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이런 멋진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작은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거 좋아하거든요. 어른들처럼 이런 멋진데 가서 커피숍에 가서 하듯이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남산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중)

전주 양지중학교는 회오 갤러리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미술 작품을 접하도록 했다. 처음 갤러리가 오픈했을 때 학생들은 갤러리를 잠시 들르는 곳으로만 인식했으나, 차츰 작품을 감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갤러리에 사용되는 작품들은 지역 내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신청하여 대여되는 작품들이다. 교장선생님은 작품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신청하였고, 때로는 선정된 작품을 교과목 수업에서도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하도록 했다.

- 어떤 작품을 보고 잘 모르는데 이제 자주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없어.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처음에는 그냥 와서 훑~둘러보고 간다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좋아서 이제는 와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제가 미술과라서 보는 눈이 아이들을 섬세히 보는데 아이들의 미의식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색감이라든지, 거축에 대한 아름다움 디자인, 말하는 용어 자체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고, 조형예술이라는 말을 쓰고, 감각이라는 말도 쓰고 촌스럽지 않다는 거죠.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바. 소통성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학생들의 소통성을 확대시켰다. 화장실, 북카페, 보드게임실, 갤러리 등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였다. 각 변화된 공간의 특성은 학생들에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수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데 교실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이야기 할 수없다고 한다. 학생들은 새로 개·보수된 화장실의 벤치, 개방적 형태를 띤 도서관, 차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 갤러리 등을 선호했고,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냈다. 때문에 학생들간의 소통성이 높아지며 친밀감이 높아졌다.

특히 양지중학교의 보드게임실은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보드게임실에 가서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진다고 한다. 보드게임실은 현재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정해진 쉬는 시간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학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유는 보드게임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지만, 교내에는 게임기, 전자사전, 휴대폰을 가져 올 수 없다. 때문에 학교 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는 제한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드게임실은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공간의 제한으로 학생들은 학교 내 보드게임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어 공간을 사용하였고, 보드게임실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율학습시간대로 큰소리를 낼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 애들이 보드게임을 많이 즐기고 점심시간에 가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학교에 전자사전 못가지고 오죠. 휴대폰도 못가지고 오죠. 게임기도 못가지고 오죠. 할 게 없는데 보드게임 그거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게임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하고 더 친밀 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지금은 많이 바뀌고 그냥 둘러 둘러 앉아서 그냥 같이 애들하고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왠지 자부심도 있고 또 즐겁게 놀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좀 별척같은 것도 하면서 스릴있게 게임도 하니까 재미있어요. (양지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화장실 벤치에 앉아서 애들이랑 수다 떨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무안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2) 교사의 변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과 동기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변화는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부심, 학생과 학업지도에의 적극성,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 등으로 표현되었다.

가.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본 사업을 통해 교사들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스스로가 학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써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먼저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일하는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주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학교가 멋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교사들도 기분이 좋고 학교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학교에 외부 손님을 모실 때마다 변화된 학교를 구경시켜주는 일도 발생하였다.

교사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은 본 사업의 참여도와도 연관되었다. 무안 밀양중학교는 부산 동의대학교 예술대학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 건물 페인트 작업을 실시했다.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참여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꼈다. 전주 양지중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2008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약 2달 가량의 방학 동안에도 본 사업 추진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모집하여 워크숍을 진행

했고, 팀을 나눠 공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워크숍을 통해 발표, 토론했다. 결국 학교 외관·내관 모두 변화를 주었고 이러한 변화가 학교 외부 내부에 많이 알려졌다. 교사들은 학교의 변화에 자랑스러워하고, 교사들의 학교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태도에 반영되었다. 교사들은 학교 시설이 갖추어진 만큼 환경에 맞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서울 대왕중학교도 비슷한 현상이 보였다. 대왕중학교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화장실이 개·보수된 점 이외에도 학교 변화를 위해 교사들이 노력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알고 있으며 때로 이런 교사들의 열정이 학생들에 부담감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학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학생들이 학습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만약에 성적이 알맞지 않게 나오면 오해 받을 수도 있는거잖아요. 아 그학교는 문화공간만 제대로 해냈지 실제 학교에서 해줘야 할 것은 안하나 보다. (양지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나 자조심이 되게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게 하시려고... 가끔씩은 우리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대왕중학교 학생 인터뷰 중)

- 디자이너는 별로 관여 안해요. 디자이너는 우리가 요구한 조건대로 해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생각이나 디자인은 캡틴 리(교장선생님) 자문이나 이런 걸 많이 구하시고.... 우리도 가서 보고 참조하고요. 영어교실도 어딘가 여러 군데 많이 쪼다니다 왔죠....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나. 업무에 대한 동기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교사들에게 학교에 대한 애교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전주 양지중의 경우, 학교 시설만 좋다는 평판보다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교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식 하에 학업 지도에 대한 열의가 더 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변화된 학교 공간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

다. 변화된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5개 학교 위생청소 용역을 사용하였고, 양지중학교의 갤러리, 보드게임실에도 담당 인력을 배치하였다. 남산초등학교의 북카페도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변화된 학교 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리 인력이 필요했다. 확실히 변화된 공간에 대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간에 필요한 인력은 전문력을 갖춘 인력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간이 유지되도록 관심 학했 것이 중요했다. 갤러리의 경우 작품을 대여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회오 갤러리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카페나 도서관도 학생들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사용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공간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학교 관리핀고렐된 일이 고된 업무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 스스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양지중학교의 경우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를 위해서 교사들은 공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지와 인내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양지중학교에 경우 장기간에 걸쳐 학교 외관·내관 공간 디자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초기 예상과는 달리 계획이 무산된 공간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기대심리가 낮아지기도 했다. 때문에 학교 공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힘든 일이 될 것이라 한다.

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

교사들은 또한 이 사업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마인드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게 된다. 사실, 본 사업을 이끈 핵심 인물은 학교장, 즉 교장이라고 볼 수 있다. 5개 학교 모두 교장선생님이 본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의 관리자 역할을 했다. 디자인, 색감, 재질 등 모두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에 많은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는 학교측과 공사 시공업체 간에 많은 갈등도 일어났다. 학교 교사들이 의도하던 재료와는 달리 업체가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측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사업진행을 맡은 교사의 역할이 컸다.

- 주변의 주민들 연세 드신 분들, 무안중학교 1회, 2회 노인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다른 교장 선생님은 20년 정도 한 양이다. 3년 동안에 하신일이 그렇게 많다고 공공연하게 자랑을...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학교측하고 업자하고 타일이라든지 번기라든지 조명이든지 할 때, 교장선생님이 업자측에 100% 절대 맡기지 않았어요. 전부다 하나하나 관여하셔서,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일을 12번도 더 바꾼 것 같아요. 우리는 카다로그에서 이걸 원했는데 그게 없어 다른 거 가져오는 겁니다.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늘 언제나 이렇게 이게 어떠냐 제시하시고 우리가 뭐 같이 고르기도 하고, 교문 디자인 고를 때에도 우리 맨날 회의하다가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자 많이 하셨어요. 늘 탁월하세요. 정보도 많으시고.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진짜 하는 과정 일을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하는 거는 힘들지 않는데, 정작 작업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감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3) 학교의 변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다. 작은 공간의 변화가 크게 확장되는 들불효과(spread effect)를 본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서울 대왕중학교, 밀양 무안중학교, 화성 장명초등학교는 화장실이 개·보수 되었다. 전주 양지중학교는 학교 외관과 내관을 바꾸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였고, 영주 남산초등학교는 빈 교실을 북카페로 만들었다. 전주 양지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교의 변화는 한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실시 전과 사업을 실시한 후의 학교 변화는 차이가 있었다.

학교 내 화장실의 변화는 학교 수준을 향상시켜 학교 내 다른 시설도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였다. 학교 화장실만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다른 것도 지원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왕중학교는 본 사업을 시발점으로 학교 내 영어 체험실, 도서실 등을 개조하였고, 밀양 무안중학교는 2008년 학교 숲 시범학교를 통해 학교 외관을 갖추며 본 사업을 신청하였다. 교장선생님에 의하면 3년 전 학교를 올 때 만해도 무안중학교가 북한에 위치한 학교와 같이 열악한 시설의 학교였다고 한다. 현재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 학교 운동장에 벤치는 물론 정자를 비치하고 쉼 공간을 만들었다. 화성 장명초등학교는 본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화성시의 지원으로 강당, 영어체험실, 음악실, 도서실, 급식실, 운동장 등이 변화되었다.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를 실시한 주최 측은 달랐음에도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통일감 있었다.

- 열악한 학교에 화장실이 일단 들어서면요. 관리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낡았는데 화장실만 공궐 같거든요. 주변에 뜯어 고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고요.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달려 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학교에 와서 외부가 너무 정리가 안 되서 바깥쪽에 화단하고 녹색 학교를 신청했 고요. 바깥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안쪽이 너무 엉망이어서 교장선생님이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셨어요. (중략) 화장실이 오므로 인해서 음악실이나 다른 공간 들도 이렇게 해 달라 하니 와서 보시고는 이게 너무 후지니까 이거를 보완해주고 그렇게 그렇게 매개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학교 실내외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 요.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4) 지역사회 변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는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주민들 은 지역 내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여, 학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학교 내 도서관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양지중 학교의 한지 공예방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 다도 예절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활용 되었다. 학부모나 지역주민도 신청하여 다도를 배울 수 있었고, 희오갤러리도 학부 모,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했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갤러리의 소식을 전하였고, 현수막과 지역방송을 이용하여 홍보하였다.

밀양 무안중학교에서는 인근 도외지로 전학을 간 학생이 학교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학생들이 학교를 사전탐방한 후 학교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 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학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개최하는 일이 늘어났다. 운동장에는 스텐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운동장 이용에 도움을 주고, 지역 내 행사, 축제를 학교 내에서 실시하도록 협조하였 다. 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는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학교를 적극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 저희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의원 이런 분들도 자주 오세요. 예산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다 지역사회와 유관하게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왕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 학교 공간이라는게 정말 시설면에서는 가장 낙후된 공간이었거든요. 그 의식들이 주민들도 바뀌어지고 와서 이제는 축제한다든지 행사도 하고, 도서관도 보시고... (무안중학교 교사 인터뷰 중)

(3)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이번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공간과 좋아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 질문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였다.

학교에서 중요한 공간과 좋아하는 공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른 성향을 나타냈다.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은 교실, 운동장, 급식실, 도서실, 화장실, 체육실이었다. 응답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였다. 교실이 중요한 이유는 공부하는 곳이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운동장과 체육실이 중요한 이유는 노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급식실이 중요한 이유는 식사를 하는 곳이고 이야기를 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서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 중요한 이유는 생리현상과 쉴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본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교실, 도서실, 운동장, 급식실, 체육실

그 이유: 공부, 놀이, 휴식, 식(食), 생리현상, 공중장소, 장시간 사용

반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곳은 학교 공간 변화가 이루어진 곳이다. 양지중학교의 경우, 화장실, 도서실, 갤러리, 다도체험실, 보드게임실 모두 선택되었으며, 남산초등학교는 북카페였다. 학생들의 응답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과는 달리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음악실은 피아노가 있어서 좋고, 화장실은 편하고 놀 수 있어서 좋고, 운동장은 잔디구장이 생겨서 좋고, 도서실은 자유롭게 책을 읽어서 좋다 등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학생들의 응답에 공통적으로 환경의 쾌적함과 자율성이 포함되었다. 첫째,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을 좋아하였다. 변화된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예쁘고, 아름답고, 세련되었기 때문이다. 낙후된 시설보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의 시설을 선호하였다. 둘째, 자유로운 공간을 좋아한다. 변화된 화장실, 도서관, 운동장, 갤러리 등을 좋아하는 이유는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교실에서는 학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눈치를 볼 수 있지만 화장실의 의자나 운동장의 벤치는 학생들이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다. 북카페와 같이 차를 마시고 컴퓨터를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개방형태의 공간은 학생들에게 정해주지 않는 자율적인 공간이다. 학생들의 행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어 교사로부터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변형된 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만 하고 책만 읽어야 하는 열람식형태의 도서관이 아니라 자유롭게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고 소파에 앉아서도 책을 볼 수 있는 장소이다.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장소에서 학생들만의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 ☑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 교실, 도서실, 운동장, 음악실, 화장실, 갤러리, 보드게임실, 다도체험실, 북카페
- ☑ **그 이유**: 예쁘다, 편안하다, 축구를 할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다, 게임을 할 수 있다, 친구들과 친밀해 질 수 있다.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다.

(4) 기타 의견 및 향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공간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공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학생과 교사가 유사한 반면, 각 학의 특성이 달라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통해 변화된 학교 공간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는 유사한 아쉬움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남산초등학교 북카페의 경우, 변화된 공간이 학교규모에 비해 협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공간은 학생, 교사 또는 학부모가 자유롭게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사업 초기에는 공간의 효율성에 대한 염려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북카페는 예상과는 달리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다. 변화된 공간의 높은 이용률 때문에 학교 내 재학생 수에 비해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작용되었다.

북카페는 대부분 쉬는 시간이나 1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용되었기 때문에 거리가 먼 학급의 학생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남산

초등학교의 건물이 2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위치한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현재 북카페는 공간의 제한 때문에 요일별로 학급수를 제한하여 활용한다. 양지중학교의 보드게임실도 마찬가지로 학급수를 제한하여 공간을 활용하였다.

- 학교 규모가 굉장히 큰데 북카페도 좀 더 컸으면, 이 건물에 이거 하나 있는데 6학년 같은 경우는 좀 (이용하기) 멀거든요. 쉬는 시간에 올 거리는 아니고,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방과 후 이용을 하는데, 하나 더 있었으면 하고 나니까. (남산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중)

- 학교에 휴식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애들이 붐벼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해줬으면 하는.... (남산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중)

- 우리같은 경우에도 위축이 되는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이용하는 학생들의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려운게 있어요. 혹시 부서지지 않을까. (남산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중)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운동장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 결과, 학교 시설 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장을 제외한 여타의 공간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개설되었고, 변화되는 공간에서 학생들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는 게임, 핸드폰, 컴퓨터 등 전자미디어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중요하다. 학생들은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과 다양한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설치되기를 희망하였다. 그 외 학교별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제안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대왕중학교

서울 대왕중학교의 개선 희망 공간은 교실, 급식실, 체육실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교실 공간의 확대를 희망했고, 교실 시설로는 낡은 창틀과 의자의 교체를 희망하였다. 학생들은 좀 더 편한 의자와 공간을 희망했다. 급식실의 개선사항으로는 급식상태의 위생상태와 급식실 건축이다. 현재 대왕중학교는 급식실이 없기 때문에 각 학급에 급식을 덤웨어로 운반한다. 급식이 적정 온도를 유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 내 급식실 건축을 희망하였고, 학생들은 좀 더 위생적인 급식 상태를 희망했다. 체육실 역시 교사와 학생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공간이다.

2) 밀양 무안중학교

밀양 무안중학교의 개선 희망 공간은 교실, 급식실, 운동장, 교사 휴게실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실이 제공되기를 희망했다.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의 높낮이에 맞는 친환경 소재의 책·결상과 밝은 톤의 내벽을 희망했다. 또한 교실 내 난방을 위해 교실 창틀의 개선을 희망했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칠판과 컴퓨터가 교체되기를 바라었는데, 현재 흑색 칠판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급식실과 운동장의 개선을 언급했다. 학교 인원수에 비해 급식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랫동안 줄을 기다려야 했다. 다음으로 교사는 교사들의 휴식공간 설치를 제안했다.

3) 전주 양지중학교

전주 양지중학교의 개선 희망공간은 교실, 운동장, 급식실이다. 학급 인원수에 비해 교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집중하기 어려웠고, 방음처리가 약하여 운동장의 소리가 학습시간을 방해하였다. 운동장의 개선점으로는 운동장 내 농구대와 농구코트 설치를 희망하였고, 급식실의 경우 급식실 공간의 증축을 희망했다.

4) 영주 남산초등학교

영주 남산초등학교는 북카페 개설을 실시하였다.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개선 공간으로 화장실과 교실이 제안되었다. 화장실이 ‘더럽다’, ‘냄새난다’, ‘불편하다’는 청결상태의 개선 이외에도 ‘문이 고장 났다’, ‘휴지가 없다’는 시설 유지에 대한 개선점을 언급했다. 교실은 칠판, 책·결상, 책꽂이, 신발장의 학생들 이용에 필요한 도구가 보충되기를 희망했고, 교실바닥의 개선을 희망했다. 책·결상은 흔들리고 딱딱하여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다. 교실바닥은 자재가 나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바닥청소가 힘들었으며, 가시가 많아 학생들에게 위험했다. 학생들의 위생 상태를 위해 교실 내 수도시설을 설치를 희망하거나 체육실 또는 다용도실 개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을 희망하기도 했다.

5) 화성 장명초등학교

화성 장명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개선되어야 할 공간이 교실로 한정되었다. 이는 화장실 개·보수 이외에도 운동장 잔디 설치, 급식실 개·보수, 학교 내 영어체험실, 도서관, 과학실, 다목적실,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최근에 들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 예측된다. 현재 교실의 바닥은 나무로 된 것으로 못이 박혀있어 학생들에게 위험했다. 또한 교실 문은 미닫이 문으로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서 학습에 불편함을 주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높낮이에 알맞은 책걸상과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화이트보드를 희망했다.

3.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는 2008년 문광부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2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서 표집된 794명의 학생과 비교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의 학생 515명이 참여하여 학생 총 1309명과 교사 134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인터뷰에는 5개 학교 학생 28명과 교사 2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번 사업으로 변화된 학교 시설(주로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연구 집단 모두 비교집단 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시설 변화 후 학생들이 인지하는 자신의 변화 가운데는 "청결"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교사와의 대인관계, 학교에 대한 애교심, 학교생활의 편리함, 정서적 안정감, 학업 성취 영역이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다.

☑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도시보다는 농촌학교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화성 장명초등학교가, 중학교의 경우는 밀양 무안중학교의 만족도가 교사, 학생 모두 다른 지역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시설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는 교사, 학생 모두 화장실을 꼽았으며, 이는 국내 문헌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학생집단보다 교사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최소 4.68, 최대 8.46점을 보였으나, 교사 집단의 경우 최소 6.68에서 최고 9.43점을 보였다.

☑ 교사의 만족도 역시 학생들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도시보다는 농촌학교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 학교 시설 개선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도와 행동 변화 그리고 만족감의 학교별 순위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록, 변화에 대한 지각도 크고, 만족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 인터뷰 자료는 학교시설 변화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 교사들과의 인터뷰 결과, 학교 시설 개선의 전 과정에서 학교장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환경 개선 이후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 지도에도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전주 양지중학교의 경우, 학교의 시설 변화 이후 학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뿐만 아니라 학업의 면에서도 높은 성취를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학업 지도에 더 열성을 보여주었다.

☑ 학교 공간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교실, 도서관 등 주로 학업과 관련된 공간이었으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운동장, 북카페, 화장실 등 본 사업과 관련된 휴식공간이었다.

IV. 지속가능한 학교건물에 관한 국제적 동향

1. 학회 참관 (OEC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School Buildings: From Concept to Reality")

2009년 10월 1-2일, 호주, 크로아티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등지에서 참석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슬로베니아의 수도 루블라냐에 모여 지속가능한 학교 건물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탐구하였다. 이 학회는 유치원, 초, 중등학교 맥락을 다루었으며, 정책 결정자, 교육자, 학교 기획자 및 건축가 등 아주 폭넓은 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간 접근을 취하였다.

학회의 활동은 발표, 토론 및 학교방문, 그리고 미래를 위한 실천을 논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발표는 주로 학교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으며, 녹색성장을 강조하였고, 공공장소로서의 학교의 중요성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건축가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국가별로 특수한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필요를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점검하였다.

(1) 서론

이 학회는 학교 건물과 시설의 기획, 설계, 유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 학회의 핵심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장애물들을 토론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관련된 정책결정자, 교육자, 건축가들에게 좀 더 나은 실천을 가져 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조직화되었다.

- 학교에서의 공간과 장소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화
- 지속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데서 오는 도전들을 해결하는 방법
- 슬로베니아 및 전 세계에서 출품된 학교환경에 대한 전시

둘째 날은 루블라나 시내 및 근교에 있는 세 학교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이 방문은 첫째 날 있었던 주제를 더 심화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학교 건물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조직과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난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2) 지속가능성 정의하기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왔고 다양한 의미를 띄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경제적 지속성, 사회 정의 그리고 생태학적 보존의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 학습 시스템의 맥락에서는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시대를 위하여 교사의 질 및 교육과정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교육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이나 시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학회에서 학교와 건축을 위한 지속가능성이란 에너지 효율성이나 생태학적인 건물 이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성의 의미에는 기획, 디자인, 건설과 유지의 모든 단계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건축학적 디자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평등과 환경의 보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이란 학교건물이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의미에서 교수, 학습, 그리고 건물 관리의 실천이 통합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 의미에서 이것은 깨끗하고 건강한 교실, 복도, 그리고 공해가 적은 실험실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으로는 탄소 방출을 통제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학교를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이것은 학교를 유지할 예산을 확보하며, 자연 채광이나 다른 자연 조건을 활용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학교 인프라 자체는 학생들에게 이 세 가지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가르치고 현존하는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증대하는 데 있어 귀중한 플랫폼과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들은 장기적인 필요가 있으며 세대 간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녹색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나 물리적인 환경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관심사를 통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해 준다.

학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난제는 정부의 정책, 디자인 철학, 복잡 다단한 교육학, 문화적 수용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적 유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보존 등을 모두 조정하는데서 발생한다. 이 학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건물을 신설하고 학습 환경을 융통성 있게 만드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3) 녹색 성장

OECD의 녹색 성장 선언은 각 나라들이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국제적 정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을 향하도록 종용한다. 이것은 각국이 더 깨끗하고 낮은 탄소 방출 기술을 사용하며 더 향상된 자연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녹색 성장 전략은 기후 변화와 다른 환경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깨끗한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위기는 현재 난무하는 많은 개념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더 깨끗하고 저탄소 지향 사회를 향한 이동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적 자극을 위한 “녹색 성장”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또한 학교 건물을 투자를 위해 적절한 영역으로써 인식하게 하기도 한다. 학교 시설의 맥락에서 이것은 자연 자원 보존을 권장하고, 탄소 방출을 줄이며, 자연 환경 보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런 실천을 위해서는 학교 건물을 개발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더 나은 에너지 실천과 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지구와 그 거주자들의 장기적인 안녕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기보다는 녹색 투자를 위한 자원으로써 학교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세대 간의 고려사항을 모두 고려하며 지속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국제적인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공된 자극 패키지(The stimulus package)가 학교 건물과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다.

(4) 공공 공간으로써의 학교

학회 내내 반복되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학교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역할을 하므로 향후에는 공공 영역의 디자인으로 통합되어 도시와 지역 사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프랑스 건축가 Françoise-Hélène Jourda는 포스터 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시계획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공 건물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공공의 삶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을 개발하며 확보하는 문제이다. 학교는 도시 공간이 응집된 장소이다. 모든 사람이 지역 사회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을 갖도록 해 줄 수 있는 장소이므로...”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사용되는 교실과 복도 공간 이상을 의미한다. 영국의 어린이, 학교, 가족을 위한 부서(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디자인 Head인 Jane Briginshaw에 따르면, 학교는 지역사회의 허브로써 봉사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주민들이 통상적인 학교 시간 이후에 올 수 있는 장소이고, 사회적 서비스나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 부가적인 학습 활동을 제공하거나 강의 등 공공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네덜란드 건축학자 Herman Hertzberger에 따르면, 공공 실체로써의 학교 공간은 “공동체 의식과 공공이 접근할 수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녹색 학교는 녹색 가정 혹은 녹색 도시들로 구성된 전체의 한 부분으로써 구상해 볼 수도 있다.

학교를 근간으로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써 기능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많은 함의를 갖는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결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그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더 풍부한 시민 사회의 발전을 꾀하게 한다.

(5) 건축가의 역할

1) 교육의 기본적 가치 지원하기

학교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장려하고 교사와 학생의 행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는 창의성이 만발하고 탐구가 활발하며 개인이 자아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습과 사고를 위해 지정된 일종의 보호된 공간이다. 그것은 또한 학생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건축가는 이러한 학습 환경과 상호작용들에 영향을 주는 수단과 방법들을 제공한다.

핀란드 건축학자 Juhani Pallasmaa는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건축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건축가의 역할은 물리적이고 측정가능한 조건들을 훨씬 넘어서며 미적 즐거움을 삶의 정신적이고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연장시킨다. 건축학적 구성은 우리의 경험을 조직화하며 구조화 한다”.

따라서 학교 공간은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유연한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의 지식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학교 설계는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만 한다. 따라서 학교 디자인이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을 모두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자들은 강의하거나 참관하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2) 자연과 학교 구조 통합하기

학교 디자인은 학생들이 자연 환경과의 연결성을 잃지 않도록 내부와 외부의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학교를 자연 환경과 통합하는 것은 교사, 학생, 직원을 넘어 지역주민을 학교에 초대하는데 걸림이 되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슬로베니아에서 이것은 열린 통로 학교(open-plan schools)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학교들은 1층으로 설계되며 외부로의 통로가 학교 어느 곳에서나 통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교실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 있다.

현재 학생들을 위한 자연과학과 생태학에 대한 교과과정은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이슈들에 대해 가르치는 교과서적 접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교건물은 이러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학습자들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전시물들에 관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과 건물의 특성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포르투갈의 중등학교 건물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총 책임지고 있는 Parque Escolar의 Director Teresa Heito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더 건강하고 참여적인 환경에 관한 태도와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된 친환경적 행위들을 가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학교 공간 전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 사용자들이 재생 가능한 시스템의 결과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정보와 태도를 학교에서 우선 배우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부모와 친구, 이웃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학교는 당장의 이용자를 넘어서 그 이점을 지역주민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다.

2009년 OECD는 “15세 청소년은 PISA 2006년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서 어떤 성취를 보였는가?”라는 “Green at Fifteen”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의 특별 란에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지식과 그린하우스의 가스에 대한 태도, 쓰레기 처리 보존과 환경 이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은 학교를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출처로 꼽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학교 건물, 공간, 장소에 대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6) 모범사례들

본 학회에서는 책임 있고 양심적인 행동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적합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과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개념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실제 예시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다음에서 소개될 예들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개축하기 위한 기획에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체계적인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1) 일본, 저탄소 사회에서의 학교 계획

Keio 대학의 System Design Engineering 교수 Toshiharu Ikaga는 일본 정부가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저탄소 사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입한 School New Deal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적으로 친근한 디자인과 건축, 유연한 작동과 유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장비의 설치 그리고 환경학습을 위한 학교 건물의 사용 등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성에 접근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정부와 각 부처(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ith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Environment,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에 해당)간의 긴밀한 협조에 기인 된다.

2) 영국, 탄소 제로의 지속가능한 학교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디자인 파트를 맡고 있는 Jane Briginshaw는 영국의 거의 모든 중등학교를 재건축하는데 투자하는 프로그램인 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for School Buildings(BREEAM)를 준수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새로 건축된 학교들은 탄소 방출을 60%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에너지 통제의 실현과 건물 비용 감축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 미터 디스플레이(Smart Meter Display)를 통해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인식을 고양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3) 포르투갈, 중등학교의 현대화

Pargue Escolar의 Director Teresa Heitor는 포르투갈 정부가 학교시설 기준을 고양시키고 학습공간과 과학기술실, 창작 예술 공간과 도서관 영역을 위주로 학교를 확

장하기 위해 출범한 학교 건물 현대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을 “학교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장기적 결정을 내리며 편안한 학업 조건과 학교 공동체의 참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육 당국자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주요 요소와 디자인 원리를 고수한다. 이 요소들의 결합은 지속가능하고 모범적인 학교 건물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 학교 구조의 유연성
- ☑ 건축 자재의 견고성 및 가구의 적합성
- ☑ 에너지 효율의 측정
- ☑ 낮은 비용과 단순화된 운영 방식
- ☑ 학교 공동체의 참여

4) 이탈리아, 질 높은 교육시설 프로젝트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기반한 Centre of Innovation and Educational Experimentation of Milan(CISEM)에서 온 Giogio Ponti는 교육 기관 프로젝트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원칙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질 관리 매트릭스를 사용함으로써 지능적인 학교를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적 지속가능성 외에도 기능성, 심미성, 디자인의 질과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시설 프로젝트에서 이런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교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포함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질적인 인덱스는 다음과 같다. 최대한 자연과 친환경 자원을 존중할 것, 무 탄소, 오염과 쓰레기, 새로운 교육철학과 유연성에 의해 공간을 최대한 아끼는 것, 미국의 녹색 건물 연합회에서 평가된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에서의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이 다섯 가지 원리의 실행은 비용 절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7) 다양한 관련자들

법적인 정책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실천을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변화를 불러오는 주된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그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과 학교 시설에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디자인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는 작업이다. 지속가능한 학교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촉진하는 것은 집단의 반응을 필요로 하며 좀 더 통합되고 일관된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과정에서는 더 다양한 관련자들의 관점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정부 기관이 여러 부처를 넘나들면서 이런 과정을 조직화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교사, 학생, 직원들의 참여 부족은 학교 시설 디자인의 측면과 일상적인 관리와 유지의 측면에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비용이 절감되는 학교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줄이며 교육적 과정에 방해가 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Teresa Heitor, 포르투갈 중등학교의 현대화, Higgins et al., 2005에서 인용).

교육적인 요구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창출하는 과정에 정부 관료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사, 학생 등 모든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8) 이용가능성

건물은 최신 녹색 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장치들이 그런 특성이 효율적으로 실제 활용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등급과 건물 등급의 측정은 학교가 지속가능하게 기능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함의한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항상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특히 건물의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때로는 복잡하고 사용하기 쉽지 않은 이런 특성과 기술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사용자 필요를 소홀히 하는 것은 효율적인 장비와 기술적인 특성들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값비싼 장식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정확한 사용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물 이용자와 관리자들이 그런 장비와 기술의 사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또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 관리 기술들과 평가들은 최적의 상태로 이용될 수 없다.

(9) 비용

자연 채광과 그늘을 이용한 조명 혹은 광발전용 패널을 이용하는 것 등의 에너지 절약 전략은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건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학교 건물을 창출하는데 주요 걸림돌이 된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비용이나 투자보다는 초기 자본의 가격이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이러한 점은 학교 건축가와 의사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비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제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10) 결론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 사회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교육적 성취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 공간은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을 통해 생활에서 또 학업에서 통합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일관된 정책과 학교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아직 상당한 난제들이 남아 있다.

Jane Briginshaw는 영국 수상 Gordon Brown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건 벽돌과 시멘트에 관한 게 아니죠. 미래를 위한 학교를 건설하는 것은 전환을 위한 촉매입니다”.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학교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건물 자체가 학습자들과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환경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속가능한 공간과 장소를 창조하는 것은 건물과 시설들이 변화하는 교육적 가치, 학교의 비전과 개인의 요구를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좋은 학교 디자인은 동시에 지속가능한 학교 디자인이어야 하고, 이 두 개념은 상호 호환적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학교 건물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는 에너지와 자원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 및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정부는 각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환경적 필요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발표

본 학회의 발표자 및 발표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자	소속	국가	주제	비고
Pavle Gantar	izr. prof. dr.	Slovenia	Towards sustainable town planning	
Eva Dolar Bahovec	red. prof. dr. Faculty of Arts, University of Slovenia	Slovenia	The touch of class, philosophy, architecture and schooling	bahovec@yahoo.com
Mih Desman	architect and editor of AB arhitektovne bilten magazine	Slovenia		
Toshiharu Ikaga	prof. dr. 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io University	Japan	Planning school building in a low carbon society	ppt available
Jane Briginshaw	Head of Design, Capital Assets,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United Kingdom	Sustainable schools in UK	ppt available
Teresa Heitor	Prof. Technical University of Lisbon and Director Parque Escolar, EPE	Portugal	Momodernising secondary schools in Portugal to create sustainable environments	paper available
Giorgio Ponti	CISEM	Italy	The educational quality facilities project in Italy and the sustainability inputs	ppt available
Maja Ivanic	architect and editor of Hise magazine	Slovenia		
Juhani Pallasmaa	prof. architect SAFA, Hon. FAIA, Int FRIBA	Finland	Mental and Existential Ecology	paper available

Ksenija Bregar Golobic & Janja Barsi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 of the Republic of Slovenia	Slovenia	The user's voice and architect's reflections-survey results	ksenija.bregar@gov.si
Herman Hertzberger	architect and urban designers	Netherlands	Space and Learning	paper available

3. 학교방문

(1) 루블라나 간호 중등학교(Ljubljana Secondary School of Nursing)

루블라나 도심에 위치하며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14-18세 학생들을 위한 중등교육 기관이다. 하지만 직업학교(vocational school)는 아니며 학생들은 졸업 후 국가 시험을 봐서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간호사는 슬로베니아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요구되는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아주 전문적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실험실습실이 인상적이었다.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은 빨간색, 남자화장실은 파란색으로 단장되어 있다.



<그림 IV-1> 교장선생님 환영 및 학교 소개



<그림 IV-2> 중앙 계단



<그림 IV-3> 복도



<그림 IV-4> 교실문



<그림 IV-5> 교실 1



<그림 IV-6> 교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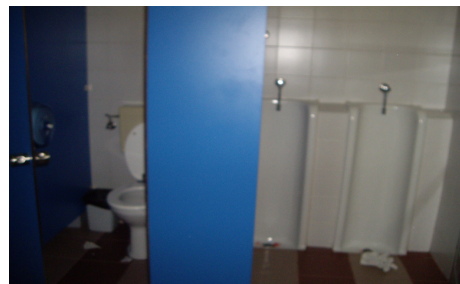
<그림 IV-7> 여학생 화장실 1



<그림 IV-8> 여학생 화장실 2



<그림 IV-9> 남학생 화장실 1



<그림 IV-10> 남학생 화장실 2



<그림 IV-11> 도서관



<그림 IV-12> 실험 실습실

(2) 힌코 스프레카 초등학교(Hinko Smrekar Elementary School)

6-14세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창설 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였으면 공간은 리모델링한 곳과 옛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교문을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이 합창을 하면서 환영해 주었다. 급식실 앞에 손 닦는 세면대가 있었고 조리하시는 분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개인용 사물함이 널찍하게 복도에 정렬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학생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 IV-13> 건물 바깥에서의 전경



<그림 IV-14> 교문 및 복도전경



<그림 IV-15> 입구에서: 환영의 노래



<그림 IV-16> 중앙 통로



<그림 IV-17> 중앙 통로에 걸려있는
학생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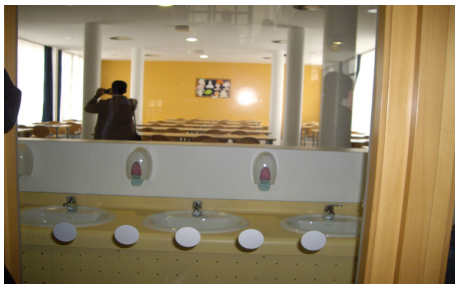
<그림 IV-18> 교실모습



<그림 IV-19> 화장실 1



<그림 IV-20> 화장실 2



<그림 IV-21> 급식실



<그림 IV-22> 학생 개인용 사물함



<그림 IV-23> 쓰레기 분리수거함



<그림 IV-24> 공중전화



<그림 IV-25> 체육관



<그림 IV-26> 우리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

(3) 프라블린체 유치원(Mravljincek Nursery)

0-6세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치원이다. 정문에 들어서자 원장 선생님이 유치원의 환경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유치원은 1층으로 되어 있어 건물 어느 곳에서나 바깥 경치가 보이고 또 연결되게 설계되어 있었고 놀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점심을 먹고 있던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진 촬영에 응해주기도 하였다.



<그림 IV-27> 입구: 교장 선생님의 인사



<그림 IV-28> 슬로베니아어 ECO CORNER



<그림 IV-29> 점심 식사 중인 아이들



<그림 IV-30> 공간은 실제 집처럼 디자인



<그림 IV-31> 긴 복도



<그림 IV-32> 복도에 걸린 어린이 작품들



<그림 IV-33> 창 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



<그림 IV-34> 주변 풍경



<그림 IV-35> 세면대



<그림 IV-36> 어린이용 변기



<그림 IV-37> 놀이 공간



<그림 IV-38> 출입구

4. 포스터 전시

학회 행사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유치원, 초, 중등학교 가운데 선택된 학교들에 대한 포스터 전시가 있었다. 여기서 전시된 신축 혹은 개축된 학교의 예들은 건축학적 디자인, 지속가능성 원칙의 구현, 공간 개발의 측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학교들을 선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도시 혹은 자연 환경과의 통합
- ☑ 변경가능하고 유연한 공간 배치
- ☑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 ☑ 전통적인 건축적 요소에 대한 이해
- ☑ 교수 활동에 필요한 요소들
- ☑ 주변 지역사회와의 관련

슬로베니아 학교들이 많았지만 이탈리아, 영국, 미국, 아프리카, 일본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의 Burkina Faso에 소재한 학교를 친환경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했다.



<그림 IV-39> 포스터 전시 1



<그림 IV-40> 포스터 전시 2



<그림 IV-41> 포스터 전시 3



<그림 IV-42> 포스터 전시 4



<그림 IV-43> 포스터 전시 5



<그림 IV-44> 포스터 전시 6



<그림 IV-45> 포스터 전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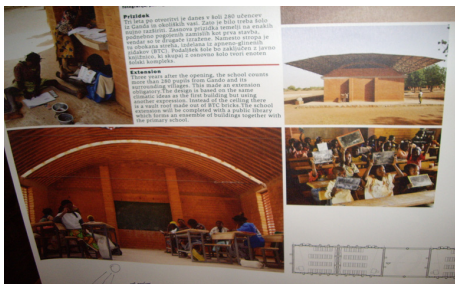
<그림 IV-46> 포스터 전시 8



<그림 IV-47> 포스터 전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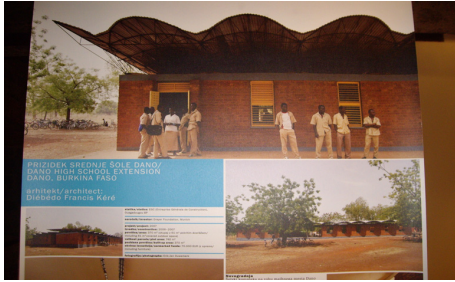
<그림 IV-48> 포스터 전시 10



<그림 IV-49> 포스터 전시 11



<그림 IV-50> 포스터 전시 12



<그림 IV-51> 포스터 전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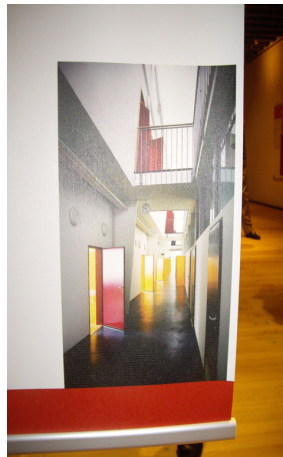
<그림 IV-52> 포스터 전시 14



<그림 IV-53> 포스터 전시 15



<그림 IV-54> 포스터 전시 16



<그림 IV-55>
포스터 전시 17



<그림 IV-56>
포스터 전시 18

V.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

학교 건물을 비롯한 시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국제적인 경향이다. 여기에는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가 미래를 위한 가장 의미 있는 투자라는 인식과 함께 자국의 경제적 불황 타격을 위해 건설업을 부흥시키려는 동기도 작용한다.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를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용자 평가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1. 연구의 시사점

☑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는 어떤 형태로든 증액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종의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이기도 하다.

☑ **학교 시설 개선이 가져 오는 파급효과는 학생, 교사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이들을 연결 짓는 문화적 촉매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밀양 무안중학교의 경우 운동장에 가로등이 하나 켜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학교로 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도서관을 이용해 독서토론회를 가지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 **학교가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생활공간임을 인지할 때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의 효과는 학업성취와 같은 단기적이고 양적인 효과보다는 구성원들의 정서, 건강, 문화적 고양감 등 장기적이고 질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 대왕중의 교사들은 학교 시설 변화 이후 학생부 지도가 훨씬 수월해지고 학생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음을 서서히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 **학교 시설 내의 부분적 변화가 학교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들불효과라고 연구팀이 명명한 이 효과는 초기 문광부의 지원으로 화장실만을 개선했던 학교들이 이후 다른 공간과의 디자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지원을 유치함으로써 학교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 학교 시설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지원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크다. 이는 도시보다는 농어촌,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학교를 지원했을 때 그 구성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가 뒷받침한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가 위축되는 상황에 있는 농촌 지역 학교에서는 이런 지원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또한 학교 시설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학교장파 개선 사업을 추진할 주요 교사의 역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투자 액수나 시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구성원의 만족도가 반드시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는 전주 양지중학교의 경우 5개 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간(화장실 외에 갤러리, 보드게임방, 한지휴게실 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지는 않았던 결과가 시사 하는 바이다.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학생, 교사들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결과물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건축가, 디자이너, 시공자, 학교장, 교사, 학생 등 이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남산초등학교가 개설한 북카페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휴식과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화장실이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해 주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개선 공간 선정의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디자인을 고려한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가의 리더십과 일선 학교의 학교장 및 교사들의 파트너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비교적 정교하게 계획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학교 시설 환경의 주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유사한 정책의 시행에 위와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 결과는 5.5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회적 조사(one shot survey) 연구에 기반 하기 때문에 학교 공간의 디자인 변화가 학생과 교사에게 주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기에는 미흡하다.

☑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20명은 모두 연구자가 아닌 개별 학교 교사의 추천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시각에서 인터뷰에 적합한 학생들이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비교집단 학교 선정의 경우 시설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학급수와 학생 수 등 학교 규모를 위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집단 학교와의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 학생들의 행동 변화의 경우 사전-사후 검사가 아닌 사후 자기 보고에 의한 응답에만 의존했으므로 객관적인 변화의 측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에서 주관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시범 사업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학교 시설 공간의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수행 및 행동적 변화, 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속적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를 양적, 질적 자료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시설 개선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학교 공간이 공공 건물로 인식됨으로써 앞으로는 도시 계획과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 하여 향후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안들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향후 학교 공간 개선 사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사실,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설분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런 사업의 시행은 대부분 학교의 일부 시설을 '개선해 주는' 혹은 '지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이 개선의 과정에 학생, 교사, 학부모 및 때로는 지역사회 주민까지 참여하여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참여적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 디자인 전문가가 개입하여 공간 개선에 있어 '디자인'의 변화가 그 공간의 효용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도 향후의 학교 공간 신축 및 개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 주로 개선의 대상이 된 화장실 공간의 경우,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고, 담소를 하고, 심지어 빵을 먹고, 음악을 듣는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용도를 넘어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공간의 활용은 담배, 폭력, 불결함으로 어두웠던 화장실을 소통과 개방의 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변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공간의 변모가 인간을 변모시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는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 (school building as a teacher)는 이탈리아의 건축학자 Gorgio Ponti(2009)의 사례나, 학교 건물을 3D-textbook으로 활용하는 개념을 제시한 호주의 Green Smart Schools 프로젝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http://www.sustainable.unimelb.edu.au/content/smart-green-schools>).

학교 환경은 한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학습 욕구 및 학습 목표 달성에 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교육 환경 개선에 있어서 시설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온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국내 교육 개혁은 시설적 측면 보다는 주로 교수학습법 개선이나 교육과정 개선에 치우쳐 왔다. 또한 시설의 개선 방안은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적 문제와 연관되어 주로 열악한 시설에 제한된 개보수의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 시설의 개선 사업은 교육 환경 전반 개선에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적절성을 감안할 때 공간 활용에 있어 상당한 실효성이 있고, **환경이 개인에 미치는 중요성 측면에서도 비용대비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학생과 교사, 교장,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공간 개선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학교 운영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학교 공간 환경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다.**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3개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시범 사업의 전후를 모두 경험한 학생 794명과 비교집단 학생 515명이 참여하여 모두 1309명의 학생과 교사 134명이 참여한 설문 자료와 28명의 학생과 20명의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번 사업으로 변화된 학교 시설(주로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연구 집단 모두 비교집단 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학교 간의 비교에 의하면,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도시보다는 농촌 학교가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 시설 변화 후 학생들이 인지하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청결"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교사와의 대인관계, 학교에 대한 애교심, 학교생활의 편리함, 정서적 안정감, 학업 성취 영역이 그 뒤를 이었다. 셋째, 학교 시설 개선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도와 행동 변화 그리고 만족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록, 변화에 대한 지각도 크고, 만족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학생 집단보다 교사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 환경 개선 이후 교사들은 학생, 학업 지도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업무에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섯째, 학교 시설의 가시적인 개선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의 성공에는 학교장과 대표 교사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는 어떤 형태로든 증액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시설 개선이 가져 오는 파급효과는 학생, 교사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이들을 연결 짓는 문화적 촉매의 역할을 한다. 셋째, 학교가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생활공간임을 인지할 때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의 효과는 학업성취와 같은 단기적이고 양적인 효과보다는 구성원들의 정서, 동기, 수행, 건강, 문화적 고양감 등 장기적이고 질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교 공간 디자인의 부분적 변화가 학교 건물과 환경 전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시설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필요로 하는 학교를 지원했을 때 만족도가 높을 확률이 크다. 또한 이 선정 과정에서 학교장과 개선 사업을 추진할 주요 교사의 역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투자 액수나 시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구성원의 만족도가 반드시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여덟째, 학교환경 개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학생, 교사들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결과물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째,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선 공간 선정의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범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비교 연구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전후의 사용자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수행 과정과 장기적 측면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 디자인 변화가 가져온 학생과 교사의 성과 및 수행 변화의 측면을 더욱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건물, 시설, 환경의 개선이 물리적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편의와 미적 감각, 문화적 소양을 고려하는 공간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공간(place), 사람(people), 수행(performance) 간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녹색 성장과 기후 편의, 미적 영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공공건축물과 미적 녹색 건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지속가능한 건물(sustainable building)과 관련된 대중의 미적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자 미래 세대의 주역들이 정주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실험적으로 적용할 가장 유망한 공간으로 꼽히고 있다. **학교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정책 결정자와 공공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의지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가종길, 이준대 (1999) 학교주변 소음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원주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산업안전학회지**, 14(3), 140-145.
- 강은주 (2007) 학교환경을 고려한 에코스쿨의 계획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대학원
- 강성만 (2005)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고성룡 (1987) **대도시 초, 중등학교 옥외시설의 공간배분 및 시설의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제3회 생산기술연구소 논문발표대회(1987, 11,21)에서 발표.
- 김정수 (1993) 중학교 교육시설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동원 (2009) 교과교실제를 통한 맞춤형 교육 구현, 건축-대한건축학회지, 2009년 07월 제 53권 제7호
- 김연홍 (2001) 중학교 학생의 학교시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철 (1995) 교육 시설의 현대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구도 가즈미(2004) 학교를 만들자, FursysBooks
- 류호섭 (2007) 특집(特輯) : PFI사업 학교의 설계현황과 새로운 학교건축을 위한 제언, 한국교육시설 학회지, 14(4), 101-107.
- 모승준 (2003) 학교건축의 음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양욱 (2001) **도심지 초등학교의 소음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창환, 김익환 (2002) 열린 교육의 관점에서 본 교실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9(1), 5-14.
- 박종혁 (2006) 학교시설에 대한 초중학교 학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원
- 부윤선, 윤희철(2006) 경기도 지역 초, 중, 고등학교의 외관 색채계획 경향에 관한 연구-현상설계 당선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환경연구원학술지**, 5(2), 53-66.
- 송순재 (2000) 유럽의 아름다운 학교와 교육개혁운동,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송혁, 송민정, 박현구, 김선우 (2003)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학교 교실 창호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14(3), 214-223.
- 신영봉 (1985) 중학교 교실의 시설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여운호 (1999) 인천지역에서의 학교방음벽 소음저감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학회지**, 5(2), 491-494.
- 유진, 김수연, 전진용 (2005) 교실에서 에어컨 소음에 의한 음성 명료도 평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1), 371-374.
- 유태형 (2008) 초등학교 외벽 색채 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 윤아람, 하미경 (2005) 강의실 색채 환경 개선 후 평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7(1), 191-195.

- 윤희철 (2006) 초등학교 건축물 외부색채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환경연구원학술지**, 5(1), 11-21
- 이화룡 (2007) 동시대 학교건축의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4(1), 5-13.
- 이연수 (2009) 미래형 생활패턴에 대응하는 학교 건축, **건축-대한건축학회지**, 2009년 07월 제53권 제7호
- 이영욱, 이성욱, 김정태(1988), 교실의 학습환경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8권, 1988년 10월 29일, 420-423
- 이용택(2003)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교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화룡 (2009) 미래 학교 모습, **건축-대한건축학회지**, 2009년 07월 제53권 제7호
- 이화룡 (2007) 동시대 학교건축의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4(1), 5-13.
- 조현주 (2005), **학교환경을 이용한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좌경옥 (2008) 초등학교 교육시설의 실태와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원
- 최도성, 김영옥 (1994) 광주지역 국민학교의 소음공해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 13(2), 119-134.

- AAF (2007) *School Design and Student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A Report of Findings*, Washington, D.C.: American Architectural Foundation.
- Ahlefeld, H. (2008) What OECD studies reveal about the quality of the physical learning environment, OECD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PEB), <http://www.colloquia.ch/PDF/Ahlefeld.pdf>, Retrieved June 3, 2009.
- Ahrentzen, S. & Evans, G. W., (1984) Distraction, privacy and classroom design, *Environment and Behavior*, 16(4), 437-454.
- Alexander, B., (2000) *Culture and Pedagogy: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primary education*, Blackwell.
- American Architectural Foundation (2007) *Design for Learning Forum: School Design and Student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Architectural Foundation, Washington, D.C.
- Annesley, B., Horne, M. & Cottam, H. (2002) *Learning Buildings*. London: School Works.
- Berner, M. (1993) Building conditions,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 achievement in the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 system. *Urban Education*, 28(1), 6-29.
- BCSE (2009) British Council for School Environments, <http://www.bcse.uk.net/> Retrieved June 3, 2009.
- Bowers, J. H. and Burkett, G. W. (1987) *The Relationship of Student Achievement and Characteristics in Two Selected School Facility Environmental Settings*, 64th Conference of the Council for Educational Facility Planning International (CEFPI), Alberta, Canada.

- Chan, T. (1979) *The Impact of School Building Age on Pupil Achievement*. Greenville County,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Edgerton, E. & McKechnie, J. (2004) *Glasgow's PPP School initiative (Project 2002): An evaluation of school environments and their impact on students and staff*, Paisley, University of Paisley.
- IAPS (200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Environment Studies, <http://www.iaps-association.org/> Retrieved June 3, 2009.
- Mikellides, B. (2007) Architectural Psychology 1969 - 2007: Theory, Practice, and Education, *Architectural Psychology*, 2(2).
- Mori, M. (2007) Japan's Eco-school Programme, *PEB Exchange,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2008/8*, OECD Publishing, OECD.
- OECD (2006) *PEB : Compendium of exemplary educational facilities*, Paris: OECD Publishing.
- Ornstein, S. W. & Moreira, N. S. (2008) Evaluating School Facilities Brazil, *PEB Exchange,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2008/6*, OECD Publishing, OECD.
- Ponti, G. (2008) A Flexible Schoo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Italy, *PEB Exchange,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2008/8*, OECD Publishing, OECD.
- Rittelmeyer, C. (2005) *Schulbauten positiv gestalten : wie Schüler Farben und Formen erleben*, 느낌이 있는 학교건축. 송순재, 권순주(옮김) (2005) 내일을 여는 책.
- SECO (2009). "High Performance Sustainable School Design", http://www.seco.cpa.state.tx.us/resustain_schools.htm, Retrieved June 3, 2009.
- Stamps, A. E. (2000) *Psychology and the Aesthetics of the Built Environment* Stamps, Massachuset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anner, K. & Jago, E. (1999) *The Influence of the School Facility on Student Achievement*, Washington D.C., University of Georgia.
- Woolner, P, Hall, E, Wall, K and Dennison, D. (2007) Getting together to improve the school environment: user consultation, participatory design and student voice. *Improving Schools*, 10(3), 233-248.

부록 1

학교환경 조사 설문지 (학생A)

우리 학교는 2008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시로 학교시설 가운데 일부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학교시설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학교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이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되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신나민 교수 드림

- 성별 : 남 () 여 ()
- 나이 : () 세
- 소속 : 초등학생 () 중학생 ()
- 학년 : () 학년

※ 다음은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쪽의 □에 V하여 주세요.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

1.	혼란스러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서정연한
2.	답답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원한
3.	부드러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딱딱한
4.	다양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조로운
5.	반감이 가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호감이 가는
6.	명랑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울한
7.	차분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분주한
8.	밝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두운
9.	정돈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지러운
10.	편리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편한
11.	추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다운
12.	따스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가운
13.	흥미로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루한
14.	가고 싶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기 싫은
15.	긴장되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편안한

16. 학교 시설 변화 후 학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유롭게 써 주세요.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의견에 해당하는 □에 V 표시 해 주세요.

학교시설 변화 후 나는 학교에서 _____.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7.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좀 더 침착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생활이 더 즐겁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쓰레기를 덜 버리게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낙서하는 것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친구들과 더 친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선생님과 더 친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학교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학교 일에 더 적극적으로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학교 물건을 더 아끼게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지내는 것이 더 편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더 오래 있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이동하기가 더 쉬워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성적이 더 오른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수업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4.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아래 숫자 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다음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에 V하여 주세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

- | | | | | | | | |
|-----|--------|--------------------------|--------------------------|--------------------------|--------------------------|--------------------------|--------|
| 36. | 혼란스러운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질서정연한 |
| 37. | 답답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시원한 |
| 38. | 부드러운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딱딱한 |
| 39. | 다양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단조로운 |
| 40. | 반감이 가는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호감이 가는 |
| 41. | 명랑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우울한 |
| 42. | 차분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분주한 |
| 43. | 밝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어두운 |
| 44. | 정돈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어지러운 |
| 45. | 편리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불편한 |
| 46. | 추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아름다운 |
| 47. | 따스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차가운 |
| 48. | 흥미로운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지루한 |
| 49. | 가고 싶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가기 싫은 |
| 50. | 긴장되는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편안한 |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에 V하여 주세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_____.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51.	깨끗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2.	보기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3.	이용하기 편리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4.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5.	멀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6.	냄새 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7.	휴지통이 깨끗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8.	변기가 잘 고장 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9.	공간이 넉넉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0.	방음이 잘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1.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아래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해당되는 □에 V로 표시해 주세요.

나는 _____.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62. 이번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3. 이번 학교 시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4. 앞으로 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5. 학교 환경이나 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6. 학교 환경이나 시설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의 문항은 학교시설과 여러분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해당되는 □에 V 표시해 주세요.

학교시설은 _____.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6. 내가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나의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내가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내가 학교 물건을 아끼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나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선생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다음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에 V하여 주세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

23.	혼란스러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서정연한
24.	답답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원한
25.	부드러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딱딱한
26.	다양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조로운
27.	반감이 가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호감이 가는
28.	명랑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울한
29.	차분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분주한
30.	밝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두운
31.	정돈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어지러운
32.	편리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편한
33.	추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름다운
34.	따스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가운
35.	흥미로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루한
36.	가고 싶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기 싫은
37.	긴장되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편안한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에 V하여 주세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_____.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8. 깨끗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9. 보기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0. 이용하기 편리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1.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2. 멀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냄새 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4. 휴지통이 깨끗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5. 변기가 잘 고장 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6. 공간이 넉넉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7. 방음이 잘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8.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9. 학교 환경이나 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0. 학교 환경이나 시설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환경 조사 설문지 (교사용)

우리 학교는 2008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시로 학교시설 가운데 일부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학교환경과 시설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이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어 비밀이 보장되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연구책임자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신나민 교수 드림

- 성별 : 남 () 여 () • 나이 : 만 () 세
- 소속 : 초등학교 () 중학교 () • 교직경력 : () 년
- 본교의 근무 년수 : () 년

※ 다음은 학교 건물에 대한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쪽의 □ 에 V하여 주세요.

우리 학교 건물은 나에게 _____ 느낌을 준다.

- | | | | |
|-----|--------|-----------------------------------------------------------------------------------------------------------------------------------------------------------|--------|
| 1. | 혼란스러운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질서정연한 |
| 2. | 답답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시원한 |
| 3. | 부드러운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딱딱한 |
| 4. | 다양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단조로운 |
| 5. | 반감이 가는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호감이 가는 |
| 6. | 명량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우울한 |
| 7. | 차분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분주한 |
| 8. | 밝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어두운 |
| 9. | 정돈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어지러운 |
| 10. | 편리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불편한 |
| 11. | 추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아름다운 |
| 12. | 따스한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차가운 |
| 13. | 흥미로운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지루한 |
| 14. | 가고 싶은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가기 싫은 |
| 15. | 긴장되는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편안한 |

16. 학교 시설 변화 후 학교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7. 학교 시설 변화 후 학생들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입니까?

※ 아래의 문항은 학교 시설 변화 후 선생님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해당하는 □에 V표시하여 주세요.

학교시설 변화 후 나는 _____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8. 학급 운영이 더 수월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수업 진행이 더 편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학생지도가 더 수월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학생들과 대화가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행정 업무의 효율이 좋아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다른 교사들과 대화가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학교 일에 더 적극적으로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학교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학교에 더 애착이 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아래의 문항은 학교 시설 변화 후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의견에 해당하는 □에 V표시하여 주세요.

학교시설 변화 후 학생들이 _____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27. 더 조용해진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싸움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쓰레기를 덜 버리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용모가 단정해졌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청소를 더 열심히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4. 학생들 간의 대화가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가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6. 학교 시설을 더 아끼게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7. 개인 학용품을 아끼게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8. 생활하기가 더 편해진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9. 학교생활을 더 즐겨워하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0.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더 느끼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1. 수업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2. 성적이 오른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4. 학교시설 변화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래 숫자 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 ----- ----- ----- ----- ----- ----- ----- ----- -----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느낌과 가까운 □에 V하여 주세요.

우리 학교 교사 화장실은 _____ .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45. 깨끗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6. 보기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7. 이용하기 편리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8.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9. 멀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냄새 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1. 휴지통이 깨끗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2. 변기가 잘 고장 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3. 공간이 넉넉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4. 방음이 잘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5.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아래 문항을 읽고 선생님의 의견에 해당하는 □에 V표시하여 주세요.

나는 _____ .	아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56. 이번 학교 시설 변화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7. 이번 학교 시설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8. 앞으로 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9. 학교 환경이나 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0. 학교 환경이나 시설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인 터 뷰

1. 서울 대왕중학교

(1) 학생 인터뷰

날짜: 2009. 8. 26
장소: 회의실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박00), 남2(안00), 남3(조00), 여1(조00), 여2(김00), 여3(성00)

- 신: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신나민 교수라고 합니다. (와+박수) 굉장히 우호적이시네. 낯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00부터 몇 학년인지 이야기해 줄래요?
- 남 1: 2학년.
- 신: 그 다음 00 몇 학년이야?
- 남 2: 저도 2학년이요.
- 여 1: 저도 2학년이요.
- 신: 이름 좀 말해줄래요?
- 남 3: 00요.
- 신: 조00?
- 남 3: 3학년이요.
- 신: 그 다음 김00 3학년, 성00 3학년. 성00는 연예인 있지 않아요? 언니예요? 본인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지금 뭐하는 시간이죠?
- 남 1: 회장 선거요.
- 신: 선거요? 그런데 여기 있어도 되요?
- 여 2: 네. 되요.
- 신: 누가 되던지도 상관 없어요?
- 모두: 네.
- 신: 투표 안 해도 되요?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대왕중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멋있죠?
- 모두: 네.
- 신: 그렇게 알고 있죠?
- 모두: 네.
- 신: 그렇게 알려졌죠?
- 모두: 네.
- 신: 그럼... 어떻게 좋아요? 어디가 멋있어요?
- 여 3: 화장실이 좀...
- 신: 그게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장실 바꾸기 전하고 후 둘 다 경험해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 많이들 경험을 하셨네. 음. 그러면은 기억나요? 옛날 화장실?
- 여 2: 약간..
- 신: 그 공사를 작년에 했죠? 언제 했죠? 작년 여름 방학에?
- 여 3: 그렇죠.
- 신: 그럼 언제 비포 앤 애프터가 나타났어요?

여 1: 저희 입학할 때 반 하고 여름방학 때 또 반 하고.
 여 3: 두번 했던 거 같아요.
 신: 그래서 지금 모든 학년이 새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죠. 모양이. 그 옛날 것을 뭐라고 불러요?
 모두: 옛날 화장실.
 신: 옛날 화장실? 둘 다 좋죠?
 모두: 네. 좋아요.
 신: 그럼 최근 것은 몇 학년이 써요?
 여3: 2학년. 우리는 옛날 것을 쓰고. (2학년... 1학년...)
 신: 그럼 자기들이 쓰는 화장실은 뭐야? 지금 남녀 따로 화장실을 쓰죠?
 모두: 네(웃음)
 신: 그건 당연하나? 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바뀐 버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뉴 버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나요?
 여 2,3: 아니요.
 신: 학년마다 달라요? 한 번씩은 써봤어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어떤 지 느낌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00부터 한번 얘기해 봐요.
 여 3: 일단 그 위생상 그런 청결문제에서는 상당히 좋아졌구요. 제가 입학했을 때의 경우에는 악취가 심해서 공부하는 데 약간의 지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결도 청결 문젠데 파우더 림처럼 여자화장실에 조그마한게 하나 생겨서 친구들과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 2: 저는 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이를 닦아야 하는데, 저는 더럽고 어둡고 해서 칫솔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바꾸고 그러니까 매일 이 닦고 있고요. 그리고 비누 매일 채워져 있고 요즘 그런 것도 좋아요.
 신: 그런 관리는 누가 해주시죠?
 여 2: 관리 하시는 아저씨.
 신: 아주머니가 오세요?
 여 2: 화장실 청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화장실은...) 화장실은 우리가 하고? (네) 그럼 00는?
 남 3: 어. 저는 작년에는요. 화장실만 가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좀 어둡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각적으로 좋고 편안해지고 그게 또 디자인 쪽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신: 디자인 선생님 봤어요? (네) 그럼 어떤 분이 오셨나? (그건 잘..)
 그럼 그 분이 디자인 할 때 여러분들 의견 물어 봤어요?
 모두: 네.
 신: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좋아져서 기분이 좋다. 그럼 00는?
 여 1: 그 작년에는요. 청소할 때 대걸레 빨고 할 때 좁으니까 애들 왔다갔다 할 때 묻거나 더러웠는데 바꾸니까 줄도 편하게 서고 덜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 줄 설 때도 좁으니까 묻고 흘리고 그러는데 다 알죠. 나도 그랬는데, 00은?
 남 2: 제가 제일 처음 학교 들어와서 화장실 들어왔을 때, 말이 화장실이지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거든요. 걸레 빨거나 거울보거나(웃음). 저 말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기존의 화장실은 더럽고 불쾌했는데, 바뀌고 나니까 친구들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생기고 깨끗하니까 좋다고 봐요.

신: 거기서 얘기도 해요?

남 2: 네. 거기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신: 오. 의자 있으니까...

그게 폼이 아니네. 실제로 의자가 있어서 얘기도 하네. 그죠. 그럼 00는?

남 1: 저희 학교는 체육 할 때 체육복을 입고 하는데요. 체육시간에는 남자 애들은 예전 화장실이 있었을 때에는 더러우니까 다 탈의실 가서 갈아입었는데 지금은 깨끗하니까 화장실에서요.

신: 화장실도 이용하고... 그래요. 화장실 바꿀 때 아까 성도가 얘기했죠. 디자인 선생님님이 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의견을 물어봤어요?

남 3: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쓰던 화장실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를 건의를 하고 그거를 선생님께서도 반영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신: 그 때 이제 그럼 거기 참여한 사람..음 두 사람.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말씀 드렸나요?

여 3: 처음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 드리다가, 저는 친구들한테 한 번 설문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냥 친구들한테. 그것도 반영해보고 그리고 색깔 이런거 할 때에도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보시는 시각이랑 학생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색깔 면에서 좀 선택되었어요.

신: 와~ 대단하다. 그럼 몇 명 설문했어요?

여 3: 그냥 돌렸는데... 반 애들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신: 그래서 어떤 색깔이 많이 나왔어요?

여 3: 색보다는요, 전체적인 디자인. 약간 소녀 감성을 원하나, 심플을 원하나.

신: 그래서 어떤 것을...?

여 3: 애들이 대체로 깔끔한 것을 원하더라고요.

신: 그렇게 하는게 어떤 것 같아요?

여 3: 처음에 완전 생각했던 것은 다 재현될 수는 없는 거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신: 그럼 00는?

남 3: 저는 그 때 다른 데 좀 화장실이 좋게 디자인 되고 백화점 이런 데는 화장실이 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간 김에 거기서 좋은 것을 좀 찍어서.. 그렇게 (웃음)

신: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남 3: 꼭 그런건 아닌데... 거기서 우리학교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하는 좋은 점들...

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네. 그러면 학생들 의견을 그렇게 얘기했고, 선생님들 의견은 어땠어요?

남 3: 아무래도 학생들의 원하는 쪽으로 하자, 하지만 또 비용의 문제도 있고, 이것 저것 따져야 하고 그러시니까.

신: 그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화장실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화장실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모두: 둘 다 있었어요.

신: 오, 그럼 여러분이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고 디자이너선생님 세 그룹이 나뉘었어요? 부모님 의견은 없었고?

여 3: 학부모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신: 오시고? 음... 그럼 큰 회의였겠네 (별로...) 별로? 음 그리고... 이 화장실을... 마셔요 먹어요. (웃음) 화장실 얘기하면서 먹네? 왜 우리 화장실은 좋잖아. 먹어요. 괜찮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그럼 이게 오픈을 한날 이게 어떻게 보여줬어요? 짜잔 하고 보여줬어요? 아니면 공사하는 중간 중간에 가볼 수 있었어요?

모두: 중간 중간마다...

여 2: 수업 중간 중간에도 가볼 수 있었고요.

신: 그럼 시끄러웠겠네요.

여 2: 앞에 있는 반들은 좀 피해를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신: 그 다음에 그 지금 두 가지 화장실을 쓰고 있었어요. 그럼 두 화장실을 구분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여 1: 2학년 층 가서... 1학년층...

신: 아, 2학년 층이 최신이구나.

남 2: 그러니까 층마다 두 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층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 곳은 최신, 한 곳은 예전 것...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 그럼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어요?

남 2: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고 싶으면 층을 바꿔서... 자기 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신: 한 층에 남자 여자. 그럼 2학년이 다 2층에 3학년이 다 3층에 그런 것은 아니구나.

여 2: 그런데요.

신: 그럼 2학년은 최신 것을 쓰고 3학년은 이전 것을 쓰고? (네) 그럼 1학년은?

여 1: 여자가 이전 것 남자가 최신 것을...

여 2: 그게 같은 층이라도 층별로 나뉘어서 하나는 최신이면 그 다음 층은 이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명하기가 복잡...

신: 음, 그러네요. 또 저기도 좀 좋던데, 그 English Zone 있죠. 그거 화장실 하고 같이 된 거예요?

남 1: 좀 더 늦게...

신: 좀 더 늦게? 음 거기도 멋지지 않아요?

여 2: 맞아요.

남 2: 남자애들이 옷 갈아입는 거 구경할 수 있어요. (웃음)

신: 왜 남학생들이 거기 가서 갈아입어요?

남 2: 탈의실 옆인데 커튼이 없어져서...

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이렇게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두: 네.

신: 그럼 00부터 얘기해 보세요.

남 1: 아무래도 옛날 것 보다는 새 것이 더 좋잖아요. 사용하기도 더 편하고. 고장 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신: 지금 이제 화장실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인 시설 모두를 생각할 때, 시설을 좋게 해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잖아요. 여러 학교 중에 그런데 안 그런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이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고장 안 나고 편리하고. 00은?

남 2: 시설이 좋으면 재학생들, 그러니까 대왕중학교 학생들의 정신 같은 것을 키워줄 수가 있잖아요.

신: 교장선생님같이 말씀하시네(웃음). 또 학교가 바뀌고 나니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요?

남 2: 네. 한편으론 우리학교 어느 학교 보다 낫다 이런거.

신: 그래요. 또 00는 왜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 1: 그 시설이 좋으면 왜 애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바뀌어서 시설을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잘 쓰자 이런 생각도 잘 안 드러나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신: 그러니까 시설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 1: 그렇지 않을까하는...

신: 그럼 또 00는?

남 3: 시설이 좋으면요, 우선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공부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좀 시설이 안 좋으면요, 사람들 속이 시설이 안 좋으면 더 많이 부수고 더럽게 쓰잖아요. 심리가 그런데 고치고 깨끗 해 지니까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신: 실제로 공부도 더 잘되는 것 같아요? 00...

여 2: 공부요? 음

신: 솔직히.

여 2: 제가 사실은 여기 1학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화장실을 사용한 그 기간이 다른 애들 보다 되게 적은데요, 그래서 공부 쪽은 잘...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긴 한게, 애들이 솔직히 비유를 들자면 모텔 같은데 가서 화장실 쓰는 것보다는 호텔 가서 쓰는 게 더 좋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오면 찻찻한 기분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면으로는 애들한테 그런 쪽으로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신: 00는?

여 1: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신: 그러니까 화장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 전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 다른 시설이 또 뭐가 있죠?

남 3: 에어컨도 작년엔...

여 3: 근데 이거 안틀었잖아. (웃음) 제대로 안틀어주잖아.

신: 제대로 안 틀었어요?

모두: 네.

신: 정말 그럼 설치해 놓고 뭐했어?

모두: 환풍기...

신: 근데 이제 생겼어요?

모두: 네.

신: 그럼 지금 여기 에어컨 튼거죠?

모두: 네, 위에...

여 2: 근데 그게 우리가 2학년 때는요. 그 때 설치했었어요. 2학년 때, 저기 분명히 있는데 안 틀어주는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여름엔 많이 틀어주시니까 애들이 더 좋아해요. 많이. 공부도 더 잘되고. 더우면 또 그렇잖아요.

신: 집중이 안 되죠?

모두: 네.

신: 그럼 작년엔 왜 안틀어 주셨을까...

여 3: 환경을 아끼자는...

여 2: 맞아. 작년엔 그랬었어. 근데 올해는 정말...

신: 그럼 여러분 얘기는 공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네? 화장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분을 좋게 해준다. 그래서 공부가 잘될 수가 있다 그런거고. 에어컨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거예요?

여 2: 전 직접적인 영향을... (너무 더우면?) 자고 (너무 추우면?... 안 자요?) 네 (웃음)

신: 시원한데 자잖아.

여 3: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잘 안틀어주는데...

신: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화장실을 떠나서 학교에 딱 와서부터 계속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하는 데 학교시설 중에 지금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뭐 장소라도 좋고, 뭐 시설이라도 좋고, 학교 시설 중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한 곳씩만.

모두: 잘 모르겠어요.

신: 이견 답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야. 00는?

여 3: 저요? 전 교실

신: 왜요?

여 3: 그냥 아무래도 가장 오래 있는 곳이니깐.

신: 00은?

여 2: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실... 왜냐하면 솔직히 학생이 교무실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회의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교실에 있다보니까, 교실 전반적인게 다 학생들에게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예요.

신: 00는?

남 3: 어. 저는 교실에 애들이 있는 시간도 많지만, 밖에서 노는 시간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운동장이 다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넘어지면 상처가 나면 상처가 오랫동안 안 낫잖아요. 어떤 경우는 사라지지도 않으니까. 애들이 많이 다치고 하니까, 운동장 꼭 고치면 좋겠어요.

신: 운동장 좀 바꿨으면 좋겠다. 00는?

여 1: 저는 교실에서 제일 많이 생활하니까, 그 쪽 환경이 제일 개선되면...

신: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내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대로 교실을 다 바꿔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여 1: 더 넓게.

신: 더 넓게. 그렇지. 딱 이것만 잘해주면 딱 생각이 필요가 없죠. '해달라면서요' 이러면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딱 한계를 두지 말고,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좁아요?

여 1: 아니, 뛰어다니기에 조금... 서른일곱명이어서요. 다섯줄로 배치하면 여덟줄까지 이어져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자체가 힘들어요.

신: 그 명수에 따라서 그렇죠. 좀 넓었으면 좋겠다. 00은 어때요. 자기한테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이런거.

남 2: 저도 역시 교실...

신: 교실? 교실 어떻게?

남 2: 의자를 이런 것 좀 가져다 뒀으면 좋겠어요.

신: 여기 앉아보니까 너무 좋구만 그치. 근데 교실에 이런 걸 왜 안할까 지금 어떤 책상이에요? 딱딱해요?

여 2: 네. 근데 또 제가 봤는데, 시험같은 것 볼 때에도 층을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1학년 애들은 좀 낫던데...

신: 좀 나아요?

여 2: 이렇게 등ियो. 이렇게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되어있어서, 휘고 벌어져서 그래서 3학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신: 그럼 1학년은 이런 데 3학년은 왜 안줘 (그러니까요, 웃음). 교실이 중요하고 책걸상이 중요하고 또 00는?

남 1: 저는 네 화장실이...

신: 화장실이 제일 중요해요? (웃음) 화장실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남 1: 더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신: 제일 중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남 1: 저희 반 남자애들이 대부분 화장실을 많이 써요.

신: 뭐해요?

남 1: 그냥 거기서 놀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많이 놀고 그래요.

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다?

남 1: 네.

신: 그럼 이제 교실 화장실 운동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까 에어컨 얘기 나왔죠? 이렇게 중요하다. 만족한다. 또 다른 거... 이런거만 고쳐주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여 3: 전 급식...

신: 급식 어디... 반찬을 좀 많이?

여 3: 그래도 전보단 많이 나아졌는데요, 약간 가끔씩 위생상태가 좀...가끔씩...

신: 가끔씩? 그럼 급식의 위생상태가 아니면 급식 시설의 위생상태가...

여 3: 급식실은 저희가 잘 들어가지 않으니깐 잘 모르구요, 급식 상태가 가끔씩 좀...

신: 어디서 먹어요?

여 2: 그냥 반에서 교실에서...

신: 가지고 와요? 누가?

여 2: 일하시는데... 따로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급식 넣고 왔다갔다 하는거.

신: 좋다. 그럼 급식실로 따로 안 가도 되네요. 가야되는 학교도 있는데... (네)
그럼 급식실. 또 다른거? 아주 사소한 것도...

남 1: 정수기...

신: 정수기 없어요?

남 1: 있는데요, 컵을 안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은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잖아요. 아무래도 1회용 컵이 있으면...

신: 정수기가 어디에 있어요?

남 1: 층마다...

신: 층마다? 물 맛은 좋아요?

남 1: 네. (웃음)

여 2: 조금만 더 시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마실 때 마다 좀 달라요. 온도가.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시원해서 좋은데, 어떤 때는 되게 미지근해서 불쾌한 그런 때가 좀 있어요.

신: 그럼 개인 컵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네요? 그죠? (네) OO 컵 하나 사줄까? 부인 안 하네.(웃음) 그럼 하나 집에서 가져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두지 그걸?

남 1: 물통을 들고 와요.

신: 그 다음에 교실에 대해서만 얘기 해 봅시다. 교실이 넓었으면 좋겠다, 책걸상이 좀 그죠? 바꿨으면 좋겠다. 또 교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 2: 전 그거 있는게요. 겨울에 라디에이터가 그 사이에 애들이 쓰레기를 집어 넣어요, 그런데 틈 사이가 좁거든요. 그게 넘쳐나는데 치우는 걸 주변이 치워요. 그걸 학교를 청소할 때 거기도 청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게로 청소하고 하는 데 잘 안 나오고... 더럽고 또 먼지가 커커이 쌓여 있고 너무 그래요.

신: 청소

여 2: 겨울엔 또 너무 뜨거운데, 저 쪽.. 에 있는 애들은 춥고요 또. 여기저기 난로를 놓으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한곳에만 모여 있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애들이 앉지도 못하고 뭘 놓지도 못하고 엉겨주춤하게 앉아서...

신: 그 옆에 있는 학생은 너무 덥고 저 쪽은 너무 춥고 좀 불평등하게 되네. 그런게 불편하고 또 교실에 대해서... 지금 이동식 수업해요?

모두: 네.

신: 그럼 무슨 과목 할 때 이동해요? (수학...) 수학 영어? (수학만요) 수학만? 그럼 그 시간이 되면 그 교실로 이동하는 거예요?

모두: 네.

신: 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불만이 없네? 시설에 대해서? 음... 다들 학교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만족을 하고... 그럼 주변이나 다른 친구들은 어떤 학교에 있어요? A중학교는 없어요?

모두: S중학교는 있어요.

신: S중학교가 있군요. 가봤어요? 어때요 들어보면?

여 3: 별로 안 좋게 소문이 나서

신: 어떤 점이?

여 3: 일단 학업면에서 조금...

여 2: J중학교도 있는데... J중학교라고 남중 남고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여 3: 제 동생이 J중인데요. 그 거기는 후원이 되잖아요. 돈이 좀 되니까

신: 어디서요?

여 3: 삼성에서... 그러니까 아트예요. 잔디가 있고 J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진짜 아트예요.

너무 예뻐요 학교가. 잔디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불도 번쩍번쩍.

신: 여러분 시간 없어요. 빨리 먹어요. 이것 저것.... 평소에 잘 안 드시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였어요?

여 2: 고기 달걀찜...

신: 우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근데 왜 우리학교가 이렇게 시설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 2: 교장선생님의 관심과 뭐 그런 힘?

신: 그런 힘? 힘이 세요?

여 3: 뭔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신: 오, 어디서?

여 3: 그냥 다...

신: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여 3: 교감 선생님도...

신: 교감 선생님도?

여 3: 네.

여 2: 되게 여러 가지로 관심 많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주시고 우리학교에 대한 기대감이나 자존심이 되게 세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더 좋게 하시려고... 가끔씩은 우리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신: 오, 어떻게 부담이 되는데요?

여 2: 솔직히 말해도 되요?

신: 내가 미리 얘기 안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절대 공개 안 해요. 어떤데?

여 2: 장난이구요, 아니 장난 아니구요.

신: 장난하면 안 되지. (웃음)

여 2: 부담 준다는 게 너무 싫다는 게 아니라, 요즘도 사교육 없는 학교 이래서 저희에게 방과 후 학교 이런 거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 데 솔직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죠. 사교육에도 약간 의존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다 끊고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시니까 가끔씩 그게 저는 그게 될까하는 의문이 있어요.

신: 아, 근데 청소 여러분이 하세요? (교실..) 교실만? (복도..) 복도. 누가 하는데 매일?

남 1: 주변이나 청소당번

신: 화장실은 여러분이 안하고? (네) 오, 그러면은 여기 현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조형물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잘 보존 되어 있는데, 낙서도 안하고 깨끗하고. 원래 이렇게 깨끗해요?

남 3: 그거 다 청소해서 그런거예요. (웃음)

신: 누가 청소했는데요?

남 3: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담임선생님들도 애들한테 자기 반 벽은 다 닦게 시키시니까.

여 3: 페인트 칠도 새로 했어요.

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3학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학년들도. 내가 2학년 때 1학년 때 친구들이나 나나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남학생들은 문도 좀 차고 그런다면서요.

여 2: 막 박살나고...

신: 교실 문 화장실 문 이런걸 뭐 빨리 열기 위해서...

남 2: 그렇진 않아요.

여 3: 진짜 그래요.

신: 여긴 그렇다고 하고 여긴 아니라고 하고...

남 2: 여긴 미닫이 문이잖아요. 문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장난치는 애들만치고 나머지는 다 얌전히...

신: 그런데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낙서해 본적 있어요? (네, 웃음) 오, 솔직하다. 그럼 어디다가?

여 2,3: 벽에...

신: 벽에? 벽 어디 교실? 누구야 사랑해 이런거? 답 내일 시험 답은 뭐다 이런거?

여 3: 어, 답 같은 거 그런 거. 커닝하는 거...

신: 공식 이런 거? 내일 거기 안 앉으면 어떡해.

여 3: 아, 그러니까 중간 기말 때는 큰일 나고요. 그냥 좀 자잘한 시험들... 미리 답 달아서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몰라요.

신: 지금 다들 반응이 야 이런 걸 말하면 어떡해... 무사하고 싶어? 이러네.
 음. 학교 밖에서 건물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여 1: 아담해요

신: 아담해요? 작아서?

여 1: 오른쪽에 다 붙어 있어서. 운동장도 다른 학교보다 좀 작고.

신: 실제로 체육 시간도 운동장에서 하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디자이너나 교육부 장관이나 누구든지 학교에 이런 투자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꿔 주고 이런 걸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그런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여 3: 시설이 꼭 아니어도 되요?

신: 그럼요?

여 3: 그럼 좀 교육 제도 좀... 진심으로 어 너무 뭐랄까. 제가 외국을 한 잠깐 2개월, 3개월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완전 좀 다르구나 느낀게,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학교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인재를 기를 때, 한 분야에 특출난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애가 미술에 되게 천재적인데 애가 수학을 못하면 그냥 못하는 애로 전락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목고 뽑을 때도 전과목 이런거 보지 말고 그냥 그 분야에 관련된 어떤 학생의 자질 이런 것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신: 어이구, 성00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웃음)
 너무나 거대한 얘기를 해주셔서가지고 다시 소재를 좁히겠습니다. 학교 환경으로. 우리가 교육 제도를 바꿔 달랬잖아요. 그럼 조명은 어때요? 교실에서는? 괜찮아요?

모두: 네.

신: 다 잘 보여요? 음. 칠판도 좋고? 그 다음에 공기는 어때요? 여기 특히 공기가 좋던데. 아니 일원역 나오니까 여기 공기가 다르던데.

남 3: 여기 산이 있어서

신: 그럼 교실에서의 공기도 괜찮아요? 소음은 어때요? 소음 없어요?

여 2: 네. 거의 없어요.

신: 옆 반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여 2: 가끔 선생님들 마이크 쓰셔서 들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신: 괜찮아요? 마이크 쓰시는 선생님들하고 안 쓰시는 선생님들 있죠? 어떻게 좋아요?

여 2: 안 쓰는거.

신: 어, 왜?

여 2: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자신의 목소리가 크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마이크를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시끄러운데 소리가 크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신: 그럼 선생님들이 마이크를 왜 쓰시는 것 같아요?

여 3: 애들 주목하라고... 선생님들도 목이 아프시니까...

신: 이제 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더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마치는 시간이예요? 50분?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교사 인터뷰

날짜: 2009. 8. 26

장소: 회의실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이00), 남2(신00), 여1(백00), 여2(이00)

여 1: 네, 무엇보다도 깨끗이 리모델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시설 관리 같아요. 근데 우리학교는 정말 청소하시는 그 분이 계세요. 새벽에 이미 일곱시쯤 오셔서 이미 늘 너무 깨끗이 청소를 하고 관리가 잘 디니까 애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 너무 잘 되요. 그게 그래서 그 분이 새벽에도 근무하시고 또 밤에도 근무하시고 아무튼지 간에 전교 화장실을 모두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신: 다른 중학교도 그런가요? 학교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여 1: 학교마다 차이가 있죠. 아마 인근에서 화장실은 아무래도 제일 첨단인걸로 알고 있고요.

남 2: 그 청소 문제를 전부 예산을 사실 용역을 주라고 그랬었어요. 용역을 주다보니까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화장실을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는거야. 바닥이 깨끗한데 그것은 매일 이게,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이 와서 보니까 한 달이 됐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하셨었어요. 이게 안 되는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돈을 주고 했지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하니까 우리가 일과 중에는 자꾸 지저분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막 시키매지고, 그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항상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버리고 싶어도 좀 못 버리는 거죠.

여 1: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잖아요. 늘 깨끗하게 관리가 되니까 뭘 허투루 어찌할 수가 없는거예요. 휴지도 함부로 이렇게 못하고, 관리 자체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청결한 수준을 유지하는 기본 힘인 것 같아요. 이미 뭐 지어진지는 꽤 되어가고 있는데, 1년 넘었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걸 보면 그 청소 담당분이 거의 학교 기사님 같으세요. 늘 자주자주 하시고...

신: 그러면 화장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학교 시설이나 환경 이런 것을 통틀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개선도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되시는지...

남 2: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화장실도 다 됐고, 사실은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애들이 애들 수준에 자기 집에서 보던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건 좋아졌는데, 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제 개선 사업은 창틀 공사가 제일 문제인데 창틀이 너무 낡아가지고.

여 1: 화장실하고 그 다음이 애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학교가 좁잖아요. 급식 시설을 좀 원하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는 매일 이렇게 덤웨이터로 나르고 식어 있잖아요. 국 같은 게 따뜻해야 맛있는데 반찬들이 식어 있어서. 급식비가 사실 그렇게 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급식쪽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아무래도 아이들은 체육 좋아하잖아요. 저희 학교 부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체육과, 대강장이 있어요. 그게 축

원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강당, 지금 그 건축이 제일 지금으로선 시급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신: 교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1: 하하. 교실도

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남 2: 교실은 냉난방 다 되잖아요. 전교는 빔프로젝터 다 설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어요.

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에 별...?

남 2: 문제가 없어요.

여 1: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실도 이미 개선 사업을 마쳤어요. 앞에 칠판도 화이트 보드로 이미 교체 끝났고요. 뒤 칠판도 이미 게시물도 다 바꿨고, 양쪽에 캐비닛형 광장히 대형 그 청소함과 사물함 있어요. 그게 모두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더 이상 개선할 곳은 아이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뭐...

신: 선생님들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교사들에게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내가 편리하게 일을 하고 하기에, 공간 문제나,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러한 연구가 있었어요. 어떤 교수가 세 학교를 비교를 했어요. 한 학교는 리모델링, 한 학교는 리모델링하면서 증축을 했고, 영국 건물이 낡았잖아요. 이렇게 하고, A, B, C 학교는 새로 만든 새로 지은 건물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나 태도 이런 것을 다 조사해봤더니, 이 순서예요. C학교가 제일 좋았대요.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 자아 관념이 더 긍정적이고, 그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선생님들은 C학교 선생님들이 공간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많았어요. 일이 많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는 자기 공간에 대한 문제하고 학생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선생님들은 계속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이 뭘 원하나를 계속 주기만하고 있죠. 근데 실제 교사의 퍼포먼스라든지 수행, 학업, 티칭에 대한 그런 것이 개선되려면, 교사가 자기 공간에서 만족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교사들의 시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데는 Open Space를 좋아하잖아요. 유리로 다 보이게 그렇게 선생님들도 다 체크를 했어요. 개방 공간이 좋다. 넓은 공간이 좋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개인적인 그런 공간을 갖고 싶다. 그럼 내가 이런걸 다 포기하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다른 나라는 국제 비교연구 해놓고 그러거든요. 국내에서는 아직 교사들이 자리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있어요.

여 1: 과목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잉글리쉬존, 어떤...

여 2: 영어교과실이 있는데, 수업이 이제 수준별 이동수업 때문에 항상 그 세 반이 네 수준으로 나뉘어지니까 교과실이 필요하고 또 원어민 수업도 거기서 하니까 제가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그 관련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 교실이 진짜 좋은데.

그 교과실도 만약에 그러니까 외국처럼 선생님이 상주하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입장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교재, 교구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컴퓨터가 잘 되어있어서, CD만 들고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아직

도 그 CD플레이어를 들고 가야하고, 또 여기는 뭐 들고 하다보면 또 하나둘씩 흘러고 가기도 하고 또 보여주고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만약에 제가 상주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반마다 항상 진도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반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데, 그거를 이제 체계화 하기가 힘든데 이제 거기에 누적되어 있고 이러면,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작할 때부터 조직해서 그렇게...

신: 그러면, 교과교실이 있어도 선생님 자리는 따로 있으시죠. 교무실에?

여 2: 이제 영어교과실이라고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영어 선생님이 근무를 하거나 그 분이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은 있지만 담당을 하셔서 책임이 있으신 분은 있지만, 거기는 이제 시간이 되면 화서 수업을 하고 이제 가는 거지, 제가 거기서 이렇게 교무실에 있는 거고, 이렇게...

신: 그럼 선생님들은 어디서 계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학교 시설에서?

모두: (웃음)

남 2: 다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은.

신: 선생님은 컴퓨터실에 계시는 거고...

남 2: 저는 이제 컴퓨터 실에 있으면 뭐 이제 수업시간이 연속되면 거기서 쉬는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를 위해서는 또 이쪽에 오고 그래야 하니까. 교무실로. 그런거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과교실제가 되면은 아마 업무들도 있고 여긴 아마 중간에서,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어떤 중간에 이제 교사 사무실이 돼서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픈해서 유리로 딱 해 놓으면 애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 학교는 교과교실제가 아직 구성이 되어있지 않으니 까 서울시는 몇 개 학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가 한 걸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추진 방향이 그런거 같은데, 그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컴퓨터실에서 사니까 편찮은데, 다른 선생님들 입장도 봤을 때...

신: 그러면 특별한 교과목이 없는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계시다가?

남 2: 교무실에 본인 자리와, 강사처럼 교실을... 가는 거죠.

신: 교사 휴게실 이런거 있으세요?

여 1: 있지만

남 2: 휴식을 못해요.

여 2: 있다는 건 알아요.

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대왕중학교 뿐만 아니라 개선 사업을 떠나서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학생들한테. 우리도 중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 때 학교를 생각 해 봤을 때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교환경을 생각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이 환경이 애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좀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또 자녀들 있으면 얘기도 들어보시고 종합했을 때 물론 일반적으로 다 알죠. 근데, 환경이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남 2: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그래도 그 때 생활 수준은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런 학교 모습들이 거의 사실은 학교가 10년, 20년, 40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낡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20세기 21세기 이라는 데 학교는 19세기 그리고 거기서 물리적인 갭이 있잖아요.

아까 비근한 예로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집에서는 좌변기에 앉아서 여기 학교는 좁은 데서 그런 모습들도 애들한테는 뭐랄까 불만이라고 그럴까,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꼭 다 뭐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또 어느 정도 더 집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달란트가 있어야지만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 대왕중학생들은 특히나 학교를 더 편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 1: 애들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온화함, 어떤 예의바름, 또 겸손하고,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인드를 저절로 형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 들어 오시는 순간 놀랐어요. 일단 일원역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요, 너무 시원해요.

여 1: 네. 시원하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시설 교문도 사실은 김정으로 했다가 다시 뜯었어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검은 띠) 다시 그 띠를 뺐거든요. 일단 심미안도 좀 높아지겠죠. 보는 것 만큼 사실은 수준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업 하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울 경향도 줄어 들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밝잖아요.

이것도 교장선생님께서 학년별로 노랑, 하늘색, 연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철학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공사를 했고 학교 개선을 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시달린거나 이렇게 전혀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여기저기 다 이곳저곳에서 하시고, 관리자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호나경을...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애들이 마음이 이렇게 좀 평정심도 가질 것 같고, 이렇게 대든다거나 불손하거나 이렇게 조금 여기는 애들이 순한 것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애들이 순해지고 착해져가지고...

신: 선생님도 느끼세요?

여 1: 제가 지금 4년 째예요. 오던 해에 좀 심했고, 그 이듬해에도 좀 많이 학생부 사안이 언제나 장난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확 줄었죠. 이제는 없어요. 너무 좋은 거 같은 거예요. 설문조사 전후 그게 없어서 환경의 개선 탓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선생님은 5년 째 근무하고 저는 4년째 근무하는데, 근무하면서 해마다 해마다

네, 너무 좋아져서 최적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못 누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처음인데 일루 와서 어떡하죠?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맨날 비교되는 거야 ‘아이구 이랬는데~’

정말 칙칙하고 오만 불손 예의 없고 대들고 하는 애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청소년들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비효율적으로 다 똑같고 여기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애들이 부모 수준을 못 따라 가니까, 억압도 많고 이게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학교에 와서 ‘노(No)’ 하는 아이를 발견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신: 오히려 학교가 더 편안한 공간일 수도 있겠어요.

여 1: 선생님들 말씀하신 게 어떻게 1학기가 지나고 개학을 하니 애들이 더 순해졌대, 착해져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을 뚱그랗게 뜨고 다 집중하니깐. 아무도 떠드는 애도 없고 3학년은 그런데 다른 학년들은 어떤가 모르겠네, 1학년은 모르겠어. 제일 힘든 애들이 2,3학년인데 순해요.

신: 2,3학년 만났었거든요, 다들 너무 착해요. 진짜 눈빛도 그렇고 말도 잘하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데, 기본적인 태도가 긍정적인거죠.

여 1: 긍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졸업생들이 와서 개네가 간 고등학교가 후지다고(웃음) 그거 다 100년이 넘는 역사 아닙니까. K, S고등학교 5,60년이고 J도 보면 “여기가 좋았어요, 여기가 최고예요, 짱이에요” 화장실도 여기가 제일 좋고... 또 선생님들 가르치는 것도 여기가 너무 그림고 좋고 고등학교는 더 심하고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다가 화장실, 화장실이 꼭 나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인근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방문을 해보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예요. 정말 엄마로써 어떻게 뭐 페인트칠을 너무 안하고 바닥 이런데 청소를 안 해서, 막 발자국에, 소굴에 들어간 거 같네요. 애들이 막 쓰구요.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이만큼 날려있고 애들이 도대체 저도 거기 출장갔다가 꼭 참고 여기 왔거든요. 화장실 열어본 순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누구는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누구는 근데 저희 아이들도 그 학교에 불만이 폭발적으로 많았어요. 칙칙하고 컴컴하고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이런게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불만을 저희 대왕중학교는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다 취한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지금 제공을 받은 거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좋고 그러니까... 초점이 좀 어긋나네요.(웃음) (아니예요)

심미안 형성에도, 미적인 기준을 형성할 때도 알게 모르게 이게 뭐 좋다 느끼는 순간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을 누렸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참 불만을...

신: 더 힘들죠. 사실은

여 1: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네요.

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좋은 환경을 겪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성장하면서 자라서 이제 인재가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책을 펴고 할 때에는 정말 자기 수준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이 중요한 데, 전 그런 연구도 했었어요. 방과 후 학교도 하시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이라고 신경이 쓰이고...

여 1: 네, 아주 많이

남 2: 그래요. 많이 써요 (웃음)

신: 네, 그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겠다. 모든 선생님이 여기로 떨어지면 결국 학생들한테 가는 혜택은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굉장히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학교 깨끗하고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시설하고 이거 다 같이 가시는거죠. 저희가 예정한 시간이 세시부터 네 시까지였는데.

여 1: 체육선생님이 아주 발도 넓으시고, 대학마다 다 친구가 있어요. (웃음)

신: 드세요. 음료수 드시고

여 1: 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신: 더는 질문할거는 별로 없구요. 그 교사들을 위해 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의 변화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나... 나는 이런 것 좀 바뀌려면 근무하는데 진짜... 그런 것이...

남 2: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신: 뭐든지요.

남 2: 여기는 수업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 1: 네, 어렵게 없어요. 뭐 워낙 원하는게 있으면 다 사주세요. 복사기가 필요하다
고 했더니 육백만원짜리 사주셨거든요, 즉시

남 2: 올라갔어요? 설치했어요? 그거 오늘 아침에...

여 1: 있잖아요. 양면복사 있잖아요.(들어왔어요?) 그럼요. 말씀만 드리면 그건 뭐 건건
이 해결도 다 해주시고. 그게 우리학교는 뭐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시설이 필요한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남 2: 맞아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인제 만
약에 이쪽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부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체육관도 체육관
이고 급식소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 거 같고 사실 지금 여기 정말 교실에 있는 거,
창틀 같은 거 좀 낡아가지고 다 여기 열이 다 새는 거야. 그거 거기가 제가 봤는데
개선이 되어야 되요.

여 1: 마지막 남은 건 창틀 뿐인 거 같아요.

신: 만약에 다른 학교가 이런 시설 개조를 하고 싶다. 근데 경험이 없다. 그럼 어떻
게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이 계획을 추진해라.

여 1: 매일 매일 구경 오시잖아요.

신: 아. 많이 와요? 누가 많이 오시는데요?

여 1: 교장단들도 많이 오고, 서무실, 영어교과실이면 또 영어 선생님들, 일단 보신 다
음에.

신: 많이 귀찮으시겠다. 저도 좀 죄송했어요.

남 2: 그런 다음에는 의무죠 뭐. 애들한테도 같이 학교가 애들이 생활하는 주무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여 1: 우리도 가요. 도서실 새로운 데 있으면 또 가서 보고 참고하고요. 서로 윈윈이죠.
영어 교실도 여딘가 여러군데 많이 쓰다니다 왔죠. 우리도.
조금 작다는 게 단점이지만...

신: 그래서 그 과정에 관한 연구도 있어요. 영국에서는 건축가하고 인제 교사, 학생
해서 워크샵을 1차, 2차, 3차 계속하는 데...

여 1: 방문을 해보면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실무자로서
아쉬웠던 점은 꼭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 영어 English
Zone을 그 쪽 벽면에 롤 스크린도 동대문에 중학교인가 어디에서는 너무 내렸더니
어둡더라. 반쪽짜리에요. 이런 자문을 구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실무자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런 팁, 이런 걸 주시면 또 반응해서 참고하고.

신: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 참여를 하실 때 그 프로젝트 매니저, 총괄하시는 분이 누
구셨어요? 디자인 결정, 회의 주재자 이런거...

여 1: 언제나 교장선생님이죠. 캡틴 리 교장선생님.

신: 오, 그러면 최종적인 생각이나 디자인 이런 것도...

여 1: 네, 자문이나 이런 걸 많이 구하시고

신: 저기 그 건축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남 2: 디자이너는 별로 관여 안 해요. 디자이너는 우리가 요구한 조건대로 해주는 거
죠. 디자이너는 여기서 설계, 디자인... 개발을 하시는 거네요? 시공을 거기서 하시는
거네요.

신: 요구는 여기서 다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남 2: 일단 어떻게 하라는 거 딱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다가도
약간쯤 마음에 안 들면, 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거죠. 시공 중에서도 예를 들
면 애들 타일이 바닥이...

여 1: 애들 수준이 눈높이가 학교하고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데는 조금 유치하고 색깔도 좀 어둡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바뀌기도 하고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이렇게 이게 어떠냐 제시하시고 우리가 뭐 같이 고르기도 하고, 교문 디자인 고를 때에도 우리 만날 회의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해보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캡틴 리(웃음)가 아니시고 오케이리구나. 이메일 주소가 그래요. 늘 탁월하세요. 정보도 많으시고.

신: 그래서 직접 안내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남 2: 아, 지난주에 뭐 인터뷰인가 그때 오신 분들인가요?

여 1: 워낙 많아서 방송사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우리도 뭐 별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신: 맞아요. 아 정말 선생님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 1: 이거는 어떻게 자료를 활용하시죠?

신: 아, 이건 지금 2008년 사업이 5개고 있었잖아요. 그죠? 문광부 사업이. 밀양, 전주, 화성, 서울은 대왕이 제일 가까우니까 1차로 왔구요. 문광부도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반응이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반응은 다 알죠. 하지만 제 3자의 연구, 이건 관련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 이해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이야기, 설문 말고, 그래서 이 인터뷰는 중요한 거구요. 문광부가 점점 사업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 2: 좀 빨리 이 화장실 개선 사업이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여 1: 그렇죠. 그건 진짜 정부 차원에서 문광부도 그렇지만 교과부에서도 다 협력해야 해요. 열악한 학교에 화장실이 일단 들어서면요. 관리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낡았는데 화장실만 궁궐같거든요. 주변에 뜬어 고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게 되구요.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 수준이 주변에 맞게 바뀌지 않으면 오두막에 궁전 화장실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 온 거예요. 너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거의 그죠? 이게 그 덕이에요. 화장실이 시발점이었어요.

신: 대부분 이 펀딩을 염려하잖아요. 예산을. 근데 또 이게 다 방법이 있지요?

여 1: 노력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죠. 전화를,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도 여러 번을 하면 주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적극성이...

남 2: 지금 들어오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벽면에. 그거 보셨죠? 그것도 여러 번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더 받은 거예요. 관리자는 정말 그런 걸 해야하는 거 같아요. 이제 외부로 가서 어떻게든 이 자금을 끌어와서 환경을 좀 더 개선 하는 것 환경에 대해서. 그게 이제 관리자인 것 같아요.

여 1: 한 두번 거절한다고 해서 굴하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총동원 하시고...

신: 정리를 하자면 학교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관리자가 열심히 펀딩을 가져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좋은 모델을 가서 많이 보셔야 된다. 이번에 하신 것처럼 그죠? 그리고 학생을 참여시켜라. 그렇게 하면 조그마한 것도 시작하면 점점 좋아진다. 근데 시급한 것은 당장 화장실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 1: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정말 달려왔어요 여러 가지들. 도색 사업도 8월에 끝냈거든요.

남 2: 방과 후 학교도 있으니까 그때 비는 시간에 삭 칠했던 것 같아요.

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한시간만에 이야기를 다 끝냈지만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일선 학교에서도 그러면서 모델을 딱 주는 거에

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는 것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여 1: 저희학교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의원 이런 분들도 자주 오세요. 예산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다 지역사회와 유관하게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구요.

신: 근데 선생님들도 정말 대왕중학교 다우세요. (웃음) 너무너무

남 2: 아뇨, 저희들은 한계 없어요.

신: 무슨 이야기 나눌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여 1: 저희는 비디오로 찍는 줄 알고 너무 긴장을 했는데 안 찍으니까 안심이에요. 아,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1: 근데 이게 전국에 학교 후락한 화장실을 제 1번 과제로 해가지고 그 교육적 효과가 엄청나다고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더 궁금하거나 문의드릴 것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 화성 장명초등학교

(1) 학생 인터뷰

날짜: 2009. 9. 2
장소: 급식실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이00), 남2(김00), 남3(백00), 여1(윤00), 여2(김00), 여3(한00)

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서울에 동국대라고 있어요. 거기서 대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예요. 이름은 신나민이구요. 별명은 신라면이예요. 반가워요. 친구는 이름 뭐야?

남 1: 이호재요

신: 몇 학년?

남 1: 5학년 1반이요.

신: 다음 친구는?

남2: 저요? 4학년 김00.

신: 그 다음?

여 1: 5학년 김00이요.

신: 그 다음?

여 2: 6학년 윤00이요.

신: 그 다음?

남 3: 6학년 백00이요.

신: 그 다음?

여 3: 4학년 한00이요.

신: 만나서 반갑구요. 자 우리 여기 학교 이름 뭐죠?

모두: 장명초등학교요.

신: 우리 화장실이 바뀌었죠?

모두: 네.

신: 언제 바뀌었어요?

남 2: 세 네달 전.

신: 작년 아닌가?

여 3: 작년. 한 두달 전?

여 2: 다섯, 여섯달?

여 1: 올해...

신: 올해초?

여 1: 네.

신: 아, 그렇구나. 지금 옛날 화장실 기억해요?

모두: 네.

신: 생생하게?

모두: 네!

신: 어떤데?
남 1: 모기가 많았어요.
남 2: 그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썩은 꿀냄새.
신: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자. 화장실이 바뀌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OO부터 말해볼까?
남 1: 아, 재부터 해요.
신: 그래. 재부터 하자. OO요.
남 2: 화장실이 바뀌니까 편리하고 좋은데
신: 어떤 점이 편리한데요?
남 2: 음, 냄새 안 나고, 뭐 안 놀러도 되고.
신: 뭘 놀러요?
남 2: 놀러야 되잖아요. 발로 밟아야 되고.
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 2: 지금요?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데.
신: 아, 그래요? 남자화장실은.
여 2: 여자화장실도 되요.
신: OO은?
여 1: 어~ 되게 새롭게 바뀌어서 깨끗하구요. 예전에는 쭈구려 앉아서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앉아서 싸서 편리해요.
신: 그냥 앉아서 싸서 편리해요? (웃음) 또, OO이는?
여 2: 어, 화사해요. 느낌이요.
신: 맞아 맞아, 또?
여 2: 또 좀 더 편리해진 것 같구요. 또 새로 만 들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신: 음~ OO이는?
남 3: 어, 시설이 좋아졌고, 그리고 냄새 안 나는 거 그거 좋아요.
신: 어.. OO이?
여 3: 거기 색깔도 이쁘게 해놔서 좋아요. 그리고 편리해졌고
신: 음. 근데 화장실 바꿀 때, 화장실 너무 이쁘죠?
모두: 네.
신: 그 색깔도 이쁘죠? 그런거 색깔 누가 정했어요?
여 3: 디자이너
신: 디자이너가?
여 3: 네
신: 디자이너 봤어요?
남 1: 아니요.
신: 여러분은 무슨 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사람 있었어요?
남 2: 지금 있는 그대로...
신: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럴 때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색깔을 쓰면 좋겠는지?
남 1: 아니요.

남 2: 물어봤던가?

신: 투표 안 했어?

모두: 네

여 2: 그냥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분홍색, 근데 남자는 꼭 파란색이고 여자는 꼭 분홍색인 그런건 조금 안 좋아요. 저는 분홍색 보다는 파란색 같은 색깔이 좋아서...

신: 맞아요. 지금 여자화장실은 무슨 색이죠?

모두: 노란색이랑 주황색.

신: 노란색이랑 주황색. 남자화장실은? (파랑) 남자화장실 좋아요? 난 안 들어 가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디자인 하는 데 여러분한테 안 물어 봤구나? (네) 음 근데 지금 것은 마음에 들고 그죠? (네) 옛날 화장실은 지저분했던 그런 게 좀 있고, 지금은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근데 도서관하고 왜 English Zone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화장실 바꾸고 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여 1: 아니오, 같이 바뀐 것 같은데.

신: 또 어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장실 아니면 도서관?

남 1,2: 화장실, 화장실 (도서관)

여 2: 둘 다 중요하긴 한데요, 도서관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신: 왜?

여 2: 도서관은 요 책이 있으니까요 읽다보면 좋으니까, 화장실도 중요하긴 한데, 도서관이 더...

신: 그럼 돈이 조금밖에 없다. 화장실 하고 도서관 중에 어느 걸 바꿔야 되나 하면 뭘 바꿀래요?

여 2: 도서관. 화장실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책을 많이 읽는 애들하고 책을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 또 다른 의견, 화장실이 난 더 중요하다 하는 친구 (저요) 왜요?

남 2: 참다가 병 걸려요.

여 1: 도서관은 다른 사람이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빌려가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도서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 아, 그래요? 또? 00는?

남 1: 화장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왜?

남 1: 화장실을 안 고치면 냄새가 나고 모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 냄새하고 모기가 문제구나.

여 2: 지금도 모기 조금 있는데.

신: 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못 들어오시더라. 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학교 가봤어요? 장명초등학교 말고 다른 데?

모두: 네.

남 1: 많이 가봤어요. 안엔 안 들어 가 보고

신: 그 학교가 좋아요, 우리 학교가 좋아요?

모두: 저희 학교요.

신: 왜?

남 2: 운동장이 바뀌어서

신: 운동장이 어떤데?

남 1: 잔디구장.

남 2: 잔디구장이요? 음 방학하기 전쯤인가 운동장만 방학하기 전에 바뀌고 다른 곳은 방학하고...

신: 운동장이 좋아요?

남 2: 네.

신: 그럼 다른 학교 화장실 가봤어요?

남 2: 아니요.

신: 가본 사람 어땠어요?

여 2: 편리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

신: 어떤 학교?

여 2: J이랑요.

여 1: 저는 친척 때문에 성남에 있는 D초등학교 갔는데,

신: 성남에 있는 대왕 초등학교?

여 1: 네, 거기는 디자인이 애들하고 다 투표를 해서 색깔을 했나봐요. 그 여자 남자가 따로 되어 있는데 여자는 투표해서 노란색 하얀색으로 했고, 남자는 파란색하고 하늘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편리하고 그 복도도 다 넓고 가는 길에 의자도 있고 다른 학교도 편리하지만 우리 학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신: 왜요? 왜 우리학교가 좋아요?

여 1: 저희학교고. 저희학교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신: 어. 그렇죠. 학교가 점점 좋아지죠?

모두: 네.

신: 어,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이거는 한사람 씩 얘기해 보세요. 이 쪽부터 시작해서 학교시설이 바뀌어지니까 어땠다. 00부터?

여 3: 고마운 것 같아요. 시골학교니까 시골학교라서 더 좀 인구도 적고 하니까 도와주는 거 같아서 고마워요.

신: 음, 또?

여 3: 패스

신: 00은? 패스. 그럼 00은?

여 2: 더 아껴 써야겠다.

신: 뭘 더 아껴 써?

여 2: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요, 나오면요. 항상 물을 안 내리는 어떤 그런 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씩 안 좋아 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껴야겠다.

신: 맞아, 00은?

여 1: 저희를 위해 열심히 만들어주신 것도 고맙고 교장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데 저희를 위해 해주신 것이 고맙고 이걸 하면서 학교가 바뀌는 걸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신: 진짜로 공부가 잘돼요?

여 1: 네, 쪼끔

여 2: 집중이 잘 되던데...

신: 집중이 잘 돼서? 근데 공부가 시설이 좋아지면 집중이 더 잘되나 공부에?

여 2: 그거보다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신: 그렇죠. 지저분하면 산만해지죠.
 여 2: 책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보기도 좋고 꺼내 읽기도 편한데, 흠뜨려 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꺼내 읽기도 불편할 것 같아요.
 신: 또 00는? 패스? 00는? 패스? 지금 질문이 뭐냐면 학교 시설이 바뀌니까 자기가 드는 생각이 있잖아. 운동장이 짝 바뀌고 화장실도 바뀌고 도서관도 바뀌는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걸...
 남 1: 운동장이 바뀌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예전에 봉사할 때는 와서 놀지도 못 했는데 지금은 뛰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신: 음. 다치지도 않고. 00는 지금 학교가 옛날에 비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남 1: 그냥 잘 변하고 있어요.
 신: 그냥 잘 변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남 1: 네.
 신: 자기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가장 맘에 들었던 거는 뭐예요?
 남 1: 운동장!
 신: 운동장 또?
 남 1: 없어요.
 신: 운동장이 최고구나 (남자애들이니까) 오, 남자애들이 운동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 1: 축구를 재밌게 하니까...
 신: 또 여학생들한테는 어떤 공간이 제일 중요해요? (도서관) 왜요?
 여 2: 책읽기가 편하니까...
 여 1: 축구는 남자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공놀이를 하고 싶어도 같이하면 몸이 맞아서 아프니까 여자애들은 책 읽으러 교실까지 올라가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신: 아, 그래요? 그럼 여학생들은 점점 공부를 잘하겠네? 남학생들은 점점 더 축구를 잘하겠네. 저기 누구야 00 축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 책읽기 좋아해요?
 여 2: 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자기 마음 속으로만 생각해. 말하지 말고. 학교에서, 학교시설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해?
 남 1,2: 운동장. 운동장.
 여 1: 교실이요
 신: 왜 교실이야?
 여 1: 저희도 지금 쓰지만 저희가 어른이 돼서도 후배들 있으니까 후배들이 그걸 거기에서 교실을 쓰니까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 후배들이 교실을 쓰니까 아껴야 한다. 그 다음?
 여 2: 도서관이요.
 신: 도서관... 왜요?
 여 2: 책이 있으니까.
 신: 책이 있으니까? 00은?
 남 3: 도서관

신: 도서실? 왜요?
 남 3: 조용한 곳이 좋으니까.
 신: 네. 음 00은?
 여 3: 저도 도서실이요. 거기서요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책 많이 읽고요. 다음 다니는 학생들도 책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신: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내요? 학교 오면?
 남 2: 운동장.
 신: 응? (뽕! 교실교실) 교실이죠? 그러면 교실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 2: 바닥, 바닥이 나무라서 나사 못이 빠져나왔어요.
 신: 오, 그랬어요?
 남 2: 너무 오래돼서.
 여 2: 바닥이 나사못이 빠져 나왔어요. 5학년은 나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걸어 다녀도 걸려서 넘어져요.
 신: 걸려서 넘어진다. 또 바닥 말고 다른 곳은? 교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 2: 색깔이 산뜻했으면 좋겠어요.
 신: 색깔이? 지금은 무슨 색인데요?
 여 2: 갈색. 칙칙한 색. 거의 대부분이 갈색.
 신: 대부분 갈색? 나무색?
 모두: 네
 신: 그런데 무슨 색이면 좋겠어요?
 여 2: 파란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 여러 가지 색?
 여 2: 음. 여러 가지 색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신: 00은 무슨 색이었으면 좋겠어?
 여 3: 좀 밝은 색이요.
 신: 예를 들면?
 여 3: 노란색. 주황색
 신: 00은 교실이 무슨 색이면 좋겠어요?
 남 3: 노란색, 하얀색
 신: 노란색, 하얀색. 지금 있는 색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네)
 지금 있는 색. 이 색 비슷하죠?
 모두: 네
 신: 그리고 저기 다목적실 있잖아. 강당.
 모두: 네
 신: 거기도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모두: 갈색
 신: 갈색. 맘에 들어요?
 남 1: 거기는 괜찮은데
 신: 거기는 괜찮아요?
 여 2: 네. 가끔씩 왔다갔다 하는데니까...
 신: 아, 거기는 가끔씩 왔다갔다 갈색도 괜찮다...

남 1: 전 교실이 빨간색, 검은색이면 좋겠어요.
신: 어, 00는 교실이 빨간색 검은색이면 좋겠다 왜요?
남 1: 피랑 어둡
신: 피랑 어둡이니까?
남 1: 네.
신: 그 다음에 바닥 얘기 했고, 색깔 얘기했고, 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것만 바꿨으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거 같은 데 이런거.
남 1: 컴퓨터요.
신: 컴퓨터?
남 1: 새 걸로 같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신: 음. 교실에서 불편한 거 없어요?
여 1: 의자가 좀 책상은 높은데 의자가 좀 작은 것도 있어서...
신: 책상하고 의자하고 안 맞는 게 있다... 또?
여 2: 저도 책상하고 의자요.
신: 책상하고 의자. 다른 건 없어요?
여 3: 네. 저는 바닥하고 색깔만
신: 바닥하고 색깔만 바뀌었으면...
여 2: 칠판요.
신: 칠판이요?
여 2: 칠판이요. 다 분필로 쓰는 거잖아요. 이제 분필가루가 쌓일 거 아니에요. 닦아도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다 우리 입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걸로 좀 바뀌었으면...
신: 분필가루가 안 나는 걸로?
여 2: 네, 화이트보드.
신: 화이트보드 같은 걸로?
여 2: 네.
신: 운동장은 언제 사용해요. 체육시간?
모두: 네
신: 또?
남 2: 점심시간 그리고 아침 8시까지. 8시 30분까지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도 되요.
신: 아. 그 전에 와서 놀면 되네?
남 2: 네.
신: 00는 운동장 언제 가요?
남 1: 네? 아침 점심 끝날 때 체육시간
신: 수업마치고도 학교에 있다가 가요. 아니면 바로 가요?
모두: 있다가
신: 왜?
남 2: 학원 때문에, 학원 차 기다려요.
신: 아, 학원 차가 이리 와요?
남 2: 네. 토요일날에도 부모님 기다리고.
신: 여기 급식실은... 여기 와서 밥 먹죠?

모두: 네
신: 여기 좋아요?
모두: 네.
신: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리학교에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얘기했었나 아까?
여 1: 네, 있어요.
신: 여기가 제일 불편하다 이것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데가 있으면 얘기해봐. 뭐...
남 2: 교실 바닥
신: 또 교실?
여 1: 교실 바닥이요.
신: 덥고 춥고 그런건 괜찮고?
남 1: 네.
신: 겨울에 안 추워요?
남 2: 추워요.
남 2: 나가서 뛰어 놀다 와서 땀도 나고...
신: 여름에는 안 더워요?
여 2: 더우면...
남 1: 선풍기 같은거 틀면
신: 선풍기 틀면 되고 에어컨 있어요? 교실에?
모두: 네
신: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또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외친다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해줄까 이런거.. 없어요?
남 2: 교실바닥 바꾸는 거밖에
여 2: 그게 소원이예요.
신: 그래요. 이제 교실로 가도 될 거 같아요. 고마워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신: 음. 수고 많았어~ 고마워~

(2) 교사 인터뷰

날짜: 2009. 9. 2

장소: 급식실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이00), 남2(조00), 남3(교무부장), 여1(남00), 여2(한00)

신: 정말 너무 예뻐요. 학교가.

남 3: 아이들이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후로 한 번도 안 물어 봤거든요. 솔직히.

신: 너무 좋아하구요. 시설이 좋아야 하는 이유까지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거 하실 때 디자인이나 색깔을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여 1: 어학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어졌다는 학교들 중에서 괜찮은 곳을 이렇게 다른 교직원선생님들께 여쭙봤지요. 그래서 좋다는 데 있으면 사진 탐방했어요. 어학실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6개 학교를 탐방했어요.

신: 주로 어디로...?

여 1: 수원, 화성, 이런 곳을...

신: 수원에도 이쁜 학교가 많더라고요.

여 1: 그렇죠.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규모도 틀리니까.

신: 그런데 각각 이렇게 한꺼번에 하신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하고, 다른 건물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 1: 그러게요 그게 요즘 트렌트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가?

신: 그러면 화장실 고칠 때에는 전문 디자이너가 와서 했나요?

여 1: 화장실이요?

남 1: 와서 설계 같은 건 다 해오고 타일 같은 것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했던 것 같아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신: 거기 그런 거 누가 여쭙보던가요? 디자이너가요?

여 1: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렇구요. 어학실 같은 경우에는 어학실에 디자인을 맡았던 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면 그 중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심사 자료는 저희가 먼저 이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해서 좀 샘플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리기도 하고 다른 학교 사진 찍어 오기도 하고...

신: 화장실 대조할 때에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위치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되게 큰 거 같아요.

여 1: 화장실 때에는 크게 저희가 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 아이고, 지금 인사도 드리지도 않고 지금 벌써 (웃음) 질문 들어갔는데, 남자 선생님 한 분 안 오시나요?

여 2: 오실건데.

여 1: 원래 빠르신 분인데,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여 2: 부장님 가신 거 아냐?

여 1: 부장님이 찾으러 갔어요.

신: 그냥 오세요.

여 2: 아~ 지금 화장실 한 데 그 쪽에서 오신게 아니세요?

신: 예.

여 2: 판데서 오신 거구나~ 아~

여 1: 저희는 문화화장실 해주신데... 이쪽에서 오신 줄 알아서요.

신: 아, 맞아요. 실제로는. 이 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신나민 교수라고 하구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전국에 다섯 개 학교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나서 여기서 이제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 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저한테 연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이나 효과 이런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문이나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해주시고 보니까,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었던 것, 디자인을 어떻게 결정됐는가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대략의 샘플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그죠. 그 중에 선생님들이 이게 좋겠다 그렇게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고...

여 1: 그런데 저희 문화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거의 믿고 그냥 하시는 대로 그런 절차대로 맡겼거든요. 다른 부분 할 때에 비해서.

신: 그런데 화장실이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남 2: 일단은 되게 편리해졌죠. 그 전에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남녀로 있잖아요. 1층, 2층? 그런데 예전에는 남자화장실은 2층, 여자화장실은 1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애들이나 화장실에 가려면 여학생들은 1층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1층에 있는 애들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화장실 자체도 되게 뭐랄까, 옛날에 있잖아요. 그 양변기 그거니까 좁았어요. 장난이 아니었었죠. 그러다보니까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엄청 불결했어요.

신: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 학교를 보니까.

남 2: 옛날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니까. (웃음)

여 1: 그리고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 2: 저 화장실 잘 못 갔어요. 가려면 특히 요맘때쯤 되면 모기가 이렇게 화장실 문을 열면 열 마리도 더 벽에 앉아있는 거 떠다니는 거 이렇게 합쳐서 한 열 마리 너무 많은거예요. 그래서 몇 번 들어가려다가 말고 그냥 나온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학교 중에서 제일 불편했던 곳이 화장실인거 같아요.

남 2: 상상이 안가시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딱 왔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거예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신: 화장실이 없어서 좀 불편하셨겠어요.

남 2: 그렇죠. 그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은 이제 없거든요. 왜냐하면 장소가 안 나오니까 별수 없이.

여 1: 그리고 선생님들 숫자가 너무 적어서 화장실을 따로 만든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발상이고요.

신: 학생수도 적고...

남 2: 그다지 교사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남 1: 처음엔 만들려고 했었어요. 여기에다가. 남자여자 합쳐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돈을 차라리 탄 데에다 쓰자고 그래가지고 저 휴게실로 만들었죠.

신: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것이 애들도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고 또 관찰하기에 옛날에 비해서 뭐 어떤 행동의 변화나 뭐...

남 2: 애들이 뭐 청결해졌죠. 화장실 그 세면대 자체도 원래 하나였었어요. 이제 두 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 손 씻는 것도 자주하게 되고 아무래도 화장실이 청결하니까 애들이 자기 위생관리 차원에서 정말 깨끗이 쓰게 되고, 화장실 자체를 깨끗이 쓰니까, 자기들도 깨끗이 쓰려고 노력하고...

신: 지금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시나요?

남 2: 관리하시는 용역을 뒤편 하고 있습니다.

신: 그 휴지도 있는 것을 항상 갈아 주시나요?

남 2: 예. 항상 기사님이나, 떨어지면 관리하시는 분이, 용역, 저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매일 교체 해주세요.

신: 연구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맨 처음에 서울에 있는 대왕중학교에 갔었거든요. 거기보다 더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감사합니다.) 천장도 그렇고, 타일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야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여 1: 저는 이제 1학년을 지도 했었는데, 모기가 많으니까 애들 화장실 간다 하면은 따라가는 게 일이었어요. 에프킬라로 이렇게 짹 한번 해줘야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게 안심이 되고 선생님이 같이 가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했었죠.

신: 화장실이 바뀌고 나서 모기가 많이 줄었나요?

여 2: 모기 없는 거 같던데. 화장실에 모기가 없더라고요.

남 2: 가끔 있어요. (웃음)

신: 아까 보니까 교장선생님 요 밖에서 못 들어 오시던데요. 문을 열면 모기가 안으로 들어 온다고.

남 1: 이 쪽에 많아요. 화장실이 예전에 이 쪽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그 정화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모기도 막 뽕뽕 뚫리고 잠귀어서 여자 애들이 특히 그랬거든요.

남 2: 그런데 급식실 만들면서 문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모기들이 못 들어 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놔는데 내년쯤 되면 방충망을 하나 더 하게 되면 좋겠지요.

신: 모기와와의 전쟁이구나. 특히 여름에 더 그렇겠어요.

남 1: 시골지역이라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파리, 모기 벌레들...

여 1: 같이 살아야죠.

신: 근데 저기 왜 화장실 외에도 1,2층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도서실하고 뭐, English Zone, 과학실, 다목적실 다 보고 최신시설이 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바뀌었죠?

여 2: 네. 그렇죠. 처음에 강당, 다목적실부터 시작해서.

남 1: 최근에 다 이렇게 일어섰죠.

남 2: 2년 안에.

신: 그런 지원을 다 어디서...

남 2: 화성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죠.

여 2: 화성시하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많죠. 화성시에서 소규모 농촌학교라고 해서 여섯, 일곱개 학교가 있어요.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학교. 그런데 폐교 위기가 되니까 이걸 살리고자 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지원금을 굉장히 많

이 왔어요. 그 지원금이 계속 이렇게...

신: 그러면 학부모들의 반응이나 만족도 이런 것 보셨어요?

남 2: 저희가 2008년도에 그 연구학교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농어촌으로 해서. 설문조사로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신: 아, 설문조사 하셨어요?

남 2: 2008년도 연구학교 보고회를 했으니깐요. 거의 보면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

신: 학부모들이?

남 2: 네.

신: 그런데 학교가 폐교가 안 되려면 계속 여기 학교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아니면 대안이 어디가 있나요 다른 데 보낼 수가 있나요?

여 2: 인근에 큰 학교 있죠. 시내 쪽.

여 1: 거리가 이제 거기가 조금 더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제 학생 수나 시설 면에서 월등히 좋다면 이제 그 쪽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계속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신: 그런데 현재 학부모님들이 학교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 학교를 오시고 하세요?

여 1: 오시죠. 운영위원님들은 학교 행사 있을 때마다 오시고. 학교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시죠.

남 1: 그럼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변화해 오는걸 보셨죠.

신: 그런 면에서 이제 애착을 가지고 더 보내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잊혀지세요? 그런 건 잘 모르시나?

여 1: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히 좋아지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이건 좀 시설과 별개의 애긴데, 교육 내용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사교육 같은 것, 또 이런 학원 같은 게 있으니깐 근데 시내 쪽에 큰 학교는 학원을 보내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인근에 학원이 없어서 방과 후 활동을 아이들이 거의 오후 전체 내내 7,8교시까지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통학 버스도 있으니깐 타고 다니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시설과는 좀 별개이지만...

신: 맞아요. 교육과정 교육내용도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시설이 좋아지니까 애들이 학교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잖아요.

여 1: 네. 그게 서로 상승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신: 근데 재밌는 게 남학생들은 운동장 좋아진 게 제일 좋대요. (그럼요. 웃음) 축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운동장이 좋고, 여학생들은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생활하시기에? 휴게실도 생기고 그랬던데...

남 1: 좋죠. 애들하고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도서실 없을 때에는 애들 책 읽으라고 하면 교실에서 애들이 좀 싫어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신: 그러면 선생님은 주로 교실에서 생활하세요?

모두: 네. 그렇죠.

신: 그래서 시설 변화 이후에 특별히 내 생활에 변화된 점 이런거 없으세요?

여 2: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전 진짜 화장실을 잘 못 갔어요. 근데 그 바뀌고 나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자주 이용해야 되는 곳이고.

신: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네)

편하게 이렇게... 휴게실도 생겼던데, 자주 이용하세요?

여 1: 휴게실은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남 2: 마무리도 뭐 자질구레한 거 뭐 하네요. 다음 주면 휴게실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여 1: 아직 휴게실 사용 단계는 아니에요.

여 2: 별로 쓸 일은 없을 거 같아요. 교실에서 작업들 하시기 때문에...

신: 이렇게 유치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대구에서 펀딩도 받아 오시고 가끔씩 선생님들이 그런 건의도 하세요? 학교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 2: 그죠.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회의시간에 할 때도 있는데, 밖에서도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다니실 때. 그러면 시설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죠.

신: 그럼 이제 뭐 거의 다 완공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남 2: 근데 이제 남은 건 교실 내부 공사해야 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2층이나, 1층에 몇 교실은 좀 바닥이 오래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 같은 것도 정돈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건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올해는 당장 못하죠. 인조잔디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쯤에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 그러니까 남은 건 교실바닥...

남 2: 칠판하고 문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 1: 미닫이 문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 거의 이용 안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소리가 커요. ‘드르륵’ 하면서 그래서 일반교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연구실 같은 경우는 선생님 계신 데 문 ‘드르륵’ 소리가 나면 너무 커서 굉장히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신: 교실문, 칠판, 바닥... 아무래도 교실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선생님들도. 근데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못 봐서 그런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녹지가 있고, 공기가 좋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들은 그런거 모르시나요?(웃음) 매일 생활하시면?

여 1: 좋아요. 그런데 매일 좋은 데에 있으면 특별히 좋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신: 다른 학교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남 1: 삭막한 도시보다는 좀 낫죠.

남 2: 녹지 이런게 있는 것은 좀 좋은데, 주변이 학교답지 못한 그런 환경이 좀 있잖아요. 여기가 민가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뺑 뚫려서 행하니까.

신: 그래서 저희가 찾아올 때 도대체 학교 가는 길이 일단...

남 2: 보통 학교들 있으면 주변에 마을 모여 있고 민가들이 모여 있는데, 농촌학교들은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장명만 화성시내에서 유일할 겁니다. 딱 오면 다 뺑 뚫려 있죠. 운동장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신: 보통 어느 정도 계신가요? 학교에?

여 2: 길면 5년? 짧으면 2년 정도 있고요.

남 2: 거의 여기는 만기 채워서 나가는 분위기니까요.

신: 예. 그러면은 근무하시기에 좋다는 거네요? (웃음)

남 2: 그것도 그렇고 여기는 아무래도 농촌학교의 특성상 그런 어떤 승진 가산점도 있고 하니까...

여 1: 환경이 좋아서 오래 있는 것 하고는 좀 다르니까...

여 2: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여 1: 그런데 이제 도시 학교는 가까운 데, 편한 데 이런 곳을 많이 찾아가시는데, 여

기는 지역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남 2: 서울에서 일부로 오니까요 시골을.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것을 참고.

신: 그러면 주변 초등학교나 J초등학교 쪽, 여기 초등학교들을 비교했을 때, 장명초등학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남 2: 저는 시설면에서는 다른 학교에 뒤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편이에요.

신: 좋은 거 아니에요?

남 1: 인원도 적고 하니까 시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남 2: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중학교는 그 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게 이제 00쪽으로 중학교를 다 보내니까 거의 고학년 쯤 되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이나 학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 근데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을 협의한다고 말씀 하셨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 같으세요? 왜냐하면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연두색, 노란색, 갈색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미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결정을 누가 이제 해야 돼잖아요.

남 2: 그건 이제 교장선생님이 하시는거요.

여 1: 교장선생님, 관리자가 하시는거죠.

남 1: 근데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세요.

여 2: 대부분이 좋다는 것을 하는 데, 이제 그게 비슷할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신: 그리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센스가 좀 있으시네.

남 2: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하셨어요. 이거하고 이제 본인이 살을 붙이신거죠. 이걸 또 어쩌냐 선생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의견을 한번 또 보여주시고.

신: 초등학교 교직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이 질적으로 이런 것을 떠나서 시설이 좋아진 것 하고 애들이 학업이나 행동이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걸 양적으로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의 마음에는 한분 씩 다 말씀해 주세요.

여 2: 화장실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학실이나 도서실의 경우에는 일단 어학실이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에는 아이들이 일단 오고 싶어 하고 책 읽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잠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색깔이라든지 이전에 비해서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배워지는 게 있겠죠. 미적으로 이런 것은. 그런데 거기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니까 정기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학실의 경우에는 많이 느꼈어요.

신: 선생님은 몇 학년...?

여 2: 아, 저는 영어 전담교사.

신: 아, 그래서 어학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구나(웃음) 성함이?

여 2: 남00입니다.

신: 남00영선생님. 답임은 그럼 안 맡으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은 성함이...?

남 2: 조00입니다.

신: 몇 학년...?

남 2: 1학년입니다.

신: 어우, 힘드시겠네.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남 2: 저는 시설적인 어떤 투자가 교육적인 어떤 여건이 좋아지는 게 학습수준하고는 연관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무래도 주변의 그런 시설이 좋게 되면 학교에 오고 싶어 하고 도서실이나 여학실 같은 경우도 구축되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학습의욕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력적인 면도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교실이나 이런 새로 지은 학교들 보다는. 근데 충분히 여기 교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교장 선생님이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으셨을테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교실 자체에도 아마 전반적인 바닥이나 칠판이나 하는 것들을 세팅해가지고 좋게 환경을 꾸며주게 되면 아이들도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이 깨끗하면 아무래도 본인도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학업성취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 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이 낙후된 학교는 만약에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성함이...?

남 1: 저는 4학년 이00입니다.

신: 예, 이00 선생님.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꼭 이 학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의 시설 전반하고 학생들의 그 행동, 꼭 성적이 아니라도 공부가 아니라도... 어떠신지.

남 1: 전체적인 학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생김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학실이나 특정 도서실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애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새 건물이고 새 교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애들이 생활하면서도 깨끗이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 아, 예전에 비해서 좀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으세요?

남 1: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 왜냐하면 제가 전에 중학생들을 인터뷰 했을 때에는 예전엔 화장실 문 발로 차고 낙서 하고 하잖아요. 발바닥 자국도 있고 한데,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안 그러잖아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그런 변화들을 선생님들이 느끼시는지를 말씀해주세요. 선생님은....?

여 2: 예, 저는 5학년 한00이고요. (네)

저는 이런 시설면이 초기 적응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도시에 오래 있다가 왔는데, 1학년. 이제 새로운 학교 오래된 학교 이렇게 다니잖아요. 좀 시설이 낡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1학년에 초기에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는 애들 많아요. 특히 이렇게 변기가 양변기가 아니고 예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는 그런 변기를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적응 잘 못하고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봐서 애들은 학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도서실 같은 경우를 보면 신기하고, 책도 많고, 보고 싶고, 학교 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여 1: 작년에 저희 반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3월에 바지에 몇 번.

여 2: 그러니까요

신: 바지에?

여 1: 못 가는 거예요. 집에서 쓰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앉는 것을 못 앉아서.

여 2: 그러니까 화장실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애가 학교 오고 싶겠어요? 화장실 못가서 바지에 용변을 봐야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시설이 바뀌면서 그런 문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남는 시간에 책도 보고 즐겁고 좋은 거 같아요. 시설이 좋아지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신: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는 않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실이 좋아져야 된다. 선생님들 의견하고 똑같았어요.

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나무못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다음은 색깔이다. 그 다음은... (웃음) 정말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남 2: 아무래도 애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느끼는 게 교실적인 측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이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좋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소규모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동네 영어학원가면 영어 잘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교실에 이렇게 아담하게 아니면 멋있게. 전자칠판도 탁 이렇게 연수원 분위기 나게. 아니 뭐 바닥에서도 공부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좋겠죠. 근데 또 해줄 돈이 없으니까...

신: 그럼 정말 귀한 시간들을 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시설 변화나 개선을 하고 싶은 농어촌 학교가 있다면, 이런 것을 못하고 있으면 저희가 다다음주는 밀양까지 가거든요. 영주도 가고 그런 학교들에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시설 변화를 하고 싶으면 이것을 해야한다. 아니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여 2: 시설 고치는 데 있어서...

신: 아니, 전반적으로 다 시설을 고치고 싶으면

남 2: 음... 그럼 질문의 요지를...

신: 그러면 그냥 디자인이나 이런 것으로 축소를 합시다. 어떻게 바꾸는 게...

남 2: 그런데 디자인도 그렇지만 가장 아니 시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해요.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봐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마다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은 그걸 알아요.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주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무래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시고 결정권을 갖고 계시고 운영 위원장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또 교육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생님들과 아동들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견을 먼저 구하고 (그렇죠) 그럼 다른 것은 또...

남 2: 만약에 하시려면 조금조금씩 뭘 주시지 마시고 한 군데에 올인해 주셔야 돼요. (한 학교에?) 한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려면 제대로... (지원하려면 제대로) 여러 군데를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왜냐하면 한학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 2: 그러니까 저희 뭐 현실도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으로 한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도서실하고 어학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뭐 상승효과도 나고 또 저희들도 만족도도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화장실...도서실을...) 다 같이 한거예요.

남 1: 돈 따올 때는 좀 모자랐었던 걸로 아는데...

신: 이 사업이 다 문광부 지원이에요?

여 2: 아니요. 화장실에서도 그 일부.

여 1: 문광부에서만 지원한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다른 지원금이 합해져서 된걸로 알고 있죠.

남 1: 시기가 어떻게 딱 맞았어요.

여 1: 문광부에서는 4천만원 정도밖에 안 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 우연히 시기가 이렇게 맞은 거네요. 그죠? 아니면 같은 디자이너가 한 것도 아니죠?

여 2: 도서실하고 어학실은 같이 한 것 같아요.

남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기가 맞은 거죠. 저희가 신청했던 시기하고 화장실하고.

여 2: 그런데 그게 이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또 있어서 저희 교무부장님이 또 신청을 해서 같이 하신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하면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사실 문광부에서 지원해준 돈 만으로는 시설하기는 좀 모자라거든요.

신: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좀 제대로... (웃음)

남 2: 그렇죠. 얼마 안 주고 솔직히 생색내기도 아니고 차라리 조금조금해서 실적 높일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주려면 다섯 개 학교면 두 개나 세 개 학교 선택해서 지원금을 몰아서 주는 게 그 학교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는 거죠.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신: 그럼 학생들 의견은 물어 보셨나요?

남 2: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어봤어요.

여 2: 네. 설문지 많이 하고

신: 그 때 어떤 내용을 주로 하셨나요?

남 2: 이제 비데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의견이 학부 모나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했죠.

신: 그러니까 의견이?

남 2: 설치하지말자.

신: 오, 의외다.

여 1: 관리적인 측면이 좀...

여 2: 그리고 그 때 비데에 관련된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었던 것 같아요.

신: 다행이다. (웃음) 안 그러면 하자고 해가지고...

여 2: 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비데 싫다고

신: 네,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좋은데.

남 1: 그런데 교사화장실이 있었으면 교사들은 오케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따로 없으니까 설치 해봤자 필요도 없고.

여 2: 난 안 했을거야.

신: 네, 그렇겠죠.(웃음) 선생님들도 식사 여기서 하세요?

여 2: 네, 같이.

신: 한00 선생님도 다 말씀하셨고...(네) 오늘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라는 게 잘 됐다 잘못됐다 아니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관리자들이 문광부에서도 지원을 해줄 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물어봐요.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제3자가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남 1: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것 꼭 전해 드리세요. 그거...

신: 예.예. 보고서에 꼭 써드리고 선생님들 성명이나 이런 것은 절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건 연구의 윤리로서 노출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 밀양 무안중학교

(1) 학생 인터뷰

날짜: 2009. 9. 21
장소: 음악실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권00), 남2(김00), 남3(이00), 여1(박00), 여2(김00), 여3(강00)

신: 어떻게 변화된 거 같아요?
남 1: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세련되게..
신: 깔끔하고 아름답게...세련되게...집은 어디에 있어요?
모두: 저 무안...무안
신: 다 무안 걸어 올 수 있어요?
모두: 네.
신: 얼마나 걸리는데요?
모두: 15분. 차 타면 10분..
신: 그런데 학교 너무 멋있다 서울에서도 가 보고...뭐... 저기... 비스켓 좀 드세요..
지금 2학년? 1학년 00. 아, 1학년...2학년은, 3학년은, 그러시구나..
나는 누구냐면.. 누군거 같아요? 뭐하는 사람인거 같아요?
남 1: 교수님..
신: 오, 어떻게 알아요?
남 1: 필이..하하하
신: 필이 아니면, 들었어? 선생님한테?
남 1: 못 들었어요. 찍었어요. 그냥 필이
신: 교사하고 교수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선생님하고...?
남 1: 교사는 학생한테 완전... 뭐라해야하지... 일대일로 잘 할 수 있지만 교수는 학생
한테 신경 안 쓰고 강의만 하면 끝..
신: 하하하 그래요?
남 1: (웃으면서)네. 그렇게 생각해요.
신: 동의 하세요? 하하하
학생한테는 신경 안 쓰고 강의만 하면 끝.. 이래서..지금 권00. 몇 학년?
남 1: 중 3학년
남 2: 3학년
남 3: 2학년
여 1: 3학년이요..
여 2: 3학년
신: 아, 그 다음에 박00 3학년, 강00 1학년.
나는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있구요. 여기에 온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 하셨겠
지만 작년에 학교가 많이 바뀌었지요. 화장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일부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0부터 바뀌니까 어떻더라, 솔직하게...

남 1: 학교가 좀 더 세련되어 보이고 좀 복잡했는데 깔끔해진거 같고요. 학습에도 많이
좀...

신: 어떻게 복잡했는데?

남 1: 예전에 자갈밭이었거든요

신: 음...음...

남 1: 저기가 원래 많이 복잡했어요.

신: 그러면 지금 학교 전반적이 변화에 대해에 이야기 해 준거죠. 00은 화장실에 구
체적으로 화장실이 바뀌니까. 자기가 3학년이니까 경험했잖아요. 예전 화장실하고 지
금 화장실...

남 2: 일단 1학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거기서 거기였는데... 2학년
때부터 냄새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학교 화장실 가면 깨끗하고 그러는데 우
리학교 화장실 가면 불쾌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3학년 되고 바뀌니까 기분도 좋아지
고 학습 능력도 올라가고...

신: 오, 그거 재미있네요. 화장실이 좋아졌는데 학습 능력 올라가고...

남 2: 볼 일을 편안하게 보니까요.

신: 맞아요. (웃음) 지금 화장실 마음에 들어요?

남 2: 진짜 마음에 들어요. 호텔 같아요.

신: 오, 맞아요. 정말 호텔 같아요. 내가 본 화장실 중에 제일 좋아요.
정말 무안 중학교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구나. 어때요? 이00는?

남 3: 저도 좋아요.

신: 어떤 점이?

남 3: 그전에 저도 1학년 때 화장실들이 좀 거의 다 부숴지고 그랬는데..뭐랄까 친구들
도 좋아하는거 같고...

신: 음... 예전에 화장실 같은데서 막 문을 발로 차고 그랬지 안았어요?

남 2: 더 심했죠. 휴지 물어 적서 던지고 그런데 요즘은 바꾸고 나니까 애들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 그러면 00는? 여학생 화장실 이쁘던데. 그 색깔은 누가 고른거예요?

여 1: 그 문에 색깔. 어, 교장선생님이...

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세련된 색깔을?

여 1: 예, 여자이니까. 정말 교장선생님이 고른거예요.

네. 교장선생님이요. 화장실 바꾸는 것도요. 제일 안 좋은 학교만 바꾸어준다고
그랬는데요. 교장선생님이 달려가 가지고 우리 학교 좀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남 2: 우리 학교 안 좋다고...(웃음)

여 1: 옛날에 완전 좁았거든요. 복도가 기다리는 것도 밖에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넓으
니까 앉는 벤치도 있고 거기서 기다리가 나오면 들어가고...

신: 또 어떤 점이 좋아요? 00이.

여 2: 일단 냄새 안 나는거... 들어가면 불쾌하고... 볼 일 보면서도 좀 짹짹하고 그런게
많았는데.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많이 거기도 부숴지고 좁고 이랬는데 너
무 좋아진 거 같아요.

신: 언제부터 좋은 화장실 썼죠?

여 2: 3학년 올라오고
 신: 3학년 올라오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럼 공사는 언제 했어요?
 남 2: 겨울 방학 때 공사 했어요.
 신: 00는 어때요? 1학년인데 처음 왔죠? 그럼 옛날 화장실은 못 봤겠네...
 여 3: 그런데 여기 들어오기 전예요, 언니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그 위에 언니 오빠 있는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화장실 좋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여기에 와보니까 좋았어요.
 신: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다. 여기 무안 중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어느 중학교?
 남 2: C중학교
 신: C중학교. 가봤어요?
 남 2: 가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씩 지나가면서...
 신: 다른 학교 화장실 가봤어요?
 남 2: 예.
 신: 어떤데요?
 남 2: M여중. M여중 가 보니까 넓기는 넓은데 인테리어가 그닥...
 신: 어, 또 다른 학교?
 여 1: I여중학교.
 신: 어떤데요?
 여 1: 가보니까요, 거기도 넓은데요. 물이 너무 많아서 또 신발도 실내화 신고 들어가는 거 같아서 그냥 들어가니까... 양말도 젖고...
 신: 이 화장실 바꿀 때 그 회의 같은 거 설문조사 이런거 했다하는데. 그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쓸 수 있었어요?
 남 2: 저는 화장실 들어가면요 문이 이렇게 천장이랑 밑에 턱이 있잖아요. 조금 더 넓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좁...
 신: 그 설문이 묻는 게 무엇이였어요?
 남 2: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냐.
 신: 여학생들을 주로 어떤거?
 여 1: 거울.
 신: 어, 거울 어떻게?
 여 1: 거울이 작고 부셔지고, 거울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나? 또?
 남 2: 노래 나오는 거.
 신: 아, 음악이 나오는 거? 그것도 건의 사항에 있었어요?
 남 2: 예, 그거 건의한 거잖아요.
 남 1: 볼 일 보면서 뭐 노래 나와요.
 신: 어떤 음악이 나와요?
 모두: 클래식.
 남 2: 그런데 저기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USB 꽂고 하면 가요도 나올 수 있고
 신: 음, 그렇구나. 그럼 또 설문은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한 거예요?
 남 2: 예. 전부다.
 신: 지금 화장실 바뀌면서 좋아졌다 했는데 확실히 좋은 게 좋죠? 그죠?

모두: 예.

신: 왜 학교 시설이 좋아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OO부터

남 1: 어, 바뀌지면 애들이 좀 더 편하게 열심히 학업을 해가지고 미래에 생각이 넓어지고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 음, 학업에 영향을 준다. 생활에 영향을 준다. 앞으로의 미래 생각에 또 영향을 준다. 진짜 좋은 말씀. OO이는?

남 2: 저는 무엇보다 학교 시설이 좋으면요, 애들이 또 활기가 넘쳐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사회 같은데 나가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 활기가 생긴다. 그렇죠. 자기가 지내는 공간이 좋아지면. 다음 OO은?

남 3: 저는 일단 학교 시설이 깨끗하면요, 학생들이 학교에 더욱더 오고 싶어하니까, 그 만큼 자기가 그 깨끗한 만큼 자기 할 일을 다 할 것 같아요.

신: 음, 학교 오고 싶다. 학교 지저분하면 정말 가기 싫죠. 모든지 불쾌하고

남 2: 2학년 때는 그랬는데... 딱딱하고 오면 긴장감 많이 느껴지고 냄새도 나고

신: 학교 벽면에 있는 벽화나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남 2: 예, 없었어요. 그런데 동의대 누나들하고 형들이 와가지고 손수 다 수작업.

우리도 참여 할 사람 참여해 가지고 옆에서 거들고 다 같이 한 거예요. 공동작업.

신: 맞아요. 맞아요. 대단한 작업... OO는 학교 시설이 왜 좋아져야 되지요? 솔직하게

여 1: 만약에 학교 시설이 안 좋잖아요. 뭐지 막 막 대하고 그래도 막 대해도 더 괜찮을 거 같고 그렇게 막 부스고 그럴 거 같은데요. 좋아지면요. 음, 아무튼 깨끗하니까 더 깨끗하게 써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신: 음, 맞아요. 깨끗하면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지저분하면 계속 지저분하게 쓰죠. 정말 도덕적으로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OO이?

여 2: 우선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는... 옛날에는 막 어지럽고 이러니까 공부할 때도 괜히 이것 저것 거슬리는 것도 많은데 딱 세련되고 깨끗하게 변했으니까 공부하기도 편하고

신: 음, 안정이 된다.

여 2: 예.

신: 마음이 편해지고 별로 거슬리는 것이 없고 공부에다 집중할 수 있게?

여 2: 예.

신: OO는?

여 3: 그냥 사람은 다 더운 것보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시설도 이렇게 넓히고 하다보면 깨끗해지니까 어 학생들도 다 아끼니까,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신: 맞아요. 이때쯤 우리 뭐 하나씩 먹고 합시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지는 못 하잖아요. 그죠? 선택해서 지원한 학교였는데, 왜 무안 중학교가 나날이 발전하게 되는거 같아요?

남 2: 교장선생님이 1등 공신이시죠.

신: 어, 정말?

여 1: 정말 학교를 생각하셔서 발로 뛰셨죠.

신: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남 2: 발로 다 뛰셨죠. 직접 가가지고.

여 1: 신문 기사에 화장실 꾸며준다는 그것부터 해가지고...

신: 음, 교장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살짝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남 2: 예. 모든지 우리 생각해주세요. 꼭 사랑한다고 하시고.

신: 어, 정말?

여 2: 만날 때마다

신: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여 2: 사랑해, 이렇게...(손으로 하트모양을 그리며)

신: 어, 정말?

여 2: 하트표를 그려주시면서

신: (웃음)

남 2: 우리도 수련회도 그 꽃동네 갔잖아요. 거기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또
성숙했는데 점점 풀리죠...

신: 자꾸 잊어먹게 되죠?

남 2: 네.

신: 어,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르시네.

남 2: 교장선생님하면 다 엄격하고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신: 맞아요. 나도 그런 교장선생님만 뵈서 나는 교장선생님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초·중·고 선생님 성함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담임선생님은 기억이 나도 교장선생님은... 대단한 교장선생님이시네.
그러면 학교 와서 사람들 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나는 여기가 제일 좋다, 00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남 1: 저는 음악실이 많이 좋아요.

신: 우리 지금 음악실에 있죠?

남 1: 예.

신: 음악실이 좋아요? 왜요?

남 1: 딱 벽면하고 땅바닥하고 색깔이 잘 배치되어 있고 피아노도 있어서 우리가 좀 외로울 때 칠 수 있게...

신: 자기 피아노 칠 수 있어?

남 1: 예, 배우고 있어요.

신: 어, 멋있다. 계속 열심히 해요.

남 1: 네.

신: 자기는 음악실이 좋다.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외로울 때 피아노도 칠 수 있고. 00은 어디를 제일 좋아?

남 2: 당연히 교실이죠.

신: 교실? 왜?

남 2: 우리가 하루의 반을 생활하는 곳인데 거기가 제일 좋아야지요. 또 자유롭고요, 가끔씩 선생님 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고 그래서 교실이 좋아요.

신: 교실이 자유롭다, 우리끼리의 공간이니까?

남 2: 예.

신: 또 00이?

남 3: 저는 화장실이 제일 좋아요.

신: 화장실.

남 3: 제가 화장실 청소이다 보니까요. 그만큼 더..

신: 자기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왜 00이만 해요?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당번이에요?

남 3: 당번이 아니고 제 친구랑 같이 청소 뽑는데 바꿨으니까, 기분도 좋을 거 같아서요.

신: 지원했어요?

남 3: 네.

신: 착하다. 그럼 화장실 청소 여러분이 해요?

남 2: 예, 우리도 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두번은 오셔서 해주시고.

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남 2: 네.

신: 특히 옛날 화장실은 청소하기 싫어했어. 그죠? 바뀌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00는 어디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교문에서 딱 들어와서 학교 전체를 봤을 때,
나는 우리 학교의 어디가 제일 좋다.

여 1: 여기 들어오면 풀같이 나무 있고 딱 돌 있고, 그 길...

신: 돌 놓여있는 그 길이 좋다. 왜요?

여 1: 나무도 이쁘고요. 그림도 달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도 오고 돌 건너 올
때 재미있고.

신: 돌 건너올 때 그 길이 좋다. 또 00이는?

여 2: 저도 화장실. 좀 변해서 그런지 화장실 벤치에 앉아서 애들이랑 수다 떨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 누워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신: 맞아. 여학생 화장실은 들어가는 데에 벤치가 있죠.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 2: 네, 애들이랑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

신: 그죠? 일단 이쁘죠? 또 쪽 들어가 있잖아. 교실은 막 이렇게 공개 되어 있는데
앉아서 이야기 하기도 좋고, 그 공간이 좋다. 00는?

여 3: 다 좋은데요. 음, 좀 자주 못 가는 도서실인데. 도서실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 왜냐하면 일단 책이 많으니까, 교장선생님께서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도
서실이 제일 좋아요.

신: 맞아. 도서실도 굉장히 독특했어. 봤는데 이쪽은 앉아서 보고 이쪽은 방처럼
되어있죠. 실제로 도서실 많이 가세요?

여 2, 남 1: 네.

남 1: 하루에 2번씩

신: 그냥 자발적으로 책보러?

남 2: 편안하잖아요. 방처럼 되어서 누워서 이렇게...

신: 아, 그 쪽으로 올라가서. 그거는 화장실 바꾸기 이전에 생겼어요? 이후에 생겼어
요?

남 2: 저희가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있었으니까 오래되었죠.

신: 아, 거기는 오래 되었구나. 그 방도?

남 2: 예, 우리 들어 올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 음, 그래요. 다 좋아하는 공간이 다르고, 지금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하기에 학교 시설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곳인거 같아요? 00이?

남 1: 우리 교실이겠죠.

신: 왜 ?

남 1: 앞에서 말했듯이 생활에 많은 시간을, 환경도 그렇고...

신: 교실이 지금 보다 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00도 제일 중요한 공간이 교실?

남 2: 전 교실.
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 2: 옆에 보면 저희 교실이 그냥 돌로 그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돌로 되어있고 칩칙해요. 색깔자체가 회색. 회색이라서 그 색깔도 좀 뭐라 해야되지? 이쁜색 있잖아요. 알록달록 하고 그런 색깔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컴퓨터도 한마디로 구리거든요. 이게...
신: 똥컴이야?
모두: (웃음)하하하
남 2: 진짜 들어가면 웹페이지 뜨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오류도 자주 나고 컴퓨터 많이하면 가끔씩 소리도 안날 때도 있고 그리고 칠판 그게... 칠판이 좀 뭐라 해야되지? 좀 뭔가 이상하다 해야 되나, 너무 옛날 티 나고 일본 할 때 일제 강점기 때 있잖아요, 그때 느낌이 나요.
신: 어, 그냥 이런 칠판에?
남 2: 이런 칠판도 아니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신: 또 00이는? 어떤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
남 3: 저도 형님이랑 같은 생각. 교실
신: 교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남 3: 교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벽화 작업 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 교실 안에도 벽화 작업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신: 교실내부도 산뜻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00는?
여 1: 급식소.
신: 급식소가 중요하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 1: 그냥 안 바뀌었으면 좋은데요.
신: 지금 이 급식소가 좋아요?
여 1: 네.
신: 그런데 왜 중요해요?
여 1: 위생적으로도 학생이랑 선생님 전부 다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하는 공간이니까.
신: 그러면 급식할 때 교실에서 안하고 급식소 가요? 모든 전교생이?
여 1: 네.
신: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남 2: 아니요. 순서 정해서요. 그런데 급식소가 인간적으로 너무 좁은 편이죠. 다 못 먹어요. 몇 명이 빠져나가 줘야 먹고. 가끔씩 늦게 가면요, 자리가 딱 차서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리를 억지로 들어가서 끼어서 먹고 그럴 때도 있고 좀 넓어 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신: 음, 넓어 졌으면 좋겠다. 00은? 어떤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여 2: 저는 운동장이요.
신: 운동장. 음, 좋아요?
여 2: 그냥 학교 전체를 보면 건물 안은 볼 수 없잖아요. 운동장은 전체가 딱 보이잖아요. 그만큼 애들도 뛰어놀고 이렇게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곳에 하나이니까. 애들이 교실에서는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신: 지금은 운동장 좋아요?
여 2: 아니요.

신: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 2: 잔디 깔아 주세요. 넘어지면 다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애들이 어깨 빠져가지고.
신: 그러면은 인조 잔디?
남 2: 인조잔디라도 좋고 잔디면 좋아요.
여 2: 폭신폭신했고 안전하게도 뛰어 놀 수 있고.
신: 원래 이런거 물어보면 남학생들이 굉장히 운동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남 1: 네.
신: 왜냐면 축구를 해야하니까. 근데 00이가 대변을 해주었네. 00는 어디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
여 3: 체육관도 중요한 거 같아요.
신: 저쪽에 있는 다른 건물인가요?
여 3: 저쪽에 거기에서 놀 수도 있고 전교 모임 같은 것도 거기서 하니까요. 좀 쉬는 시간에도 선배들이 자주 찾으니까..
신: 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었는데요. 거의 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학교 내에서 바꾸고 싶은 곳도 다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마음대로 우리 학교를 바꾸고 싶으면 어디를 바꾸고 싶은지, 중요한 공간도 이야기 했고, 왜 중요한지도 이야기 했고, 또 화장실이 바뀌어서 어떤 점이 좋은지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친구들 하고 관계나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떤 거 같아요?
남 2: 일단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우리들만의 공간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과 놀러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더 우정이 깊어지고 그렇죠.
신: 어떻게 우리들만의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남 2: 저 컴퓨터는요, 옛날에는 벤치가 4개 다다닥 놔두고 끝이었거든요.
여 2: 팔각정.
남 2: 저기 팔각정도 생겨지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벤치가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참 좋아졌어요.
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야기 많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짹짹.

(2) 교사 인터뷰

날짜: 2009. 9. 21
장소: 음악실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김00), 남2(박00), 여1(하00), 여2(유00)

- 남 2: 모든 공공기관 중에 가장 낙후된 게 학교예요.
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안 그런데요.
남 1: 그건 뭐. 있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신: 맞아요.
남 2: 굉장히 불철주야 고생하셨어요. 일일이 나무 심고
신: 예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남 1: 우리가 직접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되면 완성됩니다.
신: 그래요 맞아요. 나무들이 조금씩 크면 더 우거지고 더 예뻐지고
남 1: 10년 후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입니다.
신: 이거 서울 과자예요. 저는 동국대학교에 있구요. 여기 오게 된 것은 2008년도에 문화 관광부에서 5개 학교에 지원했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참여했던 학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해서. 저는 그때 개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한테 연구를 의뢰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서울을 출발해서 대왕중, 화성 장명 초등학교하고 이번에 밀양 무안 중학교 다음 주에 전주에 가거든요. 변한 것도 보고 학생들도 어떻게 느끼는지 들어보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화장실이 변화하고 나니까. 어떤 점들이 학생들은 어떻게 변한 거 같다. 이런 관찰한걸 듣고 싶어요. 아, 그 전에 선생님들 성함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성함은 절대로 제가 밝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학생부선생님.
여 1 : 적어 드릴게요.
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보시기에 화장실 바뀌고 나서 뭐가 제일 많이 변화 한 거 같으세요?
남 2: 이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의 생활 행태를 보면 여기는 자유분방한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초질서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학생들 행동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설 또한 그러하고 공간도 그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데나 앉는 다든지 눕는다든지. 또 횡단보도를 아무렇게 건너도 일단 규칙을 어긴다는 느낌 없이 일상화예요.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규칙을 어기면서도 어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바뀌면서부터 아이들 스스로도 보고.
여 1: 문화를 누릴 줄 아는 거지.
남 2: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이 참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일단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 공간에 맞게 행동하게 되어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도 역시나 다를까, 처음에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불안 해 했습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 이야기들을 하고 우려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이들은 금방 잘하더라고요. 행동의 변화라든지.

질서 지키는 거, 또 아껴 쓰는 거, 또 의식도 이 하나로 해서 다른 영향이 굉장히 좋은 방향 나아가더라고요.

신: 아, 선생님이 박00 선생님, 김00 선생님.

남 1: 예.

신: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어떤게. 구체적으로요?

남 1: 지금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이것을 하기전에 학생들이 변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 예.

남 1: 왜냐하면 집에 가면 좌변기고 그다음에 저기 똥니까 비데가 있고 하는데 학교와 가지고는 너무 화장실이 더러우니까 앉아서 변을 보기가 아예 화장실을 학교에서 한번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화장실을 바꾸고 나서 애들이 굉장히 화장실이 그냥 휴게실의 개념, 언제든지 내가 가서 쓸 수 있는 쉼터 공간. 이런 정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애들의 인성도 지금 2,3학년들은 사실 그 전에 있던 재래식 화장실을 알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은 그냥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쉬는 공간이라면 그러면 뛰하지만 우리 화장실은 쓸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전에 습성은 아직 다 버리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슬리퍼 정리라든지 이렇게 아직까지 널 부러져 있고...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올라오자마자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니까 1학년들 같은 경우 저 본관 건물 하나만 쓰거든요. 화장실 갔다 나오면 자기 슬리퍼 한부정리 하고 나오고, 청소를 할 때도 애들이 요즘 보면 앞에 문을 딱 막아놓고 그래서 자기들 청소 공간에서 딱 청소 하고 나오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 인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인성부장이 이야기한 교내에서의 기초질서, 이거 적립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는 처음에 화장실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깨끗이 만들어 냈을 때 우리 나라는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내 것이 아니다 공중 화장실이라는 것은 낙서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공중 화장실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는 거. 우리 학생들이 모든 애들이 인성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여기에 와가지고 외부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바깥쪽에 화단하고 녹색학교를 원고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바깥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안쪽이 너무 엉망이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문화관 광부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들 처음에 신청 하셨는 줄 몰랐어요. 교장선생님 혼자 하셨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교무부장선생님과 인성부장선생님께 이런 거를 해 보고 싶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좋다고 밖이 되고 안이 정리되면 얼마든지 안 좋겠나. 그 다음에 우리가 녹색학교를 가지고 오므로 인해서 화장실도 된 거고

또 화장실을 가지고 오므로 인해서 음악실이나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가지고와서 좋게 만드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와서 보시고는 저게 잘되어있으니까 이게 너무 후지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그게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학교가 실내외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

신: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와보고 진짜 학교 사이즈가 아담하잖아요. 그렇게 크기도 많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안팎으로 공간이 아름답고. 저희는 이전 모습을 모르니까. 그냥 아, 좋기만 하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봉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간도 내야하고.

남 2: 제가 이 학교에 온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5년인데..첫해에 오니까 바닥에 왁스를 밀고나면 때 있잖습니까.

여 1: 끈적끈적한 거

남 2: 그 때가 퇴적이 되어가지고. 그 원인이 교장선생님들이 오셔도 한 6개월 또는 1년 짧게 계시는거라. 그러면 그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게 교장이 바뀌야 학교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 있잖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은 초빙 오셨기 때문에 4년 임기를 채워야하거든요 그런 좋은 조건도 있더라고요. 지금 거쳐 간 교장선생님들. 제가 욕하는 거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 교장선생님들도 6개월, 1년 그 사이에 뭘 변화 시키겠습니까? 결국은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관리자들이 오면 그냥 머물다 가는 거.

남 2: 특히 소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경향이 좀...

여 1: 1년 있다가 원하는 대로 도외지로 나가니까.

신: 예.

여 2: 거쳐가는 학교.

여 1: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랬었죠. 지금까지는

남 2: 초빙의 장점이 이런 경우더라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 주변의 주민들을 연세 드신 분들 무안 중학교 1회, 2회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신이야기 다른 교장선생님은 20년. 20년 정도 한 양이다. 3년 동안에 하신일이 그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칭찬을 하세요.

여 1: 예. 교장선생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신 것 같아요.

신: 선생님은 학생들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남학생은 이렇게 여학생은 이렇게

여 2: 화장실에 대해서, 일단은 화장실이 애들이 일단 오시다보면 일단 문화적으로 많이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적 시설들이랑 격리가 되어있는데.

학교에 오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누리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음악실, 화장실에 음악이 나온단든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음악이 나오니까 교실에서 놀다가 내려 오가지고 화장실에 있는단든지.

아침시간에도 선생님이 8시20분까지 교실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도 화장실에 와서 놀거든요. 왜 노느냐 공간이 너무 저거들이 놀기 좋은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라. 의자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 요즘 애들이 음악을 참 좋아 하잖아요.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화장실에 소요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화장실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작년에 여기 왔는데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애들이 거칠고 저는 제일 놀란 게 저는 여학교에만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하루에 한 번씩 유리창이 깨진다는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손을 베어 온다든지, 찢려 온다든지, 거의 일주일에 다섯번 이상은 경험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설이 요렇게 변화하고 난 뒤에 결과랄까. 그래서 그런건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이런 시설들이 애들의 정서를 변화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애들이 유리창 안 깨요. 작년에 비해서 찢려온다든지 베어온다든지 넘어지는 거 외에는 그렇게 애들이 부산하게 날뛰어서 오는 사고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결국은 학교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 애들의 정서라든지 감성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설들이

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시골이고 문화적인 시설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화장실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 1: 예.

신: 서울의 그래도 수준이 높다는 강남의 그런 대왕 중학교가 바꿨거든요. 비슷하게 거기서도 인터뷰해보면 교장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화장실가서 놀고 빵을 먹는 데...(웃음)

여 1: 우리도

신: 먹을 것을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먹고 화장실에서 놀고 똑같은 거잖아요. 화장실의 이 공간이 좋아한다니까. 서로 이야기 하고 특히 아까 인터뷰 한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휴게실처럼 벤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여 2: 예.예. 하지 말라해도 합니다.

신: 예.예. 굉장히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4년 계신 선생님이 점점 학생들의 인성을 보면 순해진다. 도시 아이인데도 처음에 와서는 학생들 지도 이런 문제 점점 줄어든다. 이게 정확하게 환경 하고 상관관계 있다는 데이터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관찰하신 선생님들의 공통적이 말씀입니다.

남 1: 분명히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 공간 중에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뭐라 합니까, 안 좋은 애들 모여가지고 담배피고 돈 빼앗고 그 다음에 애들 폭행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었거든요.

신: 아. 담배 말씀하셨죠.

남 1: 옛날 화장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은 새로 바꾸고 나니까 그 안에서 싸우거나 폭행하거나 돈을 빼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 1: 분위기가 안 되니까. (웃음)

남 1: 다른 애들이 거기 와서 놀고 있으니까, 돈 빼앗는 이것도 모르게 빼앗지 공식적으로 빼앗지는 않거든요. 그런 공간들이 열린 공간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폐쇄적인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바뀌므로 인해서 나쁜 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신: 이 과정에서 하00 선생님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 1: 하하하. 아니예요.

신: 그 과정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되고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디자이너도 오고 관계자도 오고 학교 내에서는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여 1: 그때 부산 동의대학교 박00 교수님. 산디파에. 그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셨어요. 그래픽 같은 거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픽 이러던지 안쪽에 애들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실문. 박00교수님 그래픽 해놓은 거거든요.

신: 아, 얼마나 세련되요.

여 1: 그런 게 굉장히 특히 할거예요. 다른데 보다는 시트지를 붙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 하잖아요. 그 교수님 작품 그런 것들이.

전부다가 그런 거라든지 업자하고 학교측하고 타일이라든지 변기라든지 조명이던지 할 때 교장선생님이 업자측에 100% 절대 맡기지 않아요. 전부다가 하나하나 관여하셨어요. 선생님들의 의견을... 어떤 타일로 할까 제가 알기로는 타일을 12번도

더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카다로그에서 이런 거를 원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옵니다. 내가 가장 짜증난 부분이 카다로그에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또 가지고 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로 그런 일들. 그런 거. 보통 내려가잖아요. 개수대 손 씻는데 올라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장선생님이 이제는 올라오게 해보자 올라오게 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앞에 부분. 전부다가 선생님들하고 업자하고, 그런데 업자들의 미의식이 우리 선생과 교장선생님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미의식이 높아야 대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로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신: 업자들은 어디서 오신 분이예요? 밀양?

여 1: 아니예요. 밀양이 아니예요. 부산 저 사람들이 아마 부산서 왔지. 하청을 계속 주더라고요. 부산하면, 저기 일이 굉장히 쪼개 지더라고요. 쌓기만 하는 사람, 전기는 전기만 하는 사람, 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장실 하나에도.. 아마 7~8 파트가 조합을 해서 한 사람만하지 않고 하청을 계속 주더라고요. 발주를 한 사람이 받으면 계속 파트별로 주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청을 받은 사람은 ** 라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중요 한 거는 교장선생님이 아이들의 의견을 설문지를 전부다 받고 전부다 워크샵하고 뭐... 굉장했어요. 암튼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도 심지어 이런 시트지 하나를 정하는데도 며칠이 걸렸어요. 어떤 게 좋은가에 대해서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신: 맞아요.

여 1: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업자와 또 관계자 여러분들 교수님이하 그 쪽 분들 충분히 워크샵도 하고 이런 작품을... 하나의 교장선생님의 땀 흘린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의 미의식이 변화 되었어요.

저는 그거 확실히 느껴요. 제가 미술과라서 보는 눈이 아이들을 섬세히 보는데 아이들의 미의식이 굉장히 색감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아름다움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말하는 용어 자체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고, 조형예술이라는 말을 쓰고, 감각이라는 말도 쓰고 촌스럽지 않다니까. 그런 거 그죠 환경이 바뀌니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멋지게, 우리 아이들 영화 많이 봅니다. 더 버전을 높이기 위해서 책도 엄청 많이 읽고 학교에서 물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노력을 많이 하지만, 책도 많이 읽고 아이들 영화 참 많이 보거든요. 음악은 저런 식으로 계속 학교에서 함께하죠. 화장실은 가도 클래식 100곡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멋지게. 버전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죠. 멋있는 일이잖아요. 미의식이 변화가 오면서 아이들 버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공부도 잘하게 되겠죠. 그죠?

신: (웃음)

여 1: 그래서 우리 학교 화장실은 용변 보는 화장실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화장실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갤러리화 시켜야겠다. 화장실에 거기에 붙어있는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을 카피해서 액자그림 맞게끔 거기에 들고 가서 그림을 한 개 한 개 전부다 맞추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제일 띄는 부분이 그림.

여 1: 그림이 그냥 이상한 그림 하나 딱 붙인 거 아니예요. 거기에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을... 물론 카달로그지만 다 유명한 작품. 대한민국 유명한 작가 그림이잖아요. 전부다가 누구 그림인거다 딱 보면 알 수 있게.

남 1: 지금 양지 중학교 가실거죠?
신: 아니요. 다음 주에 갈거구요. 서울에서 대왕중학교 보고 우리가 너무 놀랐거든요. 갈 수록 더 좋아져요.
남 1: 양지중학교 가면은 거기 이제 갤러리가 있어요.
모두: (웃음)
여 1: 거기는 그죠. 화장실 차원이 아니고, 거기는 수 몇 억이 내려갔노?
신: 거기는 학교가 크잖아요.
여 1: 그리고 박사님, 우리는 문관부에서 5000만원 받았잖아요. 거기는 20억을 받았어요. 학교 자체를 완전히 다 개조 다했어요. 그러니까 층층별로 다른 색 다 칠하고 갤러리를 딱 만들고.
신: 학교별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밀양 와서 특이 했던 거는 들어갈 때 왜 뛰지.나무에...
여 1: 예, 솟대에다가 설치 미술로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30개 달았는데 너무 작아서 지금은 60개 정도 하려고 나무 자르고 있는 거예요. 애들 전부다 그림 가지고 지금 너무 부족해요.
지금 갤러리가 우리 교장선생님과 전 교사 건물이 갤러리화... 아직 갤러리화 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데 전 건물 교사의 갤러리화를 꿈꾸고 있는 중이에요.
신: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학교 공간을 좋아할 것 같아요. 학교를 좋아한다 말하고 학교 공간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넓고 문화적으로... 여기가면 책이 있고 여기가면 음악이 있고, 여기가면 친구가 있고 여기가면 선생님이 있고,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공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남 1: 그렇죠. 맞아요. 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학교 공간이라는 게 정말 시설면에서는 가장 낙후된 공간이었거든요. 그 의식들이 주민들도 바뀌어지고 와서 이제 축제하던지 행사도 하고, 도서관 보시면서.
신: 그런 거를 치러내기 손색없는 공간
남 2: 예, 그러니까 학교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우리 밖에 저거 뭘니까? 등 4개를 달아놨거든요. 태양광 가로등 4개를 달아 놓으니까 운동장이 환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러 굉장히 많이 와요.
신: 어, 정말 좋은 환경이네요.
남 2: 이 학교가 좀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침하잖아요. 불을 켜놔 놓으니까 굉장히 저녁에 운동하러 많이 와요.
신: 그러 정말 바람직하네요.
여 1: 예.
신: 세계적인 추세이거든요 영국도 이태리도 모두 커뮤니티가 타운의 중심이 학교예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로 쓰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쓰고 주민들이 와서 문화회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남 1: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쪽으로 나간 것이 BTR사업이잖아요. BTR사업인데, 낮에는 회사에서 학교 건물이나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야간 때는 자기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 공간을 문화 체육공간으로 쓰고.
신: 예,예.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변화를 다 보시죠? 학부모들도?
여 2: 인지하고 있지요. 다 알지요.

남 2: 우리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전부 참여 다 시켰어요. 거... 우리 선생님이 저기 말씀하시는 벽화 작업 같은 거, 이런 거는 학부모들, 학생, 직접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풀러질하고 다 했어요.

아까 말씀하시던 화장실이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입찰 문제,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교무부장선생님이나 일을 시작하실 때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또 도교육청이나 밀양시청에서 지원을 받은 돈하고 하면은 정말로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해가 원하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멋진 그런 화장실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00만원 넘으면 입찰을 줘야하니까 입찰을 붙이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13%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13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요. 아무 시설도 되지도 않고 거기다가 업자들 이익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남 1: 하청업자

남 2: 자기들이 처음에 입찰을 본 업체가 들어와서 발주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조금은 덜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은 발주만 해봐 놓고 나머지는 하청을 주는 거예요. 전부 하청을 주면은 전기 설비부문에는 전기 설비부분대로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3번씩 넘어가더라고요.

남 1: 근데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거예요.

모두: (웃음)

남 2: 결국은 일을 하는 거는 저 밑바닥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노가다. 이 분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교무부장선생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달라 말이 안 통하는거예요.

신: 말은 위에서 다른 사람하고 했는데, 그죠?

여 1: 그 사람들이 미적 수준이 없기 때문에...

남 2: 그니까 가장 기본적인거,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재료만 자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재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교무부장선생님하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하고 몇 번 싸웠어요. 벽도 뺄것게 이래 쌓아놓아 가 버린 거예요. 안 된다 뜯어내라 전부 뜯어내고 다시 다해라 그래가 벽도 다시 쳐내고 뜯고 하고.

여 1: 별로 그 업자들이 남은것도 없을 거야. 그죠? 우리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남 2: 아니, 그거는 남았지, 남았지.

여 1: 남았을까?

남 2: 발주를 처음에 발주한 업체는 자기 이익금을 남기죠. 그런데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여 1: 다음에는 절대 무안초등학교하고 손 안 잡겠다, 일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교장선생님이 너무 깡깡해가지고 힘들다고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간섭을 다하니까.

남 1: 이런 사업을 진짜 하는 과정 일을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하는 거는 힘들지 않은데, 정작 작업을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감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청 하청에...

여 1: 끝까지 감독을 다해야 하니까.

남 2: 지금 와서 보시면 깨끗하게 되어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 완성품만 보니까.

남 2: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입찰을 안 하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우리가 설계하

고, 재료 넣고 이런 부분들 우리 미술선생님 재료를 보시는 부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화장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50%도 안 되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하청을 주다보니까. 공개 입찰의 가장 맹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개 입찰이라는 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부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런 특수한 사항에서 목적 사업비를 내려줄 때는 이것만큼이라도 학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게 만약 안 되고 잘못되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주고, 문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특수 목적 사항에서는 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면 더 보완이 되고 잘 될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쪽의 50%도 제대로 안 되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신: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설 변화가 왜 중요한가, 이런 거 다 말씀하셨고. 결국에 가장 큰 수혜자는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의 정서나 인성이나 미적인 감각이나 생활 질서나 모든 면에서 어렸을 때 품성이 길러지고 중요하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옛날 학교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자산은 자기 몸에 베어있는 거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커져 갈 건데, 많은 학자들이 원하는 게 또 이게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굉장히 알고 싶어요. 실제로 시설이 변하는 게 학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 1: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정서가 안정되잖아요. 우리가 뒤에 3월달 되면 뒤에. 환경부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지? 교실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이 정서가 안정되면, 자연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다 보면,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아이들 시험치는 거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러리라 믿거든요. 환경이 주어지면 자연적으로 정서가,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막 산만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난장판 되었을 때 정서하고, 깨끗이 엄마가 집을 치워놨을 때 그 정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서 정서가 안정감이 되며 청취력도 높아지고 학업향상이 저는 직결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기본적인 거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연구물들 중에 보면 개선하고 싶은 가장 1순위가 화장실이에요.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공간으로 학생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교실이잖아요. 교실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유00 선생님?

여 2: 교실도 애들이 결국 화장실을 문화적 공간으로 이용 한다는 것은 애들이 있을만한 공간 자체가 학교에는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거든요. 휴게실이라든지 뭐.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교실 외에 특별실 음악실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실도 개선이 된다면 애들이 조금 더 편안히...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의 변화까지의 학교 다닐 때나 모양만 달라졌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신: 책걸상 지적하셨고, 또 박00 선생님 교실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학교 교실은...

남 2: 교실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토피 피부나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그렇게 사실 많이 않았거든요. 이게 문화가 발달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고 콘크

리트 문화 속에서 애들이 살다보니까, 인성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그래서 피부염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이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살다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애들이 뭐 옆에 가서 부딪쳐도 상처 나고 아프고 하다보니까 고함지르고 신경질 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거 같아요.

신: 음, 자재나 재료를...

남 2: 자재나 재료를 우리 교장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학교도 사실은 교실 리모델링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황토로 바르던지, 아니면 친환경 목재를 가지고 콘크리트 부분을 전부 둘러 쌓는 거예요. 학교를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친환경 목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교실 환경자체를 부드럽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학교가 교실이 가장낙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을 가지고 외벽은 콘크리트를 전부 덮는 방법. 그 다음에 안으로는 학생들에게 이 책걸상을... 어떤 애들이 사실 시설에서 공부방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아늑하고 좋은 얼마든지, 자기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 교실이 공부방이 되어야하고, 그 다음에 교실 옆에 가면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아까 유00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쉼터 놀이 공간 이런 것이 있어야하고...

신: 예, 교실 옆에. 또 선생님?

남 1: 그런데 저는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 색이 단색이잖습니까?

신: 예.

남 1: 학교의 건물색도 단색이잖습니까? 무채색에 가깝고, 그 교실 벽의 색깔도 보통 보면 무채색. 그 이유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칼라플하게 되어 있으면 집중력을 흐트린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무기수들이 있는 두 방을 비교해서 어떤 방은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어떤 방은 초록색으로 칠해놨는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무기수들은 자살률이 높았다. 뭐 이런 보고도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 진짜 색깔이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흥분이 되는 감도 있어. 그래서 이제 학교의 어떤 실내 내벽의 칼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자 책상도 너무 편리 의주로 교실내의 생활공간이 놀이 공간으로 바뀌는 것도 학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 1: 그래서 여직까지 이래변화가 없는가 (웃음)

남 1: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소품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들은 최첨단으로 가야하고 이야기하신 소재. 요즘 좋은 병원에 가면 일본에서 가져온 수입재가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독성을 품지 못하게 하고 그 재료 자체에서 좋은 기운도.

여 1: 좋은 아파트는 그런 것도 있던데...

남 1: 아예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리는 황토라든지 목재라든지...

여 1: 그리고 방음도 적당히 되어야하고 교실과 교실사이에...

남 1: 소프트적인 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남 2: 애들한테 애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애들한테 부끄러워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집단을 실험했을 때 콘크리트 벽속에 30분을 놀게 한 집단하고 그리고 숲 속에 가서 자유롭게 30분을 놀게 한 집단하고 두 집단을 데려다가 집중력을 비교해 보니까 숲 속에서 마음대로 놀은 애들이 집중력이 훨씬 높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맨날 간혀 앉아있지 말고 뛰어 놀아라 해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교실 가지고 수업시간에는 애들을 콘크리트 벽속에 가둬놓잖아요. 그래

서 저 같은 경우는 반에들한테 너희들이 입학할 때 화분을 하나씩 가져와 달라. 그래서 우리 복도하고 교실에 놓고 내가 1년 동안 한번 길러보자. 그럼 너희들 인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화분 갖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 그거 좋은 생각이예요.

남 2: 이런 공간들을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바꿔줘야해요. 그게 교육부에서 안 된다면 문화관광부에라도 좀 해야 되겠죠.

신: 자, 이제 환경은 좋은데요. 선생님들 실제로 수업하시거나 가르치실 때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 해주세요. 수업할 때 내가 좀 불편한 게 있다든지 교실에서

아까 어떤 학생은 칠판이야기를 하던데... 칠판이 안 어울린다.

남 1: 지금은 전자 칠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신: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선생님들의 생활공간 있으시잖아요. 아까 화장실도, 교직원 화장실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생활하기에 학교라는 공간이 편안한가,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남 2: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거예요.

신: 어떤 점에서?

남 2: 첫째 교원 복지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 교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어요.

신: 지금 휴게 공간 없으세요?

남 2: 아니, 남자 선생님들 휴게실 지금 없는 실정이고. 남자 여자 휴게실은, 휴게실이라고는 있는데 기껏 해 봐야 쇼파 1개 가져다 놓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 1: 그 여자 선생님 휴게실은 이만한 공간이 조금이나마 확보되었는데... 작년에 엄청 싸워가지고 확보했는데 남자 선생님들 휴게실은 지금 없죠.

신: 선생님들 쉬고 싶을 때 어디로 가세요?

여 1: 없죠. 뭐...

여 2: 책상 앞에 있는 거죠.

여 1: 그 다음에 뭐냐면 요즘 큰 학교 가면 전부다가 트레이닝실이라 해서, 큰 학교에 가면 런닝머신이라든지

남 2: 체력단련실.

여 1: 체력단련 이런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전부 30분만 운동해도 이렇게 전자안마 선생님 말씀대로 교원복지가 너무 안 되어있죠.

여 2: 그렇게 형식적인 거에 그친거지. 막 교원복지 구성을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교원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맡기고 그걸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리 하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여 1: 교원 복지는 정말 너무 안 되어 있어.

여 2: 뭐 휴게실을 만들어라 이러면 교실은 한정되어 있는데 애들 공부 안 가르치고 휴게실을 확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여자 휴게실 같은 경우 책 쌓아 놓을수 데가 없으니까 교과서 오면 거기 쌓아놓고 뭐 잡다한 거 갖다 넣어 놓고...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여 1: 이렇게 더운데도 선풍기 한 대도 없고 여름에도

여 2: 그러니까 갈 수조차 없는거지.

여 1: 그런 면에서 조금 국가에서 신경을

남 1: 그래도 같은 값이면 말을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가 양보했다.

모두: (웃음)

신: 역시 선생님 말씀을 점잖게 하십니다.

여 1: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해야지 또 그래야 그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시냇물이 모여서 큰 바닷물이 이루듯이 다른 학교에도 교원복지를

신: 지금 교실에 대해서는 별말씀을 안 하셨는데 수업 하시기에 불편하신 것은 없으세요?

남 1: 예, 지금.

남 2: 전자칠판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 1: 전 교실에 빔이 있어요.

남 2: 우리 학교에는 내부 시설은 콘크리트 벽속이지만 학교 교실마다 전부 빔이 다되어 있어요.

남 1: 바닥도 흙먼지 안 날리는 강화마루판으로 깔았고

신: 아, 정말 좋은 학교다.

여 2: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하여튼

여 1: 그런데 기회가 되면 창은 이쪽을 이중샷시로 형편이 되면 이중샷시로 하면 더 좋죠.

겨울에 더 따뜻할 수 있고 시원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지은 거라서 하나 창문으로 되어있죠. 지금

남 1: 여기 있다가 울산으로 울산광역시 전학을 갔다가 다시 온 아이가 있어요. 일부러 다시 왔어요.

여 1: 또 왔어요?

남 1: 아니 뭐 어머니 직장 때문에...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울산 큰데 좋은데 가니까 학교도 좋지..아니 안 좋던데요. 이러는거예요. 하하하

모두: (웃음)

여 1: 우리가 여기가 돌아오는 모두:학교가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며칠 전쯤 되었지 김해에 있는 어떤 학생이

여 2: 아니, 중학생이었어요.

여 1: 전학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해서 학교 왔었어요..

남 2: 내가 다닐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사전에 답사를 왔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학부모하고 학생을 데리고 학교를 전체 돌면서 설명을 했어요.

신: 반했겠다. 학교에

여 1: 앞으로 계속 돌아오는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여 2: 그런데 우리 애들도 진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간 애들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일단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대하는거하고 지네들 큰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하고는 다르지. 우리는 애들 저만큼 뛰어가도 뒤통수만 봐도 저게 누군데 이렇게 알지만, 그 저쪽 애들이 많은 데는 안 되거든요. 일단 교장선생님이 모든 학생위주로 해주시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기억하지.

신: 예, 너무 바람직한 같아요. 지금 이변한 환경을 경험하고 간 졸업생들은 정말 학교를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요. 애정을 느끼잖아요.

남 1: 거기서 끝이라 고등학교가면 끝이라니까, 고등학교가면 이런 공간도 없어 화장실도 없어.

여 1: 오로지 입시에 몰두 해야되기 때문에...

여 2: 지금이 행복한 시절이야
여 1: 참, 고등학교가면 입시에 시달리니까
남 2: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교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주는 거. 그게 되면 우리 선생님도 수업할 때 기구가 조금 모자른 거는 감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좋은 공간 속에서 아이들 밝은 모습 보면 더 좋겠죠. 마음도 행복하고
신: 특히 무안중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교의 문제점은 소음, 도로 소음하고, 공해거든요. 공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채광도
여 2: 우리 학교에는 논이....(웃음)
신: 그런데 이 학교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고 자연채광이 뛰어난 점에서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남 2: 채광이 너무 잘되어서 차광을 해야 해요.
여 1: 여기에 우리가 말씀하신 거 참 좋잖아요. 자연환경이, 여기에 제가 3년째 근무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젊어졌다고 해요. 젊어졌다하거든. 왜냐하면 공기 좋은 곳에 사니까, 정말 피부가 달라져요. 오래간만에 아부성인가...(웃음)
신: 이전에 근무하시던 데가 여기랑 환경이 비교해 어떠신지?
남 2: 사실 아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가장 까놓고 이야기 해서 학교도 아니지
신: 너무 좋죠?
남 2: 이 학교 환경하고 내가 전에 근무 하던 학교하고 놓고 보면은 거기는 학교도 아니야
여 2: 선생님 어느 학교에 있었는데.
남 2: 내가 밀양 여중에 있었잖아.
내 이야기 들어봐 8년 동안 있으면서 그 환경 속에 젖으니까 당연히 학교를 이런 거다 생각했는데, 여기와서 바뀐 거를 보고 지금 다른 학교에 가서 근무하러하면 나도 화장실에 못 갈거야.
여 2: 아, 그래.
남 2: 그런데 M여중 같은 경우에는 앞 건물을 BTR사업을 해서 전부 신축을 해놨거든. 깨끗하게 잘 해놨겠지.
여 2: 잘해놨던데...
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뭐, 마지막으로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코멘트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여 2: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 2: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못하는 일들을 문화관광부에서 더 나서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내려주는 돈들은 그 목적에 맞게 학교 자체에서 소진 없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해봤지만 공개 입찰을 하니까 너무 돈의 손실이 많아요.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4. 영주 남산초등학교

(1) 학생 인터뷰

날짜: 2009. 9. 20
장소: 북카페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문00), 남2(지00), 남3(고00), 여1(금00), 여2(이00)

- 신: 만나서 반갑구요. 아침에 서울서 왔어요. 여러분 보러, 헤어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서 너무 멋있다. 요즘 이게 유행이예요?
- 모두: 몰라요. 엄마들 마음대로
- 신: 지금 영주남산초등학교죠?
- 모두: 네.
- 신: 남산초등학교의 특이한 점이 이 북카페. 그죠?
- 모두: 네
- 신: 올해 3월에 문 열었죠? 작년에 알고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문연다는 걸?
- 모두: 네
- 신: 어떻게 알았어요?
- 남 1: 그러니까 작년에 회장들이 먼저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여기 이런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나 회의를 했는데 그때 설문조사 같은걸 하고 서로 의견을 내서, 이래가지고 만들어 진거예요.
- 신: 어~ 그때 어떤 의견을 냈는데?
- 남 1: 뭐 그때 그러니까 책을 이제, 우리가 도서관은 아이들이 책을 별로 안 읽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잡지 같은 거 그런거나 아니면.
- 신: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봤으면 좋겠나?
- 남 1: 네
- 신: 또?
- 남 1: 책도 있고 뭐 휴식 공간
- 신: 휴식 공간?
- 남 1: 도서관은 그냥 책 읽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따로 쉬는 시간에 휴식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 휴식공간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 신: 다른 사람 얘기에 웃으면 실례지
- 여 2: 아니, 아니예요. 애가 자꾸 웃어.
- 신: 아니야, 자기가 먼저 웃었어.
- 남 1: 애네들 개념이 없어서(웃음)
- 신: 00 그럼 회의할 때 책을 어떤 걸 봤음 좋겠나하고 휴식공간하고. 이런 색깔 같은 것도 의견 냈었어요?
- 모두: 아니요. 선생님들이.
- 남 1: 색깔은 선생님들이 저희 그러니까 딱 우리 휴식하기 편한한 색깔을, 이렇게

신: 또 여기 생기니까 뭐가 좋아요? 00, 00부터 얘기 해 보자.

여 2: 학교를 마치고 나서 숙제 같은 거 못하네요. 여기 와서 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좀 놀 수도 있고. (웃음)

신: 학교 마치고 놀 수 있는 공간?

여 2: 쉴 수 있는 공간

신: 쉴 수 있는 공간?

여 2: 네

여 1: 자료 검색 같은 거 하고 영화 볼 수 있어요.

신: 어! 어디서 봐요?

여 1: 여기

신: 아~ 여기서 본 영화 어떤 거 있어요?

여 1: 몰라요. 아직 안 봤어요.

신: 근데 볼 수 있어요?

여 1: 네.

신: 그래서 좋다?

여 1: 네

신: 뭐~ 영화는 영화관 가서도 보고 집에 가서도 보는데 학교에서...

여 1: 책이 많잖아요.

신: 여기 책. 도서관에도 책 있죠?

모두: 네.

신: 여기서 보는 거랑 뭐가 틀려요?

남 2: 여긴 누울 수도 있어요.

여 1: 도서관에서는 난로위에 앉아서 봐야 되는데...

신: 아, 누울 수도 있고?

남 1: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이랑 그냥 도서관이랑 차이점은 도서관은 아이들 위한 거고요. 근데 여긴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들, 저희 어머님들이 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니까 기다려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어머님들이 막 같이 휴식하셔서 커피한잔 마시고 뭐 책을 읽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떤 날은 청소해서 늦게 끝나니까 보통 학원시간이 약간 남잖아요. 그럴 때 시간에 와서 활용하도록 만든 거

신: 00은?

남 2: 만화책을 볼 수 있어요.

신: 아, 도서관에서는?

남 2: 만화책 다 버렸어요. (웃음)

남 1: 한 선생님의 의도로 인해... (웃음)

신: 근데 여기는 재밌는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겠네?

모두: 네.

남 1: 그렇죠.

신: 그런데 여기 쉬는 공간이 없을 때도 학교에서 쉬기는 쉬었죠? 다른데 가서도? 놀기도 하고.

모두: 네.

남 1: 쉬기는 쉬지만 학교의자가 왜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편안한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신: 그거 좋으네~ 그죠?
남 1: 네.
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층이죠?
모두: 2층.
신: 2층.
신: 언제 주로 여기 오게 되요?
모두: 점심시간, 쉬는시간, 학교마치고
신: 쉬는시간 10분인데 저기 멀리서 오면 가야되잖아.
남 1: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저희는 한번 10분이 있고, 그 다음이 20분 있고 그 다음 10분 있고, 그 다음 점심시간 한 시간 있고, 그다음 10분 있거든요. 10분 시간에는 그냥 있고 보통 20분이나 한 시간, 그때 와서 주로,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애들은 10분에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신: 그렇죠. 올 땐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혼자와요?
여 2: 같이 오죠.
신: 여학생 같은 경우 같이 오고, 혼자오고?
남 1: 혼자 와서 편안하게 휴식 할 수 있고
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남 1: 네.
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를 이용하라는 말 안 해도 자연적으로 오게 되네요.
모두: 네
신: 왜?
남 2: 시간이 비니까.
신: 아, 시간이 빌 때?
남 1: 오히려 선생님이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는 경우가 많고 애들이 '여기가자' 하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많아갖고 애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신: 여기 가자? 어디 가자라고 해요?
모두: 카페. 그냥 북카페, 카페가자.
신: 놀러가자 그래요? 아니면?
남 2: 놀러가자 그래요.
신: 놀러가자 그래요? 그럼 뭐.. 밖에 가자 그러는지? 여기 가는 거 알아요?
여 1: 끌고 와요.(웃음)
신: 얘기해봐.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여기가자고 얘기해봐.
여 1: 그냥... 놀러가자.
신: 뭐 그럼 와야 되는거야?
모두: (웃음)
신: 더 마실래요? 주스? 주스 더 먹을 사람?
남 1: 네, 저요.
신: 학교에서. 남산초등학교에서 나는 이 공간이 켈 좋다.
모두: 북카페!
신: 물어볼 필요가 없네? 그럼 우리학교에서 이 공간을 좀 고쳐야 될 곳.
모두: 화장실!
신: 화장실이 어떤데요?
여 2: 아, 좀 더러워요.

남 1: 왜 그 있잖아요. 변기식이긴 한데 왜.. 구멍만 뚫려져 있는 거에다가 휴지도 없
고.

여 2: 바깥에 똥 묻어 있어요.(웃음)

신: 아, 냄새나고

남 2: 우린 문이 부서 졌는데...

신: 아, 문도 부서지고?

여 1: 잠그는 게 없어요.

신: 잠그는 게 없고, 화장실 정말 고쳐야겠다. 1순위, 그럼 교실은 어때요?

여 2: 교실은 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남 1: 교실은 뭐...

신: 만약에 교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여 1: 여기처럼

여 2: 여기처럼

남 2: 바닥을 바꾸고 싶어요.

남 1: 나도

여 2: 가시 박히는 게 많아가지고...

신: 그래서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여 2: 집처럼

남 1: 이런거, 이렇게 하면 청소하기도 편한데 막 안에 끼여있는 게 많잖아요.

신: 그렇죠.

남 1: 그리고 막 기름칠 해야되고..

신: 음, 교실에는 이렇게 흠이 나 있죠?

모두: 네

신: 그런걸 이렇게 바꾸고 싶다? 또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진짜 신령님이 나타나서
3가지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준다면?

여 1: 책상을, 책상이 너무 흔들려요.

신: 책상이 흔들린다.

모두: 책상, 의자. 의자 책상!

신: 의자는 뭐가 문제예요?

남 1: 흔들려요.

신: 흔들려요? 책걸상이?

여 2: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남 1: 나사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의자가요. 그리고 딱 앉으면 흔들려요.(웃음)

신: 그 다음 바닥, 책걸상

여 2: 어... 어, 왔다.

남 1: 왔어? (다른 참여자 등장)

여 2: 어, 책걸상 하고 칠판! 화이트보드!

남 1: Y학교처럼 전자칠판.

신: 화이트 보드는 어떤 거 같아요?

여 2: 그 Y학교처럼 화이트 보드를.

여 1: 보드마카로 쓰는데

여 2: 예, 보드마카로 쓰는데...

신: 보드마카로 쓴다고?

여 2: 학교는 보드마카가 아니라, 지우기도 힘들도 털어야 되니까
 신: 안녕
 남 3: 안녕하세요.
 신: 어, 앉으세요. 이름 뭐예요?
 남 3: 고00이요.
 신: 00?
 남 3: 00이요.
 신: 고00?
 남 3: 네.
 신: 몇 학년이에요?
 남 3: 6학년이요.
 신: 우리지금 북카페에 대한 언제 이용하는지 왜 이용하는지 그런 거 얘기했구요. 지금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 가 본적 있어요?
 모두: 네.
 남 3: 네, 많이 가봤어요. 저도 지금 Y초등학교, 다른 초등학교 갔다오는 길인데.
 신: 아.
 여 2: 영주 체험센터 가 봤는데...
 신: 그런데에 비해서 남산초등학교는 시설이 어때요?
 여 2: 다른 초등학교는 우리학교보다는 인원수가 적고 하니까 시설이 좀 좋은 데가 좀 많은데 우리학교는 인원수도 많고 그렇게 학교도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 1: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가 왜 점점 줄어들 때 저희는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 음, 그래서 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남 1: 좀... (웃음)
 남 2: 좀 바꾸기가 어려워요.
 신: 아, 바꾸기가 어렵다.
 남 1: 근데 예전보다는 나아진거죠.
 신: 예전보다? 어떤 점에서?
 남 1: 일단, 북카페도 그렇고 옛날에 뭐 들어보면, 이렇게.. 왜 저런데 보면 뭐 붙어있는 것도 아예 없었구요. 뭐 계단 같은 것도 많이 불편했고.
 신: 음, 자, 00이 얘기 안 했으니까 물어볼게요. 자기, 타이도 너무 멋있다. 감각이 짱인데, 일단 북카페 딱 들어오면 느낌이 어때요?
 남 3: 좀 좋아요.
 신: 에이, 그냥 좋아요 하지 말고 좀 자세히 묘사를 해봐요.
 남 3: 네, 학교가 일단, 다른 학교보다 좋은 시설이 있어서 일단 부럽지가 않고 좀 이 학교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 음, 다른 학교가 부럽지 않고 이학교가 더 낫다는 생각. 학교가 더 좋아진다는 말이네요. 남산초등학교가?
 남 3: 네.
 신: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요?
 남 3: 네(웃음)
 신: 아, 북카페가 생김으로 인해서?
 남 3: 네(웃음)

신: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여 2: 6학년 애들이
 남 3: 뭐가?
 신: 다누리 (영주남산초등학교 북카페 이름)
 여 2: 아, 이것도 원래요 다 써가지고 아이디어 낸 사람이... 뭐지?
 남 1: 그니까 저희 선배! 저희 선배가, 그때가 저희가 5학년이니까 저희가 회장임원들
 이어도 회의도 못 했고, 저희 선배 회장들께서 서로 해서...
 남 2: 근데 한 번도 못 와 보고 갔어요.
 모두: (웃음)
 남 1: 불쌍해.
 신: 맞아. 좋은 이름도 지어주고 그죠?
 남 1: 그러니까 저희가 생길 때요, 많이 생겼거든요. 작년에 선배님들이 북카페도 하고
 저희학교 에어컨도 달고 작년에 선배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혜택을 못 받고 가셨어요.
 신: 여러분을 행운이시네?
 선배들의 덕을 보고 또 후배들에게 좋은걸 물려줘야죠?
 모두: 네.
 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아까 교실은 바닥과 책걸상과 칠판을 바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닦는 칠판은 싫어요?
 여 2: 어,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우면 좀 더러우니까 털고 지우고 해야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남 1: 그러니까 일부로 분필이 있기 때문에 지워도 흔적이 그게 좀 아무리 지워도 그
 러니까 더러워 보이고.
 신: 아, 맞아 맞아 오래 썼으니까. 그죠?
 남 1: 네.
 신: 지금 교실하고 북카페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분위기가?
 남 1: 편안해요. 일단, 딱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느낄 수 있어요. 위에 하얀 천
 장에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들어오면 색깔도 있고 딱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편안한 느낌을 줘요.
 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지금 얘기 했듯이 색깔, 또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
 여1,2: 가구, 가구
 신: 아, 가구 또?
 남 1: 이름!
 신: 이름. 아, 그죠? 또? 조명?
 모두: 네.
 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분위기라는 걸 만들죠?
 모두: 네.
 신: 그래서 딱 왔을 때 제일 많이 드는 느낌이?
 남 1: 편안하다!
 신: 편안하다. 아, 그래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구나?
 남 1: 네.
 신: 여기 외서는 주로 하는 일이?
 모두: 책보기, 컴퓨터하기, 음악듣기, 숙제하기.
 남 1: 숙제도 하고 가끔씩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저희 회장들이랑 다른 5학년 6학년

회장들 끼리 모여서 학교에 뭘 설치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여기서 회의도 하기도 해요

신: 음, 회의도 하고

남 1: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수업시간에 와서 휴식을 하던지 책을 보던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신: 자, 그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학교시설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뭐가 좋아지는거예요? 왜 학교시설을 잘해야 하는지 이건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얘기 할 거거든요? 자 많은 어른들도 있고 교육관계자 분들도 계시는데 학교시설에 왜 투자를 하고 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학생의 입장에서 왜 학교시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 2: 학생들을 위해서(웃음)

남 1: 아, 그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왜 투자를 하나고?

남 2: 아, 미안해. 미안해. 개념이 없어서 (모두 웃음)

여 1: 깨끗한 게 더 공부가 잘 돼서

신: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해 봅시다. 왜 시설을 잘 만들어야 하지? 학교 시설을? 왜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지? 공부하고 관계 있어요?

여 2: 네.

신: 시설 잘한다고 공부 잘해요?

남 1: 아니요(웃음)

신: 근데 왜 시설을 잘 해야지 돼요?

남 3: 아직 생각을 안 했어요. 잠시만요.

신: 음, 생각을 하시고. 00군

남 1: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세계랑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꼭 공부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런데 와서 창의력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서 계발해서 더 좋은.. 우리도 어른이 돼서 직장에 다니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부만이 아닌 다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많이 계발을 해야하는...

신: 시설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 시설을 왜 잘 하는 게 중요하냐? 00?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남 3: 환경이 좀 좋아야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신: 환경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죠?

남 3: 공기도 좋아지고(모두 웃음) 어, 좀 학교가 깨끗하게 보이면...

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 3:

신: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모두: (웃음)

남 3: 아니요.

남 1: 그렇죠.

신: 여러분이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영향을 줄까?

남 3: 음, 편안하게 해 주고.

신: 편안하게 해준다? 00는?

여 1: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신: 어, 어쨌어요?

여 1: 깨끗하니까.
 신: 어, 깨끗한 환경에서 집중이 더 잘 돼요? 지저분한데 보다?
 여 1: 네.
 신: 아~ 그래서 시설을 잘 하는 게 공부에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 1: 네.
 신: 확실히?
 여 1: 네, 그냥 내가요. 제가.
 신: 00의 경우는?
 여 1: 네.
 신: 00은?
 여 2: 저는 공부를 하다가 좀 지겨우면 북카페를 생각하면 공부에 좀 집중이 잘돼요
 (웃음)
 신: 나중에 갈 거 생각하면?
 여 2: 네, 기분이 좋아져서.
 신: 공부하다 힘들면?
 여 2: 네.
 신: 실제 오기도 하고?
 여 2: 네
 신: 저기 조그맣게 적어놓은 쪽지 있죠?
 여 2: 네.
 신: 저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여 2: 네. 저거는 우리 학교에서 다 프린트를 해줘서도 각각 1명씩 나눠준 다음에 골라
 서 잘한 사람만 뽑아서 저기다가...
 신: 평상시에 쓰지는 않아요?
 남 1: 평상시에도 사용은 해요. 활용은 하는데. 주로 저학년 아이들은 뭐 개네들은 그
 냥 떠어버리고(웃음) 4,5,6학년 고학년 들이 써요.
 신: 아, 그럼 여기는 1,2,3학년보다 4,5,6학년이 많겠네?
 여 2: 네, 더 많아요.
 남 1: 네.
 신: 그럼 4,5,6학년 중에서는 누가?
 모두: 5학년이요. 가까우니까.
 신: 제인 먼 학년은?
 모두: 6학년이요. 정반대예요 그래도 근데 많이 와요.
 신: 4학년은?
 남 2: 4학년은 대부분...
 신: 오늘은 사실 4, 5, 6학년 인터뷰 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4학년은 집에 가고 없
 어서 인터뷰를 못했고.
 남 1: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컴퓨터실에.
 신: 여기 그럼 남학생, 여학생 중에 누가 더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 2: 여학생이요.
 신: 아, 그래요?
 여 2: 근데 컴퓨터는 남학생이
 신: 컴퓨터는 남학생이 하고, 그럼 공통적으로는 여학생이 많아요?

모두: 네.

남 1: 공통으로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애가 와서 다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게 좀 싫은 거 같아요.

신: 한사람이 컴퓨터를 너무 오래한다?

남 1: 네.

여 2: 만약에 6학년이면은 5학년이 비켜 하면 좀 까부는 거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남 1: 근데 너무 저학년이 와도 좀 그래. 저학년이 계속 많이 하는 것도 말을 못하겠어.

신: 근데 너무 복잡하거나 하진 않아요?

남 1: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신: 아, 언제 오면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모두: 점심시간

신: 아, 밥 먹고.

남 1: 그때가 시간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신: 맞아. 그때 오면 각자? 뭐 먹기도 해요? 여기 와서?

여 2: 아니. 그 뭐지? 원래는 음료수 이런 것도 다 하기로 했는데 아직...

남 1: 되긴 되는데 보통 때는 아이들에게 왜 준다고 하면 다 오기 때문에 (웃음)
보통 때는 못 주고 학생들 데리러 오는 어머님들은 커피나 마실 수 있고

신: 어머님들도 선생님들도

남 1: 네.

신: 와서 어머니나 선생님들 계셔도 학생들도 이용해도 되죠?

모두: 네.

신: 반에서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모두: 네.

신: 이야, 진짜 자유로운 카페다. 그쵸?

모두: 네.

신: 좋은 거 같아.

모두: 네.

신: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랑한적 있어요?

모두: 네, Y초예요. / 없어요. / 없어요.

여 2: 그런데 개네들은 영어 체험단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와봐서 그렇게 좋은지는 몰라요.

신: 아주 좋은지는 모르지?

여 2: 네.

신: 다른 학교 학생은 올 수 없네?

여 2: 올 수도 있어요.

신: 올 수 있어요?

여 2: 네.

남 1: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가 여기까지 오기는 좀.

신: 그렇죠.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모두: 북카페

신: 북카페?

모두: 네.

신: 북카페 가자?

모두: 네.

신: 고맙습니다. 뭐 나한테 궁금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이런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고 마치죠.

모두: (웃음)

신: 00부터

여 2: 네?

남 2: 나 할 말 없는데?

신: 북카페에 대해서도 좋고 학교에 대해서도 좋고

여 2: 음, 조금만 더 좋게 했으면

신: 어디를?

여 2: 화장실 (웃음)

신: 화장실을? 북카페는 더 좋아지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 2: 이 정도로도 만족을 해야죠.

남 1: 없어요.

신: 이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요?

여 2: 네(웃음)

남 1: 더 좋을 게 없죠. 뭐 더 좋게 할 수가 없는데?

신: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모두: 네.

신: 00은?

여 1: 뭐가? 아, 궁금한거요? 근데 왜 이 인터뷰 왜 하는거예요?

신: 뭘?

여 1: 이 인터뷰.

신: (웃음)이 인터뷰 왜하냐면 여러분이 새 시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 1: 네.

신: 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맨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하는가 00은 학교시설이나 환경개선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고: 네?

신: 그러니까 다른 초등학교도 이런 걸 만들어 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고: 학교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직까진 바꿀게 없다고 생각해요.

신: 아직까지는?

고: 네.

신: 00군,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고마운데, 학교에는 휴식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남 1: 네, 근데 너무 애들이 많이 붐벼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해줬으면 하는...

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00은?

남 2: 그냥 이런 데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신: 어, 지금은 새 거니까 다 깨끗하고 좋죠?

남 2: 네, 화장실 빼고는

신: 화장실 빼고 학교 뭐 다른 데는 다 좋아요? 운동장이나?

여 2: 잔디 깔았으면...

남 1: 잔디는 안돼. 잔디는 아직 많이 남았어.

신: 여길 계속 유지했음 좋겠다?

여 2: 네.

신: 알겠습니다. 북카페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네.

신: 자, 과자도 하나씩 먹고. 고맙습니다.

(2) 교사 인터뷰

날짜: 2009. 9. 28

장소: 북카페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이00), 남2(김00), 남3(신00), 여1(이00), 여2(박00)

남 1: 지금 남산초등학교 1051명 고정도 되가지고 여기 지금 역사가 24회 이제 지금 24회 밖에 안 됐어요. 졸업생이 24회 나가 가지고 동창들이 많이 없어서 그 지은 지가 오래 안 돼보여서.

신: 선생님, 이리로 오세요.

남 1: 영주는 처음이신가 봐요?

신: 네, 오늘 처음 와 봤어요.

남 1: 그러시구나. 아이고, 생소하시겠다.

여 1: 진작 또 연락을 하셨으면, 점심시간에 또 맛있는 것 좀 대접을 해 드릴 텐데.

신: 이 공사 하실 때, 선생님들도?

여 1: 같이 참여하시고

남 1: 저희들은

신: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남 1: 어, 처음에 공작 이런 거 할 때 본관공사 이런 거 할 때, 선생님들 다 애들하고 뭐 의논해서 한 거,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어디 공간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신: 그럼 의논, 학생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거 조사하셨어요?

남 1: 그러니까 애초부터 조사가, 본관공사 이런 게 아동들 휴식 공간 해가지고, 주로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이 주가 아니고, 애들 위주로, 애들이 어떻게 하면 빈 교실을 이용해서 좀 더 그런 활동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목적에 해서 하려니까 뭐, 애들만이 아니고, 학부형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이런 거 전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신: 지금 설문을 하셨어요?

남 1: 처음에 설문도 했고요. 설문도 했고.

신: 설문에서 주로 뭘 보셨나요?

남 1: 그러니까 좋은 거, 하면 어떤 게 좋을까. 뭘 했으면 좋겠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뭐 지들끼리 싸울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쉽게 말하면. 막 여자들은 그런 거 하잖아, 지들끼리 소리질러가며, 뭐 그런 공간도 좋다는 거야. 지들이 가서 싸울 수 있는 곳. 지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그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왔어.

신: 그럼 쉽게 말하면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여 1: 그렇죠.

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 1: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북 카페. 교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무의미 한 거예요. 자유롭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제가 옆 교실이다 보니까 너무 제재를 많이 가하게 되더라고요.

남 1: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 1: 네, 왜냐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 시설이 6개월 만에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지금 관리 한 차원이 이 정도거든요. 관리 안하면 이런 기물 같은 게 막 파손되고

남 1: 와서 장난치고.

여 1: 심해요 장난이,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본의 아니게 악역을 하게 됐어요.

신: 어, 선생님 힘드시겠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여 1: 네, 제가.

남 1: 담당 선생님. 원래는 제가 작년에

신: 선생님 성함이?

여 1: 저요? 이00.

신: 이00 선생님, 몇학년?

여 1: 5학년 3반.

남 1: 작년에 그 설계를 교장선생님 하고 저하고, 이제 다 했거든요. 사실은 상도 문관 부서 제가 받고 그랬어요.

신: 상을 이리로 주셔야겠네요.

남 1: (웃음)

여 1: 아니요, 오기 전이에요, 오기 전에.

남 1: 그렇죠. 선생님 오셔가지고 교실이 가깝다고, 또 교무실에 있다 보니까 또 안 되잖아요. 가까이 계신 선생님이. 좀 부탁 좀 드렸죠 뭐.

신: 아유, 선생님 힘든 일을 맡으셨어요.

여 1: 힘 들다기 보다는

남 1: 즐겁잖아요.

여 1: 네, 즐거워요. 즐거운 일 맞아요. 힘들다기 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항상 아이들에게 눈길을 줘야 하니까. 한눈 조금만 팔면 자기들끼리 뭐 다툼도 좀 일어나고, 다툼까지는 괜찮은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보시다시피 다 유리잖아요. 이런 유리여가지고, 어 이용해도 돼. 이런 유리 다 보니까, 이런 제가 그냥 두면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한번 파손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유리가 한번 깨져가지고, 그때 누군가 한번.

신: 장난치다가?

여 1: 장난 치려고 친게 아니고, 의자를 한번 이렇게 밀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니까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거죠.

신: 선생님은 성함이?

여 2: 저는요 박00이요. 5학년 4반 선생님.

신: 저는 신나민 이구요. 5학년 선생님 다 오셨네.

여 2: 이제 6학년 선생님들 오실거예요. 가까이 계신다고 해서.

신: 교무부장님은?

남 1: 저는요 이00입니다.

신: 답임은 안 하시고요?

남 1: 예, 저는 체육 전담만 하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몇학년이 제일 이용 많이 하냐고 그니까 5학년이.

남 1: 5학년 맞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여 2: 사실 저쪽에서 오려면, 저쪽 본관에서 오려면, 1,3,6학년이 있거든요. 특별히 하루 쉬는 시간, 2-30분 쉬는 시간 아니면 10분 타임에는 잘 못 오죠, 여기까지는. 왔

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사실 아까 이게 좀 중간 쯤 가 있으면 여럿이 이용해도

신: 접근할 때

여 2: 네, 그게 쉬운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보면, 저쪽 건물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오셔도, 특별한일 아니면, 학부모들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여기까지 오셔서 쉬실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떨어져

신: 선생님들 휴게실은 있으세요? 그럼?

여 2: 없어요.

남 1: 따로 이게 준비실, 연구실 있는 반도 있고 없는 반도 있고, 주로 없어요 근데. 학년별로 있는데.

신: 그럼 선생님들은 자주 오시게 되세요?

여 1: 저희는 같은 건물에 있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신: 티타임을 여기서 안에서 하세요?

여 2: 여기서.

여 1: 애들이 저쪽을 이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수업 비는 시간에 체육선생님 오신다거나, 다른 선생님 들어오실 때, 저희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실을 비워 줘야하니까. 여기 와서 뭐 일기장 검사도 하고, 숙제 검사도 하고.

신: 그렇게 하기에 편하시죠?

여 1: 네, 저희들은 진짜 좋죠 뭐. 네 차도 그냥 편하게 마실 수 있고.

신: 그럼 이런 공간이 없을 때는 선생님들이 중간에?

여 1: 복도나 교무실에 가 있거나 차는 복도에서 마시고.

신: 아무래도 개인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여 1: 그렇죠.

신: 또, 간단한 회의하기도 좋으시죠?

여 1: 네, 소모임 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상담, 학부모 임원회의, 또 녹색 어머니회, 북카페 어머니회. 도서관 어머니회.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모임하기가 엄마들 회의할 때 간단한 뭐 우리 녹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작게 지난번에 뭐 할 때 했었지? 생활규정 뭐 그런 거 짜고 그럴 때 회의 할 때 이 테이블이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신: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시거나, 디자이너하고 의견을 논의하시거나.

여 1: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아, 이쪽으로 오세요.

신: 선생님 성함이?

남 3: 신00입니다.

신: 신00 선생님. 6학년?

남1, 3: 아니 5학년.

신: 5학년 몇 반?

남 3: 6반.

신: 반갑습니다. 저는 신나민입니다.

남 3: 카페 앞에 이용하는 것 때문에 물어 보실 게 있으시다고

신: 선생님도 카페 많이 이용하십니까?

남 3: 가끔,

신: 데이트를?

남 3: (웃음)

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는지?

남 3: 그러니까 비는 시간 있으면 책도 좀 보고, 교재 연구도 하고.

신: 어디서?

남 3: 여기 와서 일기 검사도 좀 하고

여 1: 거의 뭐, 비슷하게 이용합니다.

남 1: 선생님, 3월에 오셨거든요, 선배님들 있으면 겁나서 못 와요.

신: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다른 학교는 이런 공간은 없죠? 다른 초등학교에..

남 1: 네, 그렇죠, 처음 첫 발령.

신: 첫 발령이신데 엄청 좋은 학교로 오셨네요.

여 1: 그래서 다른 학교 가면 실망할까봐 조금만.

신: 학생들이, 선생님 뭐 비교하실 수는 없지만 여기 있을 때 하고 없을 때하고,

남 1: 이 공간이?

신: 네, 이공간이 차이나는 점이나 공간에 대한 코멘트나 들어 보신 게 있으신지?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 1: 일단 걸으려는, 야 좋다. 우리학교도 저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회의나 이런 걸로 오시면 또 교장선생님 자랑하시고 싶으셔서 한번 또 초청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이런 게 있다 보여주시려고. 전부다 부러워하시죠, 부러워하시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여 1: 이리로 오세요.

남 1: 우리학교 잘생긴 선생님들만 다 모시느라고 그래.

신: 그래서 교무부장님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여 1: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안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와가지고, 방과 후에 자유롭게 컴퓨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책보고, 책보는 자세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직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다리 킁 하고 올리고 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용해요, 그런 거는 제재 안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비는 시간 있잖아요, 학원은 3시 반에 가야 하는데, 3시에 마쳐서, 30분 빌 때 그때 주로 많이 이용해요.

신: 맞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초등학생한테 휴식공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날 환경개선을 습관 생각하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신나민 이고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남 2: 김00입니다.

신: 김00 선생님. 6학년?

남 2: 3반입니다.

신: 자, 그래서 지금 북 카페가 생기고 나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남 2: 다른 분들 다하셨는지?

신: 네, 다 하셨어요.

남 2: 학생들이 우선 북 카페가 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거 보다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어떤 정숙 된 분위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편한 자세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도 좀 하면서 여유도 즐길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학습 자료를 조금 더 찾는다던지 아니면 취미나 관심 있

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여기 5학년 건물에 있어서 그런지 잘 이용하면서 학부모님들도 도와주고 해서 학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류도 잘 되어 있고,

신: 또 공간이 커뮤니케이션을 바꾼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 2: 네, 그렇죠.

신: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여 1: 6학년 애들도 집에 가기 전에 빌 때, 운동장에서 서성거려야 하니까 한번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 3: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필요한 것을 저희들도 느껴요.

신: 맞아요.

여 1: 하기 전에는

신: 하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치처럼,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그냥 좋지, 이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학생들 갈 데가 없으면 막 이렇게 헤매잖아요, 길거리, 문방구, 오락실.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갈 곳을 마련해 주면 될 걸. 정말 다른 학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자기들이 편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여 1: 저희들도 저쪽 건물에 2,4 학년도 쉬는 시간 되면 막 뛰어와요. 여기 앉아있다 가려고 누워있다 가려고.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도 교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보다는 편하니까 아무래도.

신: 북 카페에 대해서 언급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애들이?

남 2: 그럼요, 선생님들이 북 카페 가면 좋은 책들 있다. 시설이 좋다. 가끔가다 학부모님들이 음료수나 이런 거 줄때도 있다.

여 1: 자주는 못 하죠, 가끔씩, 진짜 가끔씩 하고. 원래 저희들이 예산이 좀 되면, 제가 이번에 처음 맡아가지고, 저희가 2학기 때 예산이 되면 북 카페 운영비 같은 것도 예산에 책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책정 미처 못 했어요. 운영비까진 아직 잘 안 되는 가끔씩 어머니 도움을 받거나.

신: 유지, 운영

여 1: 네, 유지, 운영. 다 됐는데, 운영비가 좀 책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 디자인이나 이런 분위기는 다 만족 하세요?

남 2: 네 좋습니다, 아주.

남 1: 하고 나니까 참 잘했다, 세련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 1: 잘 했어요.

남 1: 그냥 애들한테 싫증 안 나고.

여 1: 우리 아이디어론 이렇게 안 나오지. 못 하지.

남 1: 전문가가 했어 전문가가. 공간을 아주 공간을 이용을 잘 했어. 원래 설계 할 때 몇 차례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설계도 퍼 놓고, 도서관에 빔프로젝터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공간 공간을 참 구성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신: 사진에서 보던 거 보다 훨씬 와 보니까 좋네요.

여 1: 처음에는 너무 여러 가지를 넣으려고 해서 조잡하진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 너무 좁은 공간에?

여 1: 네, 너무 좁은 공간에. 컴퓨터도 넣고, 카페같이 커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넣고, 책도 넣고, 너무 여러 가지를 줌, 여기 북 카페니까 그냥 책 읽는 공간을 편하

게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신: 지금 보시니까 아기자기 하게 다 들어가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남 2: 학교 규모가 굉장히 큰데, 북 카페도 좀 더 컸으면, 이 건물에 이거 하나 있는데,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쫓 멀거든요. 쉬는 시간에 올 거리는 아니고,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이용을 하는데, 하나 더 있었으면. 하고 나니까.

여 1: 우리 애들 학년차이도 많이 나니까. 6년 차이니까. 5-6학년 있으면 저학년들은 좀 어려워.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들을 못 받을 수는 없으니까.

신: 그렇죠. 1-3학년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모두: 아니요.

여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검색도 해. 점심시간이 달라요, 1-2학년은 3교시 마치고 점심시간이거든요. 저희들 4교시 수업할 때 차지하고 2학년 차지. 우리 수업할 때 개들은 점심 일찍 먹고 와서 자기 맘 대로예요, 막 뛰고 소파에서 쿵쿵 뛰고. 2학년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니까. 알짜배기 시간이용해서.

신: 2학년 하고 5학년 하고. 선생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연령별로 보시면.

남 1: 여기는 연령을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데, 거리상 좀 가까운 분들.

여 1: 5학년 선생님들, 5학년 선생님들이 주로 잘...

남 1: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왔다던가, 엄마들 몇 분이 이렇게 오셨다던가, 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교실에서 그냥 애들 다 보내고 이렇게 했다 던가 이랬는데, 이제 이쪽으로 모시고 오죠.

신: 전화 연락도 되나요?

여 1: 전화는 여기는 없어요.

신: 혹시 예약을 안 하면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여 1: 아, 그런 건 없어요.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하죠.

여 2: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담당선생님이 바로 옆 반에 계시구요.

신: 그 다음에 자료도 보시구요?

남 1: 네, 동영상하고 뭐.

여 1: 저는 오랜 시간 틀어야 하니까 많이는 못 봐요.

남 1: 장소가 이렇게 협소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못 보지.

신: 네, 그럼 그냥 회의 할 때 자료 보실 정도군요.

남 1: 네, 그 정도.

여 1: 음악은 자주 이용하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 컴퓨터. 애들이 컴퓨터를 제일 좋아해요. 숙제도 하고.

신: 근데, 컴퓨터실은 자유롭게 못 쓰죠?

남 2: 아니요, 컴퓨터실도 쉬는 시간엔 쓸 수 있는데요.

남 1: 근데, 수업도 있고 방과 후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가진 못하네요. 도서관에도 있고 있긴 있거든요.

신: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중복 될 수도 있잖아요. 도서관에도 책이 있고, 여기도 있고,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 1: 달라요, 용도가 달라.

신: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여 2: 네. 네.

여 1: 즐겼어요, 컴퓨터 뒤에 즐겼어요.

신: 그게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다들 짐작하고 계시듯이 일단 공간이 좋다는 것. 편하다는 것, 여기 오면. 학생도, 교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편한 공간이 없는데, 학교공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발상을 새롭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다 화장실 계획하는 것만 있는데, (남 1: 맞습니다.) 서울, 화성, 밀양, 지난 주에 밀양 갔고, 여기 와서 내일 전주로 마치게 되는데. 북 카페는 처음 보고, 휴식 공간이 얼마나 중요 한가. 시골학교들은 빈 교실이 많기 때문에

남 1: 많아요. 많은데 예산이

신: 근데 도시학교는

남 1: 이게 5천 만원 들은 예산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걸 해줄라나. 작은 학교에, 하면 좋죠. 저 봉화만 나가도 한 학교에 2-30명 되는 학교도 많아요. 학교가 전교생들이. 근데 좀 아마 힘들거예요.

신: 남산초등학교는 규모가 큰 학교고, 여기 이 시설 말고 다른 곳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간이. 선생님들 보시기에.

남 1: 오늘 뭐야, 화장실 봐 가지고, 애들 대부분 화장실 얘기 나오고.

여 1: 거의 대부분 화장실 얘기 많이 나오고.

남 2: 우리 반도 설문 해 보니까 화장실 조금 더 그런 얘기.

여 1: 네, 거의 화장실 얘기가 많았어요. 불편하네요. 왜 불편하지? 화장실도 고치고, 교무실도 고치고.

남 1: 많지 뭐.

여 1: 특별실 같은 거 그런 거.

신: 하나씩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교실은 좀 어떻게 바꿨으면 선생님들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여 1: 일단 교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다 잘 되어 있고, 뭐 고치면 좋겠지만, 수도 시설 같은 게 하나정도 있으면.

신: 수도요?

여 1: 네, 간편하게 싱크대 같은 게 하나 들어와 있으면 뭐, 손 씻는 것도 좀 자유로울 거고, 좀 위생적일 거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없을 거고. 책꽂이나, 애들 책꽂이 좀 불박이로 이렇게 있으면 좋을 거고, 신발장도 너무 지저분하고. 바닥부터 벌써 저기잖아요. 옛날 그 마루. 애들이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을 수가 없는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 못 해 책상 밀어 놓고 앉아서 놀 수 이런 거 뭐 안돼요. 신문지 한 장씩 들고 다 깔고 앉아야 되요. 기름걸레 들고 칠하고 뭐 이러니까. 그럼 이제 겨울 되면 애들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오거든요. 두꺼운 외투를 주로 의자 뒤에 걸쳐 놓는 거 예요.

여 2: 그래, 책가방 놓을 장소도 없고.

여 1: 그런 외투가 전부 세탁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손세탁 안 되고 드라이 맡겨야 하는. 바닥에 떨어지면 났고 이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어서 놓을 수 있는 옷장 같은 것도 아이들 수만큼 있으면 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방도 딱 집어넣어 놓고 밑에는, 위에는 옷장에다 딱 걸어 놓고, 이러면 애들이 좀 학교 공간도 좀 넓어지고, 공간도 좀 넓어질 뿐 아니라 옷도 좀 깨끗하게 보관하고 엄마들도 손도 좀 덜 쓰일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신: 지금 한 학급에 몇 명 정도죠?

여 1: 32명에서 34명 정도.

남 1: 34명이 지금 기준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사실 좀. 다 공통적인 애긴데, 애들이 좀 20명 일단은 그 정도도 많다는 거죠.

신: 근데, 가르치는 부분에서 불편한건 없으세요? 내가 수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학교 교실 자체가 주는 제약 때문에 많이 하고 싶은걸 못 한다 이런 거.

여 1: 있죠. 뭐 하다못해 뭐 다용도 실 같이 체육 같은 거 예를 들면 스트레칭을 뭐 가르쳐 준다던지, 줄넘기 같은걸 하고 싶은데 체육관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교실 빈 공간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매트나 이런 게 있다 던지 그러면, 그런 데 데리고 들어가서 뭐 물구나무서기라든지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무용 같은 거 포크댄스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우리는 학교가 체육관 지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다용도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신: 현재 있는 교실에서 시설이나 뭐 이런 거 바꾸고 싶으신 건?

여 1: 음, 지금 있는데서요?

신: 네.

여 1: 인제 교실바닥, 그치? 그건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제 연차적으로. 올해는 뭐 저쪽 건물. 몇 해는 또 어느 쪽 건물. 연차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뭐 좀 많이 시급하죠.

신: 그런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고학년도 좀 그렇고 시설투자에 대한 거 하 잦아요? 효과가 무엇이나, 이거 제목이 굉장히 어려운데. 당장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문 인터뷰도 종합적인 자료 중에 하난데, 가장 아쉬움을 많이 갖는 부분은 이게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설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원하거든요. 일단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여기는 지금 3월에 북카페를 열어서 이 효과를 지금 장기적으로 못 보셨잖아요. (여 1: 그렇죠.)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게 돼서, 일단을 학생들이 한 것만을 봐서 학교가 좋아졌대요. 다른 학교에 없는 게 있다 우리학교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 예요. 또 누구는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다가도 북 카페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진다. 나중에. 그런 식의 정서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꼭 여기 남산초등학교 북 카페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을 왜 담당자나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교사들의 입장에서 좀 생생하게 얘기 해 주신다면. 신00 선생님. 왜 시설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남 3: 음.

신: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말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남 3: 약간 여건이 개선 되 야지 교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도 여건이 뭐든 잘 되어 있으면 좀 더 나은 효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든 뭐든, 여기 와서 일기 검사를 하든 아니면 교무실에 가서 하든 뭐 빈 교실이 남는다는 똑같은 텐데 뭐 효율성이라던가, 가까운데서 더 나은 환경에서 뭐 이런데서 빛도 들어오고, 이런데서 하다 보면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그렇죠, 뭔가 모르는데, 뭔가 넓은데 와서 그렇죠.

여 1: 근데 솔직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비슷한 환경에서 진짜 교실 환경은 너무 오랫동안 안변해서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바꾸는, 뭘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좀 그런 게 많아요. 이 교실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도 모른다니까요. 이런 공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른다구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래된 선생님들

은. 그냥 적응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니까. 솔직히 하다못해 점심시간 가서 물 한 컵 먹는 거 외에는 선생님들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하루 종일 아침에 교무실 들러서 커피 한잔, 점심때 급식실에서 물 한잔, 그럼 끝이에요. 하루 종일 안 먹고 갈 때도 있어요. 내가 부지런하면은 물병도 들고 다니고 이라고 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편하다고 생각을 못 느낄 정도로 말하자면, 교실에 애들도 그래요. 컵이고 뭐고 진짜 지저분한 주전자에 물 떠다 먹고, 그냥 뭐 여럿이 먹는 컵에 물을 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바뀌줘야 밖에서라도 바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에 있는 걸 의식을 깨뜨려 줘야해. 말하자면, 안에 있는 사람은 못 깨뜨리니까. 또 애들이 그걸 바꿈으로써 처음에는 지금은 옛날에는 다 못 살았지만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화장실도 집에서 막 좋고, 비데도 있고 이런데 있다가 물도 뭐 진짜 정수기에서 이런 물 먹다가 주전자에 떠다 먹고 하러니까 불편하지. 지금도 뭐 공부시간 중에도 나와요. “선생님, 물 먹으러 가면 안 되요?” 그것도 또 어떤 때는 주전자에 없으면 저 급식소 앞에까지 걸어 가야해. 1층까지. 저쪽 본관까지. 또 물을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야 좀 참아라, 쉬는 시간에 가라” 이래야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옷이 좀 떨어지면 뽀뽀하고 다녀야하고. 뭐 실내화 안가지고 오면 은 뭐 맨발로 양말이 새 까맣게 해가지고 애들이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실내화 안 가지고 왔어요.” 말 못하면 그냥 맨발로 까맣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진짜 너무 열악해요 학교는요.

신: 선생님 핵심을 짚으셨어요. 너무 똑같은 환경에 우리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 공간, 이 한공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효과가 전이가 되더라 구요. 그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꿨는데, 다른 공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다 조금씩 바꾸고 그러면서 학교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데 또 예산을 따오기도 여길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필요 하더라 하면서 명분이 생긴대요. 그래서 전남교육청, 밀양시, 이렇게 해서 이 학교는 계속 그렇게 퍼져나가고,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여기는 북한학교인가 생각했을 정도로 벽에 금이 안간 데가 없었대요. 철근이 바깥에 보이고, 그러던 학교가 이제는 조경 사업으로 바깥에 나무 심고, 속은 화장실 이런데도 바뀌고. 그러고 음악실도, 이렇게 하니깐 다 바뀌는 거죠. 지역사회에서도 이 학교를 다시 보고, 들어오면서 이 학교는 쳐 다도 안보고 떠나던 학교였는데, 주변에서도 찾아오고, 와서 보고 여긴 다녀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운동장에 아주 어두웠는데 불을 세 군데를 딱 밝혀놨대요.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교장선생님도 초대를 해서 도서관 이었나? 음악실을 거기를 이제 음악 카페처럼 누구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모임 하는 장소로 빌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완전히 그렇게 살아 난거죠. 그래서 조그만 한 것부터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능하게.

여 1: 그거를 확산을 잘 시켜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위축이 되는 게 뭐가 있는냐면 이거를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이용하는 학생들이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혹시 부서지지는 않을까.

신: 그게 의식하게 되는군요.

여 1: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신: 시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여 1: 그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게 생길수도 있거든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좀

사고를 많이 바꿀 필요가 좀 있죠. 애들도 그렇고. 아까도 애들이 화장실을 바꿔야 한다고 그렇게 막. 바꾸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이 문화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화장실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 애기들을 좀 했거든요, 애들한테 카페가 있으면 요일별로 여긴 몇 학년 몇 학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여럿이 들어 오면 책을 아무데나 놓고 간다던지 의자를 막 위에 올라가서 논다던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런 수준이 돼야지 만 이걸 그냥 편안하게 막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신: 그럼 혹시, 다른 초등학교에서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남 1: 적극 추천을 하죠. 근데 이게 참 긍정적 인거죠. 학교도 행사차원에서 하는 이런 거 예, 저희도 교장선생님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도 보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다 화장실이건 이런 거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꾸리라 생각 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냥 조금 조금 고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다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신문을 보시고 응모를 하신 거거든요. 나중에 방향이 바뀌었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학교에도 소규모 학교 이런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 아주 활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적극 추천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남 1: 그런 쪽에서라면 그쪽 지역이나 학교에 맞는 디자인 공간. 예를 들자면 면부로 간다면 시골이잖아요. 시골농사 짓는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이런 거

여 1: 헬스장 같은 거.

남 1: 헬스장 좋지.

여 1: 시골은 시골답게, 도시는 도시답게. 빈도수에 맞춰서 시설 약간씩, 변할 수 있으니까.

남 2: 처음 지을 때 계산이 되었으면, 학교 다음 학교가 만약 세 번째 네 번째 학교여서 다른 분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면 우리가 크면 여기서 재투자해서 또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한 번에 지을 때 크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고.

신: 처음에 기획할 때 오래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

남 2: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학교 급수에 비해 작는데, 한 번에 짓고 또 그다음에 지으려면 예산이나 한 번에 두 개 짓는 예산이나. 그러려면 한 번에 크게 짓는 게.

여 1: 그리고 또 예산이 허용 한다 면은, 운영 할 수 있게, 여기 지금 북 카페잖아요? 북카 페니까 주기적으로 잡지라던가. 지원을 조금 작은 액수지만 지원을 해준다면 운영 할 수 있는 그제 더.

신: 정기 간행물 같은 거?

여 1: 네, 정기 간행물 같은 거.

신: 교사, 학생들 별로?

여 1: 그런 것 좀 해주면, 꾸준히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 제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건의 사항에 정리를 해서. 왜냐면은 다른 학교들 다 화장실 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북 카페가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 1: 이게 좋게 가면 확산이 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 이게 2008년도에도 하셨다고 했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평가하기를 성공적으로 봤어요. 이번에는 확대를 했어요. 10건가 11건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보고 싶고,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잘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 1: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화는 밖에 나가면 문방구 하고 PC방이에요.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화공간을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도 이런 야 우리 이런 멋있는 카페가 카페 이런데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작은 의자에 앉아서 얘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탁자 이런데 작은데 앉아서. 그니까 그렇게 앉아서 우리도 어른들처럼 이런 멋있는데 가서 커피숍에 가서 하듯이 분위기를 내는 거 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문화를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 그게 문화부의 정확한 취지였잖아요. 교육과학부가 아니고, 왜 문화부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명분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것을 바꾸면서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목표였죠.

여 1: 여기 오면 멋있어 지잖아요. 이렇게.

신: 선생님들이 더 멋있죠. 선생님들 또 너무 너무 이야기 잘 하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모두: 감사합니다.

신: 혹시 서울 오시거든 D대학에 있으니까 네 미리 전화나 이메일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 1: 우선은 영주시 교육청에 뭐 의뢰를 하고, 뭐 경상북도로 의뢰하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요거 잘 안되죠? 내가 봤을 때.

여 1: 요즘은 그 거기 Y중학교 하고, Y중학교 운동장.

남 1: 그거는 국민 체육공단에서 해주는 건데, 지금 all stop됐어. 하다가 공단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매 해마다 그래도 그거로다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었거든, 2010년에. 거기 의회에서, 근데, 그 행사가 all stop됐어.

여 1: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더라? 무슨 도셔도 그런데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받고 그러더라고.

신: 네, 굉장히 교장선생님이 열성을 다해서

여 1: 적극적이시고.

남 1: 여기서 후원해준 데서는 안 해주겠죠? 문광부.

신: 서울에서는 지역주민 중에 또 기업하시는 주민들을 또 많이 활용해요. 꼭 학부모 아니더라도.

남 1: 전주나 밀양에서도, 전주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10억이면 1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후 원 얻어가지고 문광부 교육청에서. 걷어가지고 했잖아요?

신: 영주는 예산이 8억이라던데.

남 1: 여기는 뭐,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던데 1억 주고 10억 짜리 공사를 하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돈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 그만큼 노력하셔야 하고. 다 쫓아다니셔야 하고. 동창회, 또 역사가 짧아서 동창회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데서 손 벌릴 수도 없고. 그걸 다 인맥으로 찾아다니면서 하셔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참 어려우실 텐데.

신: 참 이상한 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아주 열악하고 없는데 보다는 기반을 만들고 하나를 한대로 꼭 주시더라고요.

여 1: 그니까 뭐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는걸 보시려는 거 예요. 그런 것 같아요 좀. 하려는 뭐라나 원하는 마음이 많으면 뭘 줘도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신: 우리 교장선생님도 참

여 1: 적극적이죠.

남 1: 여기가 고향이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영주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 그것도 공통점 이었어요.

남 1: 다른 교장선생님들이?

신: 네.

남 1: 애초부터 그런 의도가 아니면 시작도 못 하지.

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교장의 이미지를 다 깨주셨어요. 정말 달랐어요. 선생님들 퇴근하셔야지, 제가 너무 오래. 죄송해서... 감사합니다.

5. 전주 양지중학교

(1) 학생 인터뷰

날짜: 2009. 9. 22
장소: 희오갤러리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강00), 남2(김00), 여1(이00), 여2(유00), 여3(김00), 여4(김0)

신: 자, 여기 무슨 중학교죠?
모두: 전주 양지중학교
신: 좋아요? 학교?
남1: 네.
신: 뭐가 좋아요?
여 1: 화장실이요.
신: 화장실 좋아요?
모두: (웃음)
신: 언제부터?
여 1: 저희 들어올 때 되어있었어요.
신: 아...그렇구나. 1학년은 복 받았네.
여 1,2: 네(웃음)
신: 잠깐만요. 내가 누군지는 안 궁금하세요?
여 4: 궁금해요.
신: (웃음)나는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신나민이에요. 이쁘죠?
여 4: 네.
신: (웃음)남자학생들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 4: 다들 경직되어있어.
신: (웃음)잠깐만요. 네. 이름이...00? 반갑습니다.
남 2: 네.
신: 각자 이름들 좀 말해봅시다. 이름이... 00?
남 1: 네.
신: 아이쿠. 왜 이렇게 이름들이 이뻐? 강00 건너서 밀밭길을...
모두: (웃음)
신: 몇 학년이에요?
남 1: 중2요.
신: 응. 그 다음. 00?
여 2: 네.
신: 몇 학년이에요?
여 2: 1학년이요.
여 1: 이00이요. 1학년이요.

신: 음음?
 남 2: 3학년이요
 신: 00, 3학년.
 여 4: 3학년 김0이요.
 신: 김0.
 여 4: 김0이요. 외자예요.
 신: 멋있다. 남자같다. 그지?
 여 4: 예(웃음)
 신: 나 그런 이름 좋아해. 멋있다.
 여 3: 김00, 2학년이요.
 신: 김00. 2학년. 00 헤어스타일 멋있다.
 신: 자, 학교가 좋다. 화장실 좋다. 왜 좋으냐.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좋았다. 언제 비교해서 지금이 좋아요?
 여 1,2: 초등학교
 신: 아. 초등학교보다 지금 화장실이 좋다. 2,3학년은 옛날 화장실 기억나죠?
 모두: 네.
 신: 지금 바뀐 거,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여 4: 일단, 화장실 자체가 앞에 있던 개수대를 없애고 좀 더 넓어졌고요. 바뀌면서 많이 깨끗해진 것도 있고. 옛날 화장실은 좀 좌변기가 아니라서 그런 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신: 깔끔하고 좋아졌다. 깨끗해졌다. 또? 남학생들은?
 남 2: 쓸 수 없는 물건들이 고장난 게 많이 있었어요. 부서지고, 그거를 많이 고쳐주고요.
 신: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여 3: 저는 전학 와서, 저는 옛날 화장실을 못 봤는데요.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밝고.
 신: 어. 밝고 깨끗하고 좋아졌다. 화장실이 좋아지는 게 중요해요?
 여 2: 네. 예전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고요 초등학교 때는 잘 안 들어갔거든요. 화장실 바뀌면서 문도 핑크색이고요.(웃음) 꼭 그렇다기보다는 들어가기가 별로 꺼려지지 않는 그렇게 되서 그러고 옆에 화장실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물건을 놓을 수 있게 돼있거든요. 옷을 걸을 수도 있는 거 원래 다 있잖아요. 근데 물건을 따로 놓기는 힘든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체육복 많아가지고 그런데 떨어질 위험도 없고 그래서 훨씬 편하죠.
 신: 음. 남자 화장실은 어때요?
 남 1: 남자화장실도요. 디자인도 좋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조금 자연적인 느낌도 들고 또 체육을 하고 나서 씻을 때요. 옛날에 세면대는 더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깨끗해지고 비누도 놓고 또 건조하는 그 손 말리는 것도 있으니까 좋았어요.
 신: 좋다 되게 화장실이 바뀌고 깨끗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네. 화장실이 바뀐다고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건 아니잖아요?
 남 2: 그게요. 화장실은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잖아요(웃음)
 신: 맞아요. 맞아요.
 남 2: 그런데요. 욕구충족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되야....
 여 2: 기분이 좋아진다?

남 2: 응. 기분이 좋아져요.

신: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지는 게 왜 중요해요.

여 2: 공부하기에 마음이 편하잖아요.

신: 공부하기에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이 깨끗하는게 공부하기에 도움이 되네요.

모두: 네.

신: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화장실 외에 많은 공간이 바뀌었죠?

모두: 네.

신: 그 다음으로 어떤 공간이 제일마음에 들어요?

모두: 여기(회오갤러리)

신: 여기는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나요? 어떨 때 와요?

남 2: 친구들끼리 오고 얘기 할 때

여 1: 그림도 계속 바뀌니까 요즘에는 여기서 그림 전시한 거 보는 거니까 굳이 안가도 되잖아요.

신: 음. 맞아요. 지금 그림도 좋은데... 그림이 계속 바뀌어요? 아...누가 바꿔줘요?

모두: 네. 학교에서 전부.

여 4: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다 전시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학생들 작품을 잠깐 잠깐 놓을 때도 있고 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주 해주세요.

신: 오, 와서 실제로 그림 봐요?

모두: 네.

신: 좋아요?

여 3: 점심시간에도 와서 여기 모여가지고 놀고 그래요.

남 1: 여기서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그림에 대해 얘기도 하니까 서로 교감도 되고.

신: 우와, 여러분 예전에도 그림에 관심 있었어요?

모두: 아니요. 그런데 갤러리가 생기고 나서.

여 4: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생기자 보면 애들 호기심으로 와볼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그림 많이 보다보니까 학생으로써 억압된 것들이 여기서는 좀 풀면서 마음이 좀 풍부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 맞아요. 주로 어느 시간에 오게 되죠?

모두: 점심시간.

신: 아, 복잡하겠네.

여 2: 어떨 때는 복잡하고 어떤 때는...

신: 앉아있는 공간은 여기?

모두: 예.

신: 여기 앉아있거나 서있고

여 4: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앉아서 다 보고나서 좀 이려고 하면서... 너무 떠들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만 하고 금방 다 없어져서. 다시 또 누가 앉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러진 안아요?

신: 여기 바닥에 앉고 그러진 안아요?

여 3: 점심시간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1,23학년 시간이 다 다르니까 오는 시간도 다 다르고 어떤 때는 친구들끼리 1학년 같은 경우는 늦게 먹으니까 여기 한 바퀴 돌고 가서 먹고 하니까 시간차를...

신: 여러분 실제로 여기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모두: 네.

신: 그 다음에 학교 건물도 바뀌었죠? 색깔도 바뀌고 여러분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남 1: 예.

신: 정말?

여 3: 괜찮은데.

신: 옛날에 비해서?

여 4: 예

신: 여기 공간 바꿀 때 색깔이나 디자인 바꿀 때 여러분들 의견 넣을 수 있었어요?

여 4: 설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뭐가 제일 바뀌었으면 좋을지 해가지고 학생들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신: 설문지 조사 했었어요?

모두: 네.

신: 설문했으면 어떤 거?

여 4: 제일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게 어떤건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학교에서 가장 어떤 점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신: 뭐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어요?

남 2: 화장실하고 급식식 했는데. 급식실은 아직 안 고쳐졌어요.

신: 왜?

여 4: 토지문제도 있고 거기를 혈면, 공간자체가 딱히 더 나올 데가 없고 그래서 힘들 데요

신: 먹어요. 마시고 과자도 먹고.(웃음) 여러분 주려고 먼데서 가지고 왔어요. 서울에서부터 들고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원하는 대로 바뀌었어요?

남 2: 네

신: 화장실에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여 1: 문을 닫으면요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신: 어~ 자동으로?

여 1: 네. 전기도 들어오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맨 처음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안 켜지고요 문이 닫히면 켜지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여 4: 그리고 보편적으로 여자애들은 화장실을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럴 때 마다 깨끗하고 밝으니까 거기서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실에 있으면 애들이 좀 그래도 3학년은 자율학습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화장실 가서 떠들으로써 좀 더 이런 얘기하는 곳이 있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눈치도 안보이니까

신: 얘기하기도 편하고, 전주에 또 다른 중학교도 많죠?

모두: 네.

신: 다른 학교에 혹시 가 봤어요?

여 2: 가봤는데 우리학교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다른 학교 화장실 들어가면 더럽고 약간 우중충한 이미지인데 저희학교는 밝고 깨끗한 이미지니까

신: 화장실이 밝고 깨끗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모두: 네.

신: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왜 여행가서 터미널 가서도 화장실 딱 들어가서 아니면 놀래지?

남 1: 네.

신: 아.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요? 시설이 바뀌니까 학교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남 2: 훨씬 달라졌죠.

신: 어떻게?

남 2: 바뀌기 이전에는 사실 저희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했어요. 바뀌고 나서는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신: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남 2: 네

신: 음. 자, 많은 공간이 바뀌었는데요. 그때 공간별로 나누어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여 4: 학교 예전에 교실 바뀌었을 때 학교 페인트 칠 할 때도 전교생은 아니었지만 좀 몇몇 학생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한 것도 있었고 학생들이 그냥 페인트칠 작업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학교를 손으로 했다는 괜히 학교 보면서 만족감 느끼잖아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이빠지니까 그런 점에서 학생 참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만족함

신: 설문한 것들 많이 반영되었어요?

남 1: 그래도 많이

신: 어떤 거?

남 2: 가장 많은 게 화장실이요.

신: 화장실을 개선해달라고 해서 개선되었고, 또?

남 1: 아, 도서실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신: 어떻게?

남 1: 아, 옛날도서실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보고서는 참 열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층으로 옮기고 바뀌어지니까 확실히 책읽기도 좋고 시험기간에는 공부하게 해주기도 하니까 괜찮고 좋았어요.

신: 그러면 화장실은 모두 바뀐거죠?

모두: (웅성)아니요.

여 2: 아니요. 저희 안 바꿨는데, 저희 여자 쪽만 바뀌고 아직 남자랑 여자 쪽, 가운데 이런 홀 같은데 화장실이 또 2개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자화장실만 댔지, 여기에 있는 남녀화장실은 안 댔어요.

신: 그쪽은 옛날 화장실인거야?

여 2: 그런 것 같아요.

신: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양지중학교에서 학교에 딱 들어와서 교문이 이쪽이에요? 운동장 어딴어요?

전부: (웅성거리며)

신: 학교에 딱 들어와서 내가 쟈 사랑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00?

여 3: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화장실이 제일이요.

신: 어.

여 4: 저는 도서실이요 가장 맘에 들어요. 아, 저는 3학년 자율학습을 도서실에서 하는 편인데... 도서실이 제가 1학년 때 도서실은요 좀 너무 딱딱한 느낌도 많이 나고 그냥 책 좀 많이 놓고 그냥 책상 딱 놓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그냥 둘러 앉아서 그냥 같이 애들하고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 00?

남 2: 저는 이공간이 제일 좋은데요. 친구들끼리 와서 잡담할 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그림도 있어서요. 마음도 편하게 놓을 수 있고 그래요

신: 맞아요. 다른데서는 다 조용하라 그렇죠. 여기와선 자유롭게

여 4: 얘기를 하고.

신: 얘기할 수 있고 또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라 그림이 있으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00은?

여 1: 한지 공예 방이라고 4층에 있는데... 제가 다도부여서 거기 한지공예 방에서 토요일마다 찻찌주, 셋찌주 토요일마다 다도를 하는데 거기, 다른 학교라면 다도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하지 못하고 다도 예절을 갖다가 좀 더 힘들게 배웠을 것 같은데 학교에 한지공예반 생긴 이후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점 더 우리 전통문화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게 좋은 것 같아요.

신: 거기도 가봐야 겠다. 그죠? 우리는 투어를 먼저 안 해서. 그 방도 좋다. 그 방도 이번에 생긴 거예요?

모두: 네.

신: 00은?

여 2: 보드게임.

신: 오, 보드게임방도.

여 2: 애들이 보드게임 많이 즐기고 점심시간에 가고 그러니까 몇 번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드게임, 솔직히 학교에 전자사전 못가지고 오죠, 휴대폰도 못 가져오죠. 그러면 게임기를 못가지고 할 게 없는데 보드게임 그거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게임할 수 있고 친구들과하고 더 친밀하게 더 높일 수 있어서 좋아요

신: 학교에 보드게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게 굉장히 신선하다. 그죠?

모두: 네.

신: 실제로 몇 학년이 제일 많이 가요?

남 1: 1학년에서 2학년이 참여를 하는데 2학년도 많이 하고 1학년도 꽤 재밌어하고

신: 3학년은?

남 2: 3학년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신: 왜?

모두: (웃음)

여 3: 공부하라고, 자율학습 시켜요.

남 1: 하지만 축제 때는 들어올 수 있어요.

신: 1,2학년이 그림 점거를 하고 있군. 철모르는 1,2학년이(웃음). 그땐 좀 놀아도 되니까?

모두: (웃음) 점심시간에

신: 그럼 점심시간에 어떤 학생은 보드게임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미술관, 갤러리로 오고 또 어디가요?

여 3: 강당에서 농구도 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반에서 얘기할 사람 얘기하고

신: 점심시간 너무 짧다 그죠? 몇 시 부터예요?

모두: 12:20분부터

신: 몇 시까지?

모두: 1시 반까지

신: 오, 꽤 긴데

여 1: 그래도 짧아 보여요.
 신: 어, 짧아요. 짧아요.
 여 4: 점심 먹으면 심하게 짧죠.
 신: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은 항상 짧아요. 짧죠.. 또 주연까지 얘기했나? 그 보드게임 방에 남학생 여학생 누가 더 많이 와요? 1,2학년이 많이 오고, 또 남녀는?
 남 1: 거의 골고루 많이 와요
 신: 골고루? 남학생만 하는 거 아니고?
 남 1: 다 같이 해요.
 신: 그지, 00이 자기가 좋다고 했으니까.
 모두: (웃음)
 신: 그리고 00는?
 남 1: 저도 보드게임 체험관이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가요 일단 여기가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에서 보드게임 체험관이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놀다 보면은 웬지 자부심도 있고 또 즐겁게 놀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좀 별칭 같은 것도 하면서 스릴있게 게임도 하니까 재미있어요.
 신: 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끼리 다들 피시방 가고 그러죠? 나가서...
 모두: (웃음) 나가지 못 해요. 못 나가요.
 신: 그러니까 학교 마치고.
 여 3: 음, 마치고요. 그렇지만
 신: 그렇게 노는 것 보다 함께 보드게임 방이 훨씬 환경이 좋죠?
 남 1: 네.
 신: 깨끗하고... 아, 양지중학교 굉장히 멋진데, 집에 가서 자랑도 많이 해요? 부모님들 알고 계세요?
 여 4: 부모님들 여기 미술관 같이 주민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여 2: 다도교육도
 여 4: 다도교육도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또 뉴스에 나간적도 있어서 주위학교 애들이 어머 너희 학교 되게 좋다 그러면서 부럽다고 할 때는 뿌듯함을 느끼죠.
 신: 맞아요. 양지중학교 유명하구나.
 모두: (웃음)
 신: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 2: 옛날에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전주에 서신동이나 S중학교나 K중학교가 공부로 유명해가지고 양지중학교는 솔직히 공부를 조금 못해요. 거기보다는 거기보다는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양지중학교 하면 애들 말로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S중학교나 K중학교 친구 애들한테 너희 학교보다 우리학교가 시설이 더 좋다 그런 걸로 자랑을..
 신: 맞아요. 시설뿐만 아니라, 좋은 시설과 환경에 있으면 뭔가 자기의 그...문화적 소양이나 달라지는 게 느끼죠, 그림도 안보다가 보면 어머 세상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알게 되죠. 알게 모르게 자기의 안목이 높아지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성적보다 이런 안목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할지 몰라요. 잠재적으로 특히 어렸을 때 환경이나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굉장히 행운아들이에요. 그죠? 선배나 다른 학교에 있는 그런 게 없죠?
 모두: 네.

신: 그러면, 학교 좋아진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학교에서 이 공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돈이 많고 내가 디자이너라면 나는 이 부분은 좀 바뀌면 내가 참 좋아할 것 같다

여 1,2: 급식실.

여 3: 운동장, 좀 더 키웠으면 좋겠고

신: 음.

여 1: 급식실도 저희 학교에 사람이 좀 많은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딱딱 차있고 좀 시간이 딸리는 것 같구요. 급식실 좀 더 컸으면 좋았을걸..

여 2: 애들끼리 집단적으로 앉으려고 하니까 6명씩 5명씩 앉으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한자리를 차지하려하는데 일어나고 보면 한 두 자리 비고 그거 기다리려 시간 걸리고 오래 서 있다가 다 같이 먹으려고, 애들 다 같이 먹으려 하지 따로따로 먹으려 하지 않잖아요.

신: 교실에서 안 먹고 급식실가고 점심을 먹는데 (네) 너무 복잡하다 좀 키웠으면 좋겠다.(네) 음.. 또 다른 공간?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공간이 어디죠?

여 4: 아마 교실

신: 교실, 교실은 어떻게...

남 2: 교실 마루 바닥이 이번에 나무로 바뀌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전에는 시멘트 바닥이었을 때는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먼지도 많아서요. 청소를 해도 끈끈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마루바닥이라 부드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청소도 좀 더 깨끗이 하고 쓰레기도 버릴 것도 안 버리고

신: 교실 바닥이 깨끗해졌네.

여 1: 사물함도

신: 음, 또? 세면대?

모두: 사물함

여 1: 사물함이 바뀌었어요.

신: 사물함. 교실에서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 2: 칠판 앞에 부분 그니까 저희 반은요 다른 반에 비해서 다른 반은 벽걸이 TV로 되어있는데 저희 반은 TV 있잖아요. 그런 큰 TV로 하는데 그게 너무 그 뭐라해야 될까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칠판이랑 그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칠판을 벽 안으로 넣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신: 그 부분이 우리 반만 좀 다르구나... 그죠?

여 2: 네.

신: 교실에서 불편한 점, 공부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남 2: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수업자료 활용할 때도요 CD같은거 넣고 그래야 되는 돼요. 컴퓨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CD를 넣어도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시간이 불편해요.

신: 컴퓨터 느리다. 그죠? 또 다른... 교실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학교도 전체적으로 다 좋고, 급식실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운동장?

여 3: 운동장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장은 없어요, 크고 작다해서 지장은 없는데

신: 운동장이 크면 많이 돌아야 하니까(웃음), 컸음 좋겠지만 강하게 얘기 안 하는구나

여 4: 준비운동 때 한 두 바퀴 돌아야 되는데, 거리가 작은 한 바퀴랑 큰 한 바퀴랑은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신: 마셔요. 마시고 두유를 먹어야지 된데... 칼슘도 있고 싫어해요?

모두: 아뇨(웃음)

신: 근데 왜 안 먹어? 얘기할 땐 안 먹는거야?

모두: (웃음)

신: 그 다음에, 지금 남녀 합반이죠?

모두: (웃음)

신: 아. 여러분이 그러면 다른 학교는 시설 변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왜 양지중학교만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남 2: 문화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예요 양지중학교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신: 어떻게 선택을 받게 되었어?

남 2: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신: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당첨이 되었어요?

여 4: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좀 많이 다니시면서 좀 그런걸 알고 많이 이거 학교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저번에 아침조회 때 말씀하셨던 거 들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는 학생이니까 많은 걸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시던데

신: 맞아요, 교장 교감선생님 많이 노력하시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학교가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고 여러 좋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학교도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모두: 네.

신: 이렇게 모든 학교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어른들한테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 학교 환경이 좋아지고 바뀌는 게 왜 중요한지 각자 이유를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여 4: 학교가 시설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학생들 지금 심리가 아직 커갈 때 많이 혼란도 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복잡한데 많이 볼 수도 있고 느끼면서 많이 인성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생 때 이런 학교생활이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 2: 그리고요 학교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요. 학교에 대한 불만이 컸어요. 학생 전체적으로 근데 바뀌고 나니까 불만 같은 게 없어지고 학교에 대한 그런 속에 생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학교에 불만 있으면 학교에서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잘돼라 추진을 할 때도 반감이 생기니까 이런 걸 바뀌줌으로써 좀 같이 동조를 할 수 있게 하는...

신: 맞아요. 00은?

여 1: 공부하는 분위기가 초등학교는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아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웬지 엄격하고 딱딱하고 그냥 공부를 할 때도 반감... 뭐라 그럴까 반감 같은거. 왜 좀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학교가 분위기가 편하다 보니까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신: 음. 00?

여 2: 애들끼리 항상 초등학교 때는 모여서 뭐가 안 좋다 이게 안 좋다 하면서 뒷담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학교 오면, 저희가 올 때는 싹 바뀌어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니까 화장실 가고 애들이 거의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고 물론 나쁜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안 말하면서 애들이 공부할 때도 크게 투정 부린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신: 음, 00?

남 1: 학교가 바뀌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점심시간에 회오갤러리나 도서관, 아니면 보드게임 체험관에 가서 열심히 놀고 공부하고 뭐도 좀 피로함도 풀고 오후 수업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학습, 학습 효율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신: 아, 맞아요.

여 3: 공부에 좀 시간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보드게임방 같은데 가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가면 다른 친구들 만나기 쉽잖아요,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고요. 그런걸 하다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신: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보드게임 방도 그렇고 갤러리도 그렇고 다른 때 못 보던 친구들 여기서 또 만나겠죠, 우리 반 아닌 친구들, 친구들끼리 더 많이 알게 되고, 선생님과 관계는 어떻게?

여 4: 선생님들도 가끔씩 여기 오셔서 미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어떤 때 보니까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 걸리면 이 작품 어떤 거라고 설명해주실 때 그럴 땐 좀 더 가까워졌으나 그런걸 느끼는 것 같아요

신: 보드게임방은 안 오세요?

남 1: 선생님들 가끔씩 오시면, 게임은 따로 안하시고, 좀 고치고..

신: 거기 줄 서서 해야 되지 않아요?

남 1: 아뇨.

여 3: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1반에서 3반까지. 순서가 다...

신: 그렇죠.

여 1: 할 게 많아서 안 가요. 남자 애들은 공차죠 농구하죠. 그리고 여자 애들은 여기서 수다 떨거나 보드게임 가서 놀고 아니면 반에서도 수다 떠니까 할 일 많잖아요.

신: 할 것도 많은데 갈 것도 많고 그래도 좋은데 선택할 게 있으니까... 그 한지체험방은 언제가요?

여 2: 주로 그냥 다도부 애들한테만, 다도 배우니까 이제 그냥. 다도부가 아닌 학생들은 별로 못 가요.

여 3: 다도부 아닌 학생들도 열려있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그냥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가야금을 하는데 거기서 잠깐씩, 선생님들(웃음) 선생님들 모셔놓고 연세 있으신 선생님 모셔놓고 병창을 해요.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것처럼 가끔씩 하는데 그런 점에서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신: 그게 전주의 문화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주가 한지로 유명하죠?

모두: 네.

여 1: 한지공예도 한다고 했어요.

신: 아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할거나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학교 변화에서 1분, 2분 남았는데... 없으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2) 교사 인터뷰 편

날짜: 2009. 9. 22
장소: 희오갤러리
인터뷰어: 신나민
참여자: 남1(김00), 남2(나00), 여1(김00), 여2(배00)

- 신: 어제 영주 남산초등학교 갔거든요 서울에서, 가서 가로질러서 전주로 왔죠. 바로, 전주에서 자고 그러고 왔죠.
- 여 2: 아, 저는 서울서 바로 오는 줄 알고 11시쯤 웬찮겠네요. 그랬더니
- 신: 무리죠. 선생님.
- 여 1: 이 사업이.
- 신: 네. 서울하고 지방하고 5개 학교였거든요. 2008년부터. 이 연구 목적은 변화 후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는가 그거를 제가... 동국대학교 신나민이구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좋아요. 사진도 보고
- 여 2: 한지방은 더 멋져요. 다도교육, 학생들과 주말에 다도교육
- 신: 예, 예.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잠깐...
- 여 1: 맞아요. 저희 학교는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한 가지씩 했다고 했는데.
- 신: 예. 다른데는 전반적인 변경은 없고 주로 화장실
- 여 1: 예,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12개 공간을 해가지고요 2007년 12월에, 12월 말쯤에 오셨어요. 그 계획서는 그 전에 내고 결정 되가지고 방학 바로 직전에 설문 와서 애들한테 조사하고 그러고 12월 말에 방학을 했는데 1월 3일날 선생하고 애들하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워크샵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가지고 2008년 1월 겨울방학은요 거의 선생님들도 반납 했었어요.
- 신: 이거 때문에? 워크샵?
- 여 1: 네(웃음)
- 신: 워크샵 때는 주로 어떤걸 하셨어요?
- 여 1: 워크샵 맨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간별로 팀을 짰어요. 제가 화장실 팀이었어요. 그래, 아까 오신다고 하신 체육선생님은 강당 쪽이었나 강당도 하기로 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가각 축소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이 인제 추가됐나봐요. 원래 계획한건 더 컸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다는 못 이루어졌지만은 또 그 동안에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들은 돈을 한 번도 본적은 없는데(웃음), 물품이 직접 왔어요. 페인트칠 할 때도 페인트가 직접 내려 와 가지고 방학 때 그 무안중학교
- 신: 예, 예.
- 여 1: 들으셨죠? 거기 화장실, 우리 학교에서도 거길 가고 그 학교에서도 우리학교를 왔어요. 와가지고 여름에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페인트칠도 하고 그니까 처음에 이 계획, 사업추진하신 그 분이 문관부에서도 이렇게
- 여 1: 참여를 해야 학교에 더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더 잘한다고 워크샵도 그래서 막 추진을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애착도 잘 안가지고
- 신: 선생님들 일이 너무 많으셨겠다.

여 1: 작년에 많이 했죠. 열심히
 신: 지금 보람 느끼세요?
 여 1: 학교가 다른 학교랑 틀리니까 와서 보시는 분들이 학교가 참 이쁘다는 말을 많
 이 하니까 이런 학교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신: 선생님들 쓰시는 공간도 바뀐 곳 있어요?
 여 1: 선생님들 쓰는 공간 안 바뀌었어요.
 남 2: 학생 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 공간도 활용하기보다... 뭐 공간이 부족해서 솔
 직히
 신: 예, 교사 화장실은 바뀌었죠?
 남 2: 똑같이 다 바뀌었죠.
 여 1: 교사 화장실이 요 사업하고 별개로 따로 교육청에 먼저 했어요. 교사 화장실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해 가지고 음악가여서 그
 런지 좀 아름다운거 있잖아요. 깨끗함을 추구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너무 안 좋다 그
 래가지고 교육청에 얘기해서 먼저 추진하고 그러면서 애들 하게 되었어요. 거긴 별개
 로 하게 되었어요.
 신: 또 한분 안 오시나?
 여 2: 예, 저.
 신: 아...앉으세요. 선생님 바쁘신데 다른 선생님 오셔도 되는데...
 여 2: 다른 선생님은 더 바쁘셔서(웃음)
 신: 너무 바쁘셔서 (웃음) 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있는 신나민입니
 다.
 여 1: 잠깐 기다리세요.
 남 2: 우리 학교 전반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학교 화장실만 이렇게 관심 있어서 그런가,
 화장실만 이렇게 얘기를
 신: 아,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데 설문지는 2008년도에 실험사업을 했던 5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실시한데 대부분의 학교는 개선의 규모가 화장실에 국한 돼있거
 든요. 양지중학교가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바뀐 케이스죠.
 여 2: 화장실은 문화공간 축에도 못 들어가는데요. 좋은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남 2: 저기. 옛날 학교에 비해서 옛날학교는 그대로 화장실이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도
 쓰거든요. 문 같은 게 떨어진것도 막 고쳐쓰고 오늘날 같이 새 학교처럼 싹 화장실을
 이제. 깨끗하게
 신: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선생님들이 관찰하시기에 학생들이 어떤 게 많이 바뀐 거
 같아요?
 남 1: 제가 보기에는요. 첫째가 화장실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
 여 2: 특히 여학생들
 남 1: 공부할 시간만 있으면 가 있는거야. 거기 냄새가 안 나니까 그리고 전에는 중학
 생인데도 화장실 집에 가서 보는 애들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여 2: 맞아요. 집하고 학교랑 비슷한 수준이 돼 버린거야. 공간이
 남 1: 초등학생들이 그런다 하는데 중학생들도 그러거든요. 옛날 화장실들은 많이 고장
 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랬는데 좀 안정감도 주고
 신: 안정되는 것 같고.
 남 1: 예, 그래서 애들도 편안하게 일보고. 거기가 아예 놀이터예요.(웃음)

여 2: 말 그대로 화장을 고치는 공간이에요.

남 2: 화장실이 나빴을 때는 애들이 문 같은 것도 많이 차고 장난도 많이 치고 뭐 그냥 낙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새 걸로 지어놓은 다음에는 낙서도 없어지고 발로 차지도 않죠.

신: 음.

남 2: 더 깨끗해지고 옛날에는 문짝도 잘 떨어졌어요.

신: 흡연이나 그런 거는?

남 2: 아이 확실히 흡연은 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죠.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락거리다 보니까 애들도 못해. 애들끼리 얘기를 해.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 많이 줄었어요.

여 2: 아, 그러네요. 화장실이 열려있으니까 이제 인기 있는 공간이 되어가지고.

남 2: 그대로 화장실이, 학교에서 얼마만큼 애들을 지도해서 못하게 하느냐지 화장실 깨끗해서 담배 안 피고 지저분해서 담배 안 피고 그런건... 이제 지도를 학생부장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잘 한다고

신: 이런 공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다른 학교엔 없는거고, 다른 학교에 근무도 해보셔서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애들 학생들의 변화 뭐 보드게임,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 같다.

남 1: 솔직히 애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얼마큼 변했냐는 것은 수치상으로 알 수 없어요.

신: 맞아요.

남 1: 근데 생각보다 좀 차별해진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아직 지금 중학생들이 켈로 알קות 때거든요 그런 것은 똑 같은 것 같아. 근데 애들도 와서 보고 행사할 때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런 공간에 왔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남 2: 우리 같은 경우, 2,3학년들은 잘 모르고 3학년들은 좀 좋다는 걸 느낀다고

남 1: 좀 편안해 해.

신: 선생님은 학생들의 변화. 지금 관찰하시면서 학교가 바뀌고 이전하고 이후를 볼 때 애들이 어떻게 바뀐 것 같다

여 1: 애들이 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직도 쓰는 부분이 서투른 것 같아요.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깨끗한 거에 대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집에 까지 가는 일은 참고 가는 일, 대변보고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화장실 가는데 불편이 없는 긍정적으로

신: 음, 선생님은 좀 차별해지는 것 같다

남 1: 예, 약간은

신: 조금씩 조금씩 바뀌지요.

여 2: 애들이 일단 학교에 대한 불평들이 줄어들잖아요. 요새 애들은 표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잖아요. 아휴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더러 어찌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불평이 줄어들거예요. 학생들이.

남 1: 이제 청소를 시켜도 전에 화장실 애들이 청소를 잘 안해. 안 벗겨지니까

여 2: 맞아요.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남 1: 요즘은 잘되니까 청소당번도 걱정이 없어 전에는 화장실 청소 켈로 벌 받는 게 화장실청소야 지금은 시켜도 그냥 가서 하고.

여 2: 화장실 청소 배정해주면 왜 제가 하나요. 그러잖아요. 꼭 그래서 다른 건 안 바뀌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는 바뀌었는데 요즘은

신: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해도 기꺼이 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유지를 해야한다는 걸 아니까.

남 1: 그리고 교실 자체가 딱딱하다 그러니까 화장실은 그래도 맘대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편안하고 색깔도 그렇고 거부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 1: 화장실이 약간 휴식 공간 같은 역할도 커요 애들이 모여서 점심시간 모여서 양치하면서도, 많이 모여서 하니까.

신: 그니까 선생님 많은 변화 중에 단연코 큰 효과를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 게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 2: 많죠. 학교에서는 이런 문화공간을 생각 안 했을 때 교실분위기하고 학교에서 가장 고쳐주고 싶은 공간이 1위가 화장실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들이 집보다 더 오래있는 시간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화장실을 제일 먼저 고쳐줬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화장실을 문광부에서 제일 마지막에 고쳐주시더라고요 제일먼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요.

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실에서 많이 지내잖아요. 지금 교실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도 그렇고 학생들이 쓰기에요 그렇고 교실은 어떤 형태로 앞으로 미래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남 1: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라 이 체계가

여 2: 숫자만 대폭 줄었으면 좋겠어. 물리적인 시설적인 것 보다는 학생 수를 줘..

신: 현재 몇 명이에요? 현재

여 2: 38명

신: 선생님 생각하기에 적정인원은? 지금 그 교실크기에서?

여 2: 25명 정도 . 애들이 예를 들면 공간이 부족해요

남 2: 이제 쪽 가다가 멈춰 버렸어요. 또 시골 같은 경우는 1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뭐. 학생수가 그 적은 데가 있으니까.

여 2: 애들이 숫자가 적다고 사물함도 더 크게 넣어줄 수 있으면 자기 물건도 잘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형식만 갖춘거잖아. 사물함도

신: 도시 학교니까 학생들이 많고 그죠? 교실 크기는 다 똑같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좁은 교실 공간 스페이스가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한

남 1: 뭐 전체적으로 항상 학생수 문제는 많이 나타나는데 뭐 아까 교육공학 교수님이 시더라. 근데 애들의 적정수준이야 제대로 있더라도 많이 접하기도 하고 많이 질문도 하고 발문도 하고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안돼요. 그러고 많다보니까 애들이 조금만 움직일라고도 좁은 공간에서 난장판이 되고 누가 봐도 막 어수선하게 보이고 근데 애들도 없지 않아요.

신: 맞아요. 그게 공간크기의 문제죠. 그 부분을 굉장히 바꿀 그 생각은...

남 1: 사실 집중이 안 돼요. 또...

신: 그것 이외에 시설이나 환경면에서

남 1: 인터리어를 계속 요청

여 2: 교실 안에도

남 1: 벽면이 좀 우중충하고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학교는 10년이 넘었는데 바닥 리모델링을 하고 상당히 많이 한거예요. 옛날에는 엉망정상이었어요.

남 2: 저희 학교하고 S중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흰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해가지고 환풍도 잘되고 그런 스타일인데 전에 조금 밀집되게 좀 직원들같은 경우 환풍도 안되고 특별실 만들다보니까 그런 것이 차단이 되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거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자들이 어떤 것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연구를 보면 채광, 조명하고 이 공기의 질, 그거 두 개가 성적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자연채광으로 굉장히 밝은데 있을 때하고 인공, 조명채광하고 수학적 같은게 조명이 좋은데서 공부한데서 공부한 학생들도 훨씬. 그리고 여기는 조용하고 비교적 공기가 좋잖아요. 도시의 도로변에 나있는 학교 그런데는 문도 못 열어 놓고 수업하거든요. 공기가 안 좋고 시끄럽고 그니까 학생들이나 교사들 스트레스 엄청 높은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같은 테스트를 봐도 떨어지고. 시설.

남 1: 이게 있데요.제가 체육을 하다보니까 운동장 수업을 하는데 소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운동장하고 이게 가깝다보니까 여름에는 방해를 받아요. 수업에. 저희가 휴식공간이 사실은 바로, 건물 바로 밑에 있는데 애들이 떠들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다 위에 들려요. 그러다보니까 수업에 방해가 되지. 이제 애들이 집중하고 수업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좀 다른 생각하는 애들은 그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신: 그것도 저의 다른 연구주제 중에 하나데 방음 교실간 방음.

남 1: 그래요.

신: 왜냐면 선생님들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마이크를 쓰시고 그러면 본인도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 집중이 잘 되는데 옆 반이 방해가 되요. 문 열어 놓고 하면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남 2: 그리고 저번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이크가 안 좋네요. 애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

신: 선생님 여기 마이크 쓰시는 분 계세요?

여 2: 저는 마이크를 써요.

신: 예, 근데 그거를 저는 그거, 원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성대 크기나 저도 마이크를 써요. 대학강의에서도.

남 2: 대학은 쓸 수 있죠. 왜냐면 공간, 학생수가

신: 저는 적어도 써요. 쓸 때 안 쓸 때 제 에너지를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거는 이 주제는 아니고...

남 1: 근데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도 좋은 거 써야지.

신: 아. 맞아요. 그거 확실해요. 그게 잡음이 많으면 역효과가 나요.

남 1: 제가 밖에 보면 다 들려요. 마이크 소리가 몇 반씩 쓰는데(웃음)

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은 기자재 이런 데는 불만이 없으시네. 교실에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다. 소음이 많이 들린다. 온도라든지, 다방면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교실환경.

여 2: 요즘은 냉난방인 잘 괜찮아요.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남 2: 기자재 같은 거는 컴퓨터가 그래도 좀. 느리다고 해야죠. 같았는데

여 2: 그 부분은.

남 2: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우리학교는 또 잘됐다고 봐야해요. 또.

여 2: 다른 학교는 훨씬 더 낙후되어 있으니까.

남 2: 안 되는 반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들어가면 고장 나 있고 또 다음날 고치고 그럼 수업이 연관성이 끊어질 수 있죠. 쪽 하다가.

신: 이 사업을, 개선사업을 큰 프로젝트 었을텐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방학 때도 나오시고 워크샵하고 그러셨잖아요. 이 전체를 주관하신 그 매니저라 그러나 디자이너는 누구셨죠?

남 1: 그분은 교과부 승진해가지고 왔어요.
 여 2: 승진해서.
 남 1: 그분이
 신: 일을 많이 하시더니 승진을 하셨네(웃음)
 남 2: 좀 어려운 일을 하시다 어려운 일을 하시다가
 신: 그다음은 선생님 차례 상대 아니에요? (웃음)
 여 2: 저는 올해 이제 다 지어진 상태에서 활용하라고 맡은 거예요
 신: 그게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maintenance을 잘해야지 유지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오셔서 뭐하셨어요? 학생들과 워크샵하고
 남 1: 이제 예를 들면 옥상팀, 갤러리팀 쪽 있었어요. 보드게임방, 아이디어를 내고... 맡아서 그랬죠. 그룹에 하나씩 선생님고 학생있고
 여 1: 자료조사도 하고 사전 답사도 갔다오고
 남 1: 세미나도 갔다오고
 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 공간 어떻게 할지 생각해오라고
 모두: 네.
 여 2: 그렇죠. 팀별로 공간이 11개니까 팀별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신: 공간이 11개니까 11개 팀별로. 예를 들면 화장실 팀하면 어떻게.
 남 1: 저희가 화장실팀 같으면...
 신: 선생님 화장실팀이셨어요?(웃음)
 남 1: 화장실은 아니었는데.
 남 2: 뭐였지? 무슨팀이었지?
 여 1: 강당
 남 1: 강당은 돈이 많이 들어서 안했어. 안하고. 운동장. 응.. 운동장 같은 경우도 조희대가 참 옛날 일제시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걸 없애자 없앤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계단식도 잔디도 좀 하고 저쪽 가에 나무도 좀 심고 이제는 외부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산책로도 좀 만들고 근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신: 그럴 때 각 팀별로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 1: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여 1: 고치기 전에 화장실을 돌면서 불편한 점 고쳐야 할 것들을 아니 이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도면으로 그렸어요. 그렇게 화장실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좋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있죠. 그런데 특히 백화점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런데라든지 미술관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좀 좋다는 화장실을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워크샵할 때 발표를 했어요.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문 같은 경우도 인터넷 찾아봐서 내가 무슨 문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벽도 타일을 붙였으면 좋겠다.
 신: 진짜 공부를 많이 했네.
 여 1: (웃음)진짜 많이 했어요.
 남 1: (웃음) 저희 그냥 전부
 여 2: 저는 작년에 와서 그걸 못 했는데요.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양지중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1,2월에 왔는데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다 앉아계시고 몇 분, 서너분 나오신게 아니라 그 학교는 개학을 벌써 했네 하는 정도로 다 나와 계신다고 놀랐다고.

신: 지금도 무슨 시험을 본다고 저희 설문지도 안 해 주시고.

모두: (웃음)

신: 공부 많이 시키시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여 2: 예를 들어 문화공간에 알맞게 걸맞게 학생들의 성적도 수준 있게 나왔으면

신: 이게 과급효과라니까?

남 1: 이게 지금, 지금 오후에도 어디 경남인가

여 2: 충북에서도 방문을 하신데요.

남 1: 충북에서도 오신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켈로
나야해야지.

여 2: 이 지역에.

남 1: 이거만 했는데 성적이 떨어진다 이미지도 안 좋고 저희도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데 생각은 안 했는데.

신: 점점 주목을 받으니까 부담이 생기시죠?(웃음)

여 2: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에 성적이 알맞지 않게 나오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
짧아요. 아, 그 학교는 문화공간만 제대로 해왔지 실제 학교에서 해주어야 할 것은 안하
는가보다

신: 맞아요.

남 1: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 2: 양쪽을 다 걸맞게 균형 있게 해주려니까.

신: 좀 드세요. 한뿌리도 드시고 좀 포도도 드세요.(웃음)

남 1: 근데 솔직히 이제 문화 공간 때문에 열심히 시켜야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인데 자꾸 자꾸 이런 상황도 많이 나오고 외부에서도 오고.

여 1: 네. 주목을 받고

남 1: 아이,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문광부가 됐으니까 성적을 올려야겠다 하는 것 아니
고요. 거따 연관져서 말하다 보니

신: 그래요. 맞아요. 근데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다 따로따로 오셔서 이름을 못 적
었는데.. 선생님 성함이..

여 1: 김00

신: 과목은?

여 1: 수학

신: 수학과 몇학년?

여 1: 1학년

신: 또..

남 1: 김00.

신: 선생님 체육?

남 1: 체육이고 2학년

신: 백00 선생님

여 2: 백00요. 2학년 영어하고

남 2: 이00, 환경부장입니다.

여 2: 2학년 3학년 기술

신: 네, 네. 그 과정에서 워크샵 할 때 진행은 주로 선생님들이 하셨겠어요?

남 1: 그렇죠.

신: 팀별로

남 1: 진행도 저희들이 했어요.

여 2: 학생 학부모 보다는 교사위주로

여 1: 아니, 학생도 발표를 하고 학생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남 1: 학부모들도 모시고

남 2: 시청에서도 나오고

신: 예.

남 2: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게 원래는 10억 프로젝트인데 중간 중간 돈이 끊겨가지고 몇 군데는 하지를 못했어요.

신: 맞아요. 중학교에서 그 정도 규모의 이 프로젝트해내기가 굉장히 드문 경우였을 거예요.

남 2: 강당만 고치려도 한 10억 드는데...

남 1: 저희가 몇 차례 한 이유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내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첫째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 중간 중간에 다시하고 점검을 하시고 그럼 또 다시 그 맡아서 조사하고 준비하고 그런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경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한대로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에 맞춰야 하고 뭐 하다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구상했던 대로만 했어도 진짜 멋있을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절반도 안됐어요. 절반도 안됐어요. 선생님들이 위로 한편으로는 불만을 가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경제적인 특면 때문에 많이 커트가 됐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요구는 좋고 강당이나 운동장은 똑같고

여 1: 이제 그분들은 그런 얘기했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학부모랑 교사랑 학생들이 학교가 바뀌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5번 했었어요.

신: 아, 대단하시다.

여 1: 예, 1주일에 한번씩, 1주일에 한번 하려면 그동안에 답사를 나가야해요. 중간에

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시고.

여 1: 예, 그럼 막 불러요. 무슨 팀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잘 못하면 거기 그분이 또 뭐라 하시고.

신: 그분이 누군데요.

남 2: 휴.

여 1: 아니, 아니.

남 1: 문광부에서 하시는

여 1: 아...

신: 그분 성함이 김00님

여 1: 예. 그분이 처음에 주관을 하셨어요.

남 1: 저희가 답사를요 다 가가지고 디카로 찍어가지고 프린터로 다 복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전문가니까 다들 알잖아요. 딱 보시고는 딱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비싼 것이다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율을 하면서 많이 했어요.

신: 실제 공사는 방학 때 하셨어요? 학기 중에 하셨어요?

남 1: 방학 때

여 1: 방학 때 주로 했어요.
 신: 안 그러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름방학 때 했어요? 겨울방학 때 했어요?
 남 1: 겨울방학 때
 남 2: 겨울 때
 여 1: 겨울 1월에 하고 2월부터
 남 1: 저희가 화장실이 생각보다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어요. 배관 다 털어서 배관설치도 다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층층별로 했어요. 한꺼번에 못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다른 학교도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을 한번 고친다는 것은 상당한 공사라는
 신: 그렇죠. 집에서 하는 공사도 화장실 공사가 제일 힘들어요. 아파트에서도 돈도 제일 많이 들고 그리고 배수 이거 말라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설치하시고 나니까 여기 그림도 바뀐다고 그러던데
 모두: 네.
 신: 누가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남 2: 여기 교장선생님이 예술회관에서 개인전도 하고 몇 명 모여서 뭐 하잖아요 그림 원래 9월달이면 9월달 계획이 나와요. 쭉.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산수화라든지가 이런거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다주기도 하고
 신: 아.
 여 2: 교장선생님이 그걸 다 하세요 섭외를...
 남 1: 작품을 제가 이제 그 미술가를 많이 아는데 우리 동호인 선생님들이 하는 작품들도 전시회를 하면 그것도 갖다놓으려 하는데 주민들도 와서 봐야하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수준이 높아서 그래서 아무 그림이나 안 갖다 놔요.
 남 2: 이것도 9월달에, 예술회관에서 9월초에 열었던 거예요.
 여 2: 월초에 열었던 걸 저희가 11일부터 21일까지 일단
 남 2: 보통 3-4일 전시를 하거든요. 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빨리 해야 하는데 학교는 거의 우리학교뿐이 없으니까 다른데도 가고 하는데 미리 이야기하면 먼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서예작품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오고 수채화나 할 때만 가지고 오죠.
 신: 주민들은 어떤 시간에 와보세요?
 여 2: 평상시, 평일 개방 그대로 하고요. 학교처럼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림이 와주는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해요.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신: 어떻게 알고 오세요?
 여 2: 학교 홈페이지 알리고요,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
 남 1: 항상 알리기 때문에 애들이 알고 있어요.
 여 2: 그리고 새 그림이 왔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잖아요. 새로운 그림이 새로 전시된다면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남 1: 저희가 딱 플랜카드로 걸어놓고.
 여 2: 현수막 설치,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이 3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래 작가분이 오실 때는 방송에다가 했어요. 지역방송에 마지막 나갈 때 이주행사 할 때요, 조정래 작가 양지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문
 신: 그래서 양지중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 2: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
 남 2: 근데 이제 실력이...

여 2: 근데 아직 초창기잖아요. 초창기라 애 쓴 만큼 선생님들이 노력한 만큼은 와 닿지는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지 되고 하면서 좀 더 수정들을 해가야

신: 그렇게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야. 선생님들이 다 바쁘시고

남 2: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있어요.

여 2: 널부터 감사야. 그래서

신: 그니까 다른데 가서 못 쉬니까 빨리 포도도 드시고 (웃음) 열량을 보충 하세요.

남 1: 이제 TV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하니까 애들이 뭐가 있냐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자부심이 있고, 그런 면에서 자랑거리잖아요. 지네들도 다른 학교 애들 만나면, 그러면 보기 좋더라고요.

신: 음.

남 1: 갤러리가 화장실보다도 이제, 갤러리가 많이 되는데 손님들 오시면 항상 모시고 와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와서 보셨던 분들이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생각도 모르게 다른데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학교에 무슨 갤러리가 있냐고, 이제 오신 분들은 아는데...

신: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남 1: 다른데 같이 똑같은 갤러리라 근데 못 미친 사람들은 미술관이나 그런데서나 봤던 갤러리라고 생각하지 여기 와서 그런지도 몰랐지.

신: 학교에 들어오면 바로있어가지고 대게 좋아요.

남 1: 좀 아쉬운 것이 문이 이쪽에 자유롭게 있으면

신: 아.

남 1: 문제가 뭐냐 잘 관리, 도난관계도 있고

여 2: 예, 도난, 훼손도 있고요.

남 1: 이것도 잘 못하면 그 사람들 이거 다 재산인데 이거 큰 일나죠. 그거 때문에

남 2: 이거 천 만원짜리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치우고, 비싼 것도.

신: 어제 간 남산초등학교 경북 영주 남산초등학교는 화장실 사업이 아니었고 이학 교만 특이하게 빈 공간 빈 교실을 북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조그마하게 있고 책들, 아이들이 앉아서도 보고 마루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수업마치고 학원가기 전에 갈 곳 없을 때 애들이 막 피씨방 가거나 문방구가 기웃기웃 하잖아요. 개들 와서 숙제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한 두 분씩 청소하고 관리를 해주시고. 초등학교생들.

남 2: 그 경남 밀양중학교 가보셨어요?

신: 예, 무안중학교

남 2: 아..참. 무안중학교

여 2: 저희와 교류사업 했어요.

신: 거기 교장선생님 굉장히 멋있으시죠.

남 2: 네.

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 도서관도 한적하고 멋있잖아요. 거기서 독서 토론회 이런 것도 하신데요. 주민들이랑 교장선생님이 책도 많이 보고 하시니까 이번엔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그걸 읽고 밀양에 계신 유지들이나 뭐 지식인들이런 분들이 도서관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림도 걸어놨잖아요. 나름대로 화장실도 그림 있는 거 처음봤어요. 나중에 양지중학교 가보세요. 거긴 갤러리가 있어요.(웃음)

남 1: 저희가요. 어떤 작품을 보고 잘 모르는데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없어.

신: 저도 그래요.

남 1: 전에는

여 2: 낮설죠?

남 1: 아니, 그림이구나, 그렇지. 전에는 한 번씩 그런데 가면요 그러고 아시는 분들 뭐 전시회한다고 하면 막 가거 보면 설명을 해 주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거야, 그런데 지금은 자주 보니까 눈에 딱딱 들어오고 그래요.

신: 학생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남 1: 그래요?

신: 자기들이 와서 여기서 그냥 잡담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림이 바뀌는 게 눈에 들어 온대요.

여 2: 저희는 이 갤러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두 번째 수채화전은 안내문이 없어요. 알고 보면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예를 들면 수채화전도 수채화 특징, 수채화는 뭔가에 대한 크게 안내를 붙여놔요. 학생들이 읽고 관람하게 하고 또 미술시간하고 연계를 시켰어요. 미술선생님들이 보고서를 한 학기에 한 번씩 쓰게 하고 수업시간에 전시 본 것을 발표하게 하는 접목시킨 선생님들이 계세요. 학생들이 이 뭐라 그런줄 알아요. 첫 번째 그림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와서 형~둘러보고 간다는 거예요. 공간자체가 좋아서 이제는 와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보고서 쓸 때 애들이 쓰더라고요.

신: 그게 지금으로써 양적으로 측정해서 애들이 얼마나 학업이 향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졸업하고 점점 크면서 굉장히 좋은 토양이 될 것 같아요.

여 2: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 안에 내재될 것 같아요.

남 1: 저도 애들이 많이 있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전시회 가서 찍어오기. 근데 개네들이 가서 뭐하겠어요. 밖에 딱 가서 플랜카드 찍고 오잖아요.

신: 그리고 숙제 때문에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좀 자유롭게 보고 싶네. 좀 안 쓰고

남 1: 아, 근데 저희는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항상 있는 게 이건데 와서 보고 그러는데 항상 들락거리고.

신: 행운이에요.

남 1: 처음에는 저희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공간이며 선생님들 공간 만들어주지 지금도 불편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사그라지고 딱 봤을 때 한번만 봐도 이제 좀 눈에 들어오고 이제 자꾸자꾸 눈에 트이는 것 같아요.

신: 알게 모르게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학교에 갤러리가 있으면 얼마나 가서 볼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냥 와서 담소하고 편안하게 와서 공간인데 그림이 있고 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대학에서도 이런 것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남 1: 전에 같으면요 저희 교육받을 때 같으면 작품 손상갈까봐 지키고 못 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은 애들도 그냥 들어와서 저희가 걱정을 안 해요.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 때 같으면 감독에 작품에 손도 못 대게 선 그어 놓고 못 가게, 근데 왜 그러냐면 교육이 되잖아요. 가깝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작품은 멀리보고 그러한 교육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 애들 수준도 높아지죠?

여 2: 교양인을 길러낸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문화공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 우

리가 막 이렇게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서 서서히. 나는 만지고 싶어 그런데 주변에서 하는거 보니까 애들이 안해 그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시민의식이랄지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 어떤 단어가 좋을까 진짜 선진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게 되는 것 같아요. 관리하고 섭외하는 것도 엄청 힘이 드는데 애들한테 그런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남 1: 이상하게 여기 와서는 떠들고 장난하는 애들이 없어. 교실에서는 떠들고 장난하더라도

여 2: 거기서 쓰는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피신처로 왔다하잖아.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더 이상 막 쫓아와서 안 넘어 온다는 거야. 그걸 쓰는 애가 있더라고 여기는 좋은 피난처야(웃음)

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목표가 공간이 사람들 바꾼다. 공간이 어떻게 해놓으면 거기서는 이 행동이 안 어울리면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여 1: 맞아요. 공간에 어울리는 행동.

남 1: 저희가 그걸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고 우리도 해야겠다는 건 그런 것도 없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남 2: 애들도 다 알지 대충 수학여행가면 절에 가면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 알지. 전시라는 거 알고 조용히 해야지 중학생되면 초등학교 애들은 좀 그래도.

신: 선생님들 정말 귀한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학교시설을 바꾸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런 학교 선생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해보신 입장에서 한마디씩 다 해주신다면...

남 2: 어떤 측면에서?

신: 시설도 그렇고 그 과정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여 1: 과정은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웃음) 그런 사업이 우리같이 안할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아까 말 한대로 워크샵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학교는 그렇게 안할 것 같아요.

신: 한 번에 하나씩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다 하는게 좋을까요?

여 1: 여유가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좋다.

신: 하지만 인내심을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 1: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면박을 좀 받았어요. 조사를 하라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거를 들면서 선생님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들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신: 우리는 그렇죠.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욕구만 말하는 건데.

여 1: 예, 예. 약간의 그런 공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부도 좀 되긴 했고 애들 같은 경우도 방학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들 섭외하는 것도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방학 시작하자마자 방학 들어가면 애들 집에 있는데 그 애들 다시 학교로 끌어들이면서 여기 참여하게 한다든지. 암튼 학교가 바뀐다 한다 하면 일단 바뀌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이게 완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분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신: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구성원들의 시간도 중요한 문제예요. 또 우리 김00 선생님

남 1: 저 같은 경우면 저희도 그런 형태로 했는데 항상 보면 교사 주로 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학교가 뭘 바꾸는데 뭘 바꿨으면 좋겠냐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중에 먼저 해야 할 것들 순위를 매겨서 그러한 부분도 학생위주로 먼저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

에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도저히. 전에는 몰랐어요. 아무리 문광부에서 몇 억 얼마든지 주겠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거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봤을 때 가장 학생들이 화장실부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느 학교나 다. 애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 제한된 예산이니까 학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게 좋다.

여 2: 저는 이 의견을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던데요. 작년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화공간 바뀌니까 좋냐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선생님 우리가 바꾸고 싶은 공간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학생들은 정적인 공간보다는 그냥 와서 맘껏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장에 농구대 좀 농구코트 땅 말고 우레탄 그런 농구시설을 원했다는 거예요. 남학생들 절반이상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 지은 학교들 가보라는 거예요. 농구코트가 너무 멋진데 그런 것을 곳곳에 해주면 정말 좋았을 걸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활동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애들이 원하는 게 급식소였어요. 가장 1위가 학생들이 농구코트, 놀 수 있는 공간.

신: 정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 한건데 학생들에게는 절실 한 거죠.

남 1: 요즘엔 그 놀이공원이나 어디 가도 다 농구대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 시설 보다가 학교 와서 보면 이제 공간이 적다보니까 저희학교도 가운데 농구골대만 꽃아져있고 다른 수업하다보면 농구를 못하고 공간이 좁아서 많이 그래요.

신: 실제적인 발달 면에서도 많이 뛰어놀게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여 2: 예, 해야 돼요.

신: 안 뛰고 비만이고

여 2: 그러니 실내에다 해놓으면 아무래도 조용히 해야 하잖아요. 활동을 하더라도

신: 발산을 할 수 있는...

여 2: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체험관 애들이 많이 와요. 보드게임을 하러요. 그런데 크게 막 웃으면서 하하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내고 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대거든요. 점심시간이. 자율학습하고 있는 공간 층에서 막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네 막 풀고는 싶은데 막 조용하게만 하자. 이 말이 입에 달아져요.

신: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웃음)

여 2: 그럼요. 좀 그런 부분들이 학교를 개선 할 때는 좀 고려해서

신: 처음에는 위에서 이걸 규정짓지 말고 화장실이나 계획을 하지말고 학생부터 밑 바닥부터 조사를 꼭 해 보면 농구대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나00 선생님 다른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요런 걸 좀 교훈으로

남 2: 예를 들면 예산이 일억이 나오면 애들한테 물어봐도 화장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십억 예산 해서 처음부터 했어요. 두달 동안 선생님들이 할 때, 학생들도 꿈도 있고 근데 안된적이 있어요. 제한된 것, 강당, 옥상. 그래서 안 됐어. 그런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일억공사면 1억에 맞는 공사만 딱 두 군데만 한다던가, 그럼 또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하면 좋은데 무리하게 돈이 확보도 안됐으면서 하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신: 그럼 또 약간 실망하잖아요.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규모에 맞게

남 2: 애들도 그렇고 기분이 확 나쁜 건 아니고 (웃음)

신: 실망하죠. 애썼는데

여 1: 꿈을 너무 크게 가졌어.

남 2: 10억 공사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어요.

남 1: 저희가 처음에 상황이랑.

남 2: 지금 이것도 시에서 좀 주고 교육청에서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찢끔찢끔 공사가 된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열성을 가지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됐지 안 그랬으면 화장 실이나 좀 고치고 말뚝가 깔러리하나만 딸랑. 처음에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선생님들 성함이나 이렇게 말씀 하신 거 다 공개되지 않아요. 이건 연구니까 그죠? 예 그런 거는 전혀 의식하지 않으셔도

남 2: 공개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웃음) 제가 뭐 찢릴게 하나도 없어, 상관 없어요.

신: 연구자의 윤리로서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려야 하는 건데 한분씩 오시고 그냥 얘기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학교시설이 왜 중요하죠? 학교시설에 계속 이렇게 투자하고 바꿔야할까요?

여 2: 바꿔야죠. 바뀔 수 있으면.

남 1: 왜 집도 안 좋으면 리모델링하고 그러잖아요. 왜 바꾸요? 집을? 그냥 잘 수도 있고 그러는데...벌써 집에 가면 정리 잘되고 벌써 집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행복하잖아요.

여 2: 맞아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남 1: 그 다음에 잠도 잘 자고 TV도 잘 보이고 행복하잖아요.

신: 그럼 아주 고지식한 교육학자가 그렇게 시설을 해준다 해서 애들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남 1: 저희는 올라간다고

여 2: 성적이 안 올라 같더라도 아름다운 학교에서 이미 학습된 게 있어요. 단순한 지식 성적 말고.

신: 선생님은 올라간다고 하셨죠?

남 1: 아니, 아니, 이게 여기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등학교 가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당장 표현할 건 아니죠. 당장 표 나는 것은요, 학원이고, 학원 많은데 아파트 비싼데 가면 선생들 많아요. 근데 저희도 이 학교에도 이렇게 유지하는 건 잘하는 편이거든요.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맨날 하는 것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에서 활동한 애들이 좋을 거라고 봐요.

남 2: 애들한테 좋은 계기를 심어준다고 봐요.

여 2: 계기면 경험이에요. 애들한테 경험인 것 같아요. 지네가 딱 알고는 학교건물이 이게 그럴 같아요.

신: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쳐서 마쳐달라고 하네요.